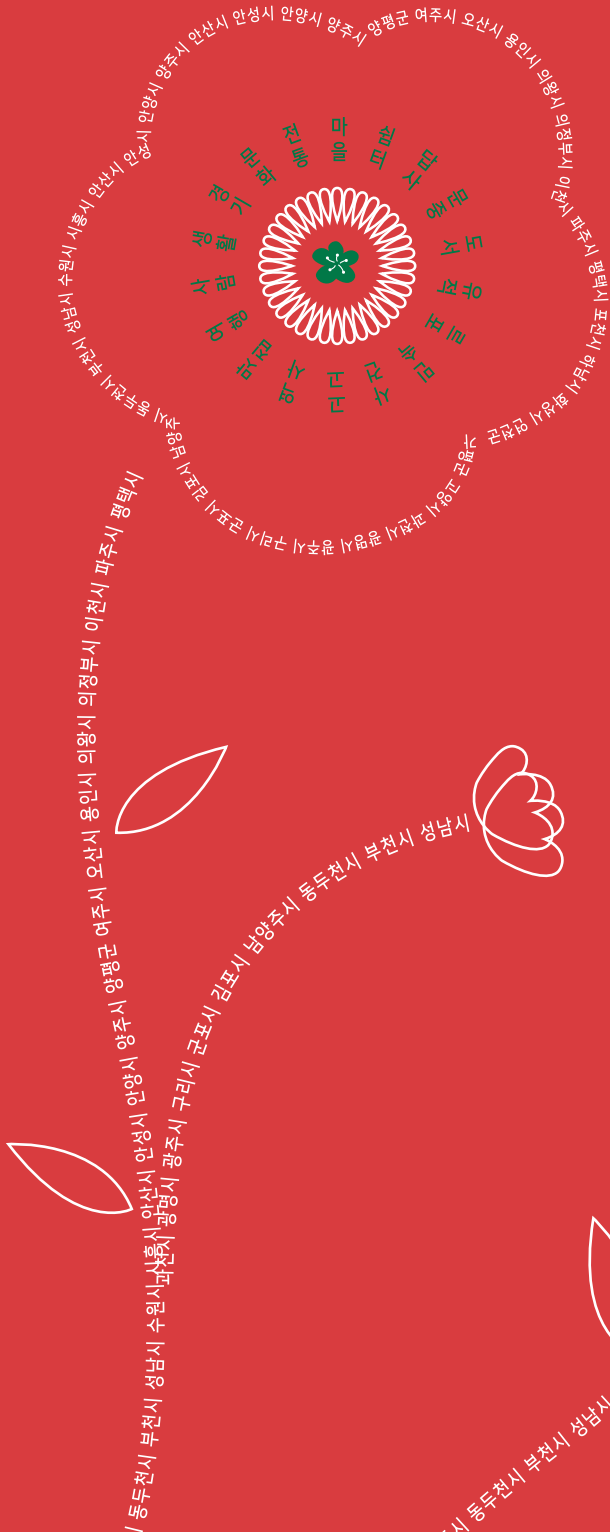


경기학 광장

Vol.
11

2021 겨울호



경기학광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자 합니다.

경기학광장

Vol. 11 2021 겨울호



조용필이 무명시절 공연을 하곤 했다는 파주 장파리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 정면

경기함광집

Vol. 11 2021 겨울호



Village & Community

전통마을

38선이 통과했던 포천 연곡리 제비울마을

08

People & life

인물탐방

공양주 보살 -불국행 김숙자, 스님들은 나만 보면 그저 좋아라 했어요.

14

토박이 구술

양재문씨에게 듣는 고양시 농업 이야기

19

정동만 용인 독성2리 이장, 마을주민 통째로 새로운 동지로 집단이주 추진

25

외길인생

'아이 제일주의'로 완성한 배혜경 교장의 교직 생활 40년

29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발행인 강현
기획 이지훈, 김성태
발행일 2021년 12월 18일
주소 (우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전화 031-231-8578
홈페이지 www.ggcf.or.kr
E-mail kst9796@hanmail.net
편집디자인 디자인이즈

본 계간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rip & healing

휴, 여행

청춘은 음악과 함께 여기에 남아, 음악도시 가평 36

산행

한남정맥의 현주소, 수원 - 의왕구간 42

경기도의 맛

김포 김구원선생두부 45

Research & study

공간과 역사

기지촌 ; '더러운 그리움'의 공간 64

기전의 고문서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고문서 68

경기도의 민속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손돌을 보다 73

학예연구사 코너

학예연구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파주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 77

연구노트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磨崖鍾)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석각 84

논고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91

Information & news

고고소식

조선시대 온돌의 발견! - 평택 화양리 유적 50

문화유적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 이름이 이름이 아니다. 56

경기학 책 소개

『경기지명총람-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60

VILLAGE & COMMUNITY

전통마을

38선이 통과했던 포천 연곡리 제비울마을

38선이 통과했던 포천 연곡리 제비울마을

김준기

제비울마을은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의 자연마을이다. 연곡리는 동쪽으로 국망봉, 견치봉(개이빨산), 민동산이 우뚝 솟아 있고, 서쪽으로 영평천이 흐르는 풍광이 수려한 고장이다. 나지막한 구릉지대로는 밭과 목장이, 하천변에는 논이 펼쳐져 있는 한적한 농촌마을이지만 간혹 탱크와 군용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마을 도처에 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군사지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38선이 제비울마을을 통과하던 시점부터 배태된 역사의 연장선이며 한동안 감수해야 할 모습일지 모른다.

장군이 배출되는 명당터 제비울

연곡리는 1리 심재, 2리 원평, 3리 만가대, 4리 제비울, 5리 조안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원조마을이자 으뜸마을은 제비울이었다고 판단된다. 연곡리는 『호구총수(1789)』에도 나타나는 유서 깊은 고장인데, ‘연곡(燕谷)’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비울’의 한자 표기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원래 마을이 있던 곳의 지형이 제비집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는 지명 유래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비울은 풍수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마을이며,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명당자리라고 한다. 옛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6.25동란 이후 군부대가 들



제비울마을이 있던 곳.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어셨는데, 이곳에 부임한 부대장은 모두 대령에서 장성으로 승진하여 나갔다고 하니 명당터임은 분명한 듯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마을의 세거성씨인 안산김씨 가문에서는 병마절도사 김석명, 전라 우수사 김석보 등 다수의 무신들을 배출한 사실도 풍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안산김씨의 세거지 제비울마을

제비울마을은 안산김씨의 세거지이다. 6.25 직전까지만 해도 연곡리에만 80호의 안산김씨가 살았는데, 대부분은 제비울에 거주하였고, 몇 가구는 원평마을에 거주하였다. 현재 연곡리에는 안산김씨가 2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입향조인 촌로 선생을 기준으로 10대손(‘영’자 돌림), 11대손(‘채’자 돌림)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다른 성씨들이 제비울에 거주한 것도 오래 전 일이고, 안산김씨가 차지하는 주민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듯 항렬까지 유사한 동성들이 여전히 모여 사는 경우가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또한 마을에 있는 문중 소유의 전답과 건물 등의 재산이며, 외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향이나 종친 회의가 있을 때 모이는 인원을 보면, 아직 제비울은 안산김씨 세거지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향조 촌로 선생 이야기

제비울마을에 처음 자리를 잡은 안산김씨 입향조는 김성대 선생(1622~1695)이다. 선생은 장단군 출신으로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노쇠한 부모님을 모시고 백운산 자락¹ 깊숙이 숨어서 살았다 한다. 그렇다면 제비울 안산김씨의 역사는 365년의 성상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선생은 효행이 지극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자 약재와 음식을 손수 마련하였을뿐더러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판단하여 약을 쓰며 간호하였으며, 그럼에도 병환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아버지의 입에 넣어 드렸다고 한다.

김성대 선생은 촌로(村老), 곧 ‘시골 노인’이라는 호가 있는데, 이러한 호가 붙은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한다. 선생은 일찍이 과거 시험에 뜻을 두어 초시(初試)에는 여러 차례 합격하였지만 복시(覆試)에는 번번이 낙방하였다. 그러다 1693년(숙종 19) 72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응시했을 때, 숙종이 멀리서 바라보다

가 “저기 늙은이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물으니 주위에서 “진사시를 보러 온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숙종이 즉석에서 ‘촌로’라는 호를 하사하고 “늙은이가 먼 곳에서 왔으니 참봉이라도 하나 주어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개성에 있는 제릉의 참봉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몸이 쇠약하여 부임을 못하다가 결국 2년 뒤인 1695년(숙종 21) 노환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

안산김씨의 사당에서 포천의 사당이 된 동음사

촌로 선생은 학식과 인품에 비해서 벼슬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던 분이였지만, 형제와 친지들과의 우애, 이웃에게 베푼 인정은 그의 사후에도 빛을 발했다. 특히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수항과 교분이 두터워서 그가 사사된 후 부인과 아들들을 보살피 준 일은 유명하다. 이로 인하여 촌로 선생의 묘비는 김수항의 장남인 김창집이 쓰게 되었고 위에서 소개한 일화들을 이 묘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동음사(洞陰祠) 또한 그가 이웃에 베푼 인정에 기인한 것일 터이다. 동음사는 제비울에 있는 사당으로 1831년(순조 31) 3월 지역 유림들이 이 고장에서 학덕이 높았던 그를 추모하기 위해 사당을 지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1833년(순조 33) 동음사를 건립하여 촌로 선생과 동생인 김성발과 김성옥을 배향하게 되었다. 그러니 동음사는 안산김씨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으로 출발한 셈이지만, 6.25 동란 중 전소되었다가 1962년에 복원될 때 포천 화산면 출신의 중암 김평묵 선생



동음사

1 당시에는 백운산, 국망봉, 견치봉, 민동산으로 이어지는 이동면 일대의 한북정맥 자락을 통틀어 백운산이라 지칭하였던 듯하다.

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에 동음사는 안산김씨만이 아닌 포천의 유림들이 동참하여 제향하는 포천의 사당이 되었고, 1986년 향토유적 제34호로 지정되었다.



촌로 선생의 묘와 묘비

38선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제비울마을

광복이 되자 포천 북부지역 중 대부분은 38선 이북이 되어 북한 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이동면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연곡리 제비울마을도 38선이 통과하는 바람에 마을이 반토막이 나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다. 현재 연곡4리 버스정류장 옆에 위치한 대추나무가 38선이 지나갔던 자리이다. 이 대추나무의 수령은 200년도 더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 나무에 38선을 알리는 풋말이 붙어 있었다고 토박이 어른들은 기억하고 있다.



38선 풋말이 붙어 있었던 제비울의 대추나무

38선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한동안은 철책도 없는 가상의 분단선이라서 마을 주민 간의 이동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마을 내에서는 주민들이 별 지장 없이 왕래를 할 수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몰래 영평천을 건너 남쪽 지역에 있던 일동장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이듬해인 1946년에는 분단선이 조정되며 제비울마을의 인가들은 모두 북한 치하로 편입되었고, 경비가 강화되어 남측과 북측이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도둔산에는 남측 국방경비대, 주라위산에는 북측 38경비대의 초소가 생겼고, 근무를 서는 양측 병사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서로 총질도 해대는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이때는 북측 지역의 주민들이 몰래 남쪽에 갔다가 들키거나 주민신고가 들어가면 이동면 소재지인 장암리에 위치한 영창에 가두었는데, 식사 제공은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매번 식사를 가져다 주어야 했다.

6.25동란 직전 북한에서는 38선 부근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제비울마을을 비롯한 연곡리 일대의 주민들은 군용 트럭이 와서 닥치는 대로 태워 철원으로 임시 이송되었는데, 추후 아오지탄광에 보낸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였다. 6.25가 발발했을 때 철원에 남아 있었던 주민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 북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이후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수복 후 군민합동으로 재건된 제비울마을

휴전 후 수복된 마을에는 1954년 11월 행정권이 이양되면서 주민들이 귀향하기 시작하였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원래 마을이 있었던 곳은 이미 군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귀향민들은



왼쪽 산이 남측 국방경비대가 있었던 도둔산, 오른쪽 산이 북측 38경비대가 있었던 주라위산이다.

연곡리 원평마을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임시로 생활을 하다가 군인들이 지어준 주택 15채에 1채 당 두 가구씩 나눠 살았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30채로 늘어났지만 속속들이 들어오는 귀향민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뒤늦은 귀향민을 위해 주민들이 울력으로 집을 지었고 1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되찾은 고향마을은 군인과 주민들이 합동하여 재건되기 시작했다. 재건을 위한 노력은 마을의 외양뿐만 아니라 전통 민속도 포함되었다. 마을마다 산제사를 지냈고, 두레의 후신인 농산계도 조직되어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풍물도 치고 대동놀이도 행하였다.

제비울마을의 민병현 어른(1936년생)은 귀향 후 반장을 8년, 새마을 지도자를 3년 맡으며 마을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이다. 특히 1970년대 퇴비증산이 한창이었을 때는 만리장성퇴비라고 하여 사방 10m에 달하는 퇴비생산장을 만들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00만 원의 하사금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보리농사를 지어 도지사에게 다수확상을 받았으며, 22식구가 모여 사는 대가족 집안에서 조부모와 부모를 잘 섬겨 효행상을 3번이나 받은 모범 주민이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제비울마을은 북한 치하와 6.25동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비울마을의 현황과 미래

제비울마을은 농촌마을이 분명하지만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은 아니다. 수복 당시 귀향해서 지었던 집들은 물론 새마을운동 때 증개축되었던 집들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번듯한 양옥집이 들어서 있어서 전원주택지를 방불케 한다. 농경지도 기계농사에 적합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마을의 모습을 갖게 된 데는 연곡리 젊은 영농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연곡리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활발한 지역이다. 한때는 소규모라 해도 27개의 낙농가가 있어 ‘연곡 낙우회’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다. 또한 1987년에는 연곡리의 젊은이 5명이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이양기, 트랙터 등을 들여와서 기계화 농업을 시작하였고, 그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부상으로 농민차 세레스 한 대와 현금 300만 원을



영농법인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들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연곡리 낙농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 조직되어 2003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법인을 결성한 후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연곡리가 현재 잘 나가는 농촌마을이라고 해도, 이러한 상황에 언제나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동안 누려왔던 군부대지역의 특수도 위수지역의 변경으로 일동면 기산리에 빼앗겼고, 마을을 관통하던 47번국도가 고속도로의 건설로 마을을 우회하게 되면서 상권이 거의 고사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곡리에 샘물공장이 2개 들어오고 골프장이 생기는 등 변화가 일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을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니 연곡리는 당분간 선진농업 경영으로 마을의 살림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데, 한때 마을의 젊은 피였던 영농법인 회원들도 이제 60대가 훌쩍 넘어섰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마을을 이끌 영농후계자의 세대교체를 어떻게 이를 지가 연곡리의 지속적 발전을 기약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글 김준기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원에서 구비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 근무하며 마을조사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민속현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다.

PEOPLE & LIFE

인물탐방

공양주 보살 - 불국행 김숙자, 스님들은 나만 보면 그저 좋아라 했어요.

토박이 구술

양재문씨에게 듣는 고양시 농업 이야기

정동만 용인 독성2리 이장, 마을주민 통째로 새로운 등지로 집단이주 추진

외길인생

‘아이 제일주의’로 완성한 배혜경 교장의 교직 생활 40년

공양주 보살 - 불국행 김숙자, 스님들은 나만 보면 그저 좋아라 했어요.

김예옥



공양주 보살, 불국행 김숙자.

수행의 끝자락

“절간의 인심은 공양주 보살한테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교’는 밥해주는 공덕을 높이 친다. 일반인들은 절에 가서 공양(식사)을 할 수 있느냐로 그 절의 인심을 메기기도 하고, “공양 하고 가세요.”라는 스님의 말에 절집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한다.

절간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이가 공양주 보살(여성을 이르는 절집 용어)이다. 절집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양주 보살의 힘을 보여주는 용어가 ‘부방장’, ‘부조실’이라는 별칭이다. 스님들은 공양주 보살의 횡포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 주지 이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수행의 일환으로 공양주를 자처하는 보살들이 더러 있다. 이들은 배운 것도 많고 자기 철학과 신심도 있어 공부하는 스님을 뒷바라지하겠다는 원(願)을 세운다.

수행의 끝자락으로 ‘공양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성남과 인연이 깊은 불국행 김숙자(76) 보살을 만난 건 3년 전 청양의 장곡사에서였다. 다리가 아파 몸놀림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이 노보살이 내놓은 가지무침, 깻잎장아찌, 콩자반, 무생채, 열무김치, 콩나물국 등은 젓가락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있었다. 필자가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불교의 이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공양주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한테 밥해 먹이는 사람이니 그 공덕이 대단하다. 양념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충 해줘도 오전 10시에 예불이 시작되어 오후 1시에나 끝나니까 다 배고프잖나. 그러니 모두 맛있게 먹는 거다. 이런 때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건네는 말이 너무 고맙다. 배 고플 때 밥을 주는 사람은 제일 큰 복 짓는 거다.”라며 말문을 연 그는 아들을 위해 걱정하고 공양

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는 형님이 있는데 3년간 공양주 생활을 했다. 그 덕인지 그 집 아들이 잘되어 지금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 그걸 본받아 나도 마흔여덟 먹은 아들이 결혼도 하고 출세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 공양주를 자청했다.”

처음 공양주 생활을 할 때는 창피한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 제천의 정방사로 갔다. “충주 호가 내려다보이는 풍광이 너무 좋은 절이었고 주지 스님도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학승이었다. 그런데 계단이 어찌나 가파른지 위험해서 3개월만에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인연으로 강화도 용화사 선원에 가게 되었다. “용화사 원감 스님이 선원에 공양주가 셋이 있는데 서로들 싸워서 ‘보살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었다. 그 원감 스님이 죽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내가 정도(正道)를 지키니까 싸우지 않더라. 나는 스님이 번덕을 부리는 것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곳에서 내가 반찬을 잘하니까 다른 공양주들과는 달리 2층에 방을 내주고 여러 편의를 봐줬다. 스님들이 오늘은 뭐가 뭐가 맛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절에 있는 도반 스님들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고 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복이 없는지 8개월 지났을 때 스님들끼리 싸워 원감 스님의 고막이 터졌다. 고막이 터진 스님은 법주사 문중이고 때린 스님은 용화사 문중이었다. 그러자 송담 큰스님이

그렇게 싸우는 건 나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당장 선원의 문을 닫으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평생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여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다른 절의 공양간을 경험하고는 용화사 선방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절감했다고 한다.

만들면 다 음식이 된다

그는 선방이야말로 진짜 사찰음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일단 마늘, 파, 부추 같은 오신채를 안 쓴다. 육수는 다시마와 양파 무를 넣어 달여서 만들고 국도 그 국물로 끓이며 장아찌를 담글 때조차 그 육수를 사용한다. “큰절은 보통 효소를 많이 담근다. 채공(菜供, 반찬 담당)에 따라 음식이 다른데 A급의 채공이 있는가 하면 말만 채공인 경우도 많다. 큰 선방 같은 데는 A급 채공을 뽑는데 그런 채공은 만들면 다 음식이 되고 맘만 먹으면 파다닥해서 바로 내놓을 수 있다. 머릿속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 재료만 보면 그대로 반찬이 되는 거다. 처음에는 레시피가 있으나 몸에 익어지면 그게 다 필요 없어진다. 음식에는 공식이 없다. 내가 덧붙이면 덧붙이고 빼면 뺄 수 있다. 나는 절 음식을 무한정 할 수 있다.”

그는 음식으로 칭찬을 많이 받은 절로 용화사와 오등선원을 꼽았다. “용화사에서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반찬을 앞에 두고 공



공양간 앞에 있는 절구와 절곳대. 순천 송광사.



공양간. 청양 장곡사.

게적으로 ‘내가 오늘 같은 가지무침은 처음 먹어봤다’고 말했다. 그곳 스님들은 나만 보면 그저 좋아라 했다. 오등선원에서는 ‘보살님은 우리 선원 체질’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내가 하는 반찬이 최고라고 했다.”

그는 용화사에서 아침마다 생야채 소스를 만들었다. “파프리카, 양파, 오이, 살짝 데친 토마토, 샐러드까지 매일 바꾸어서 내놓으면 스님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냥 내놓아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소스를 가미하면 안 먹었다. 아침에는 과일을 내놓는다. 큰 선방은 고급 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더구나 40명의 스님이 있다면 60명이 먹을 만큼 넉넉하게 재료가 배달된다. 그 과일을 봉지에 넣어놓으면 스님들이 하나씩 들고 간다.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3개월 있으면 모습이 달라진다. 그냥 세워놓으면 몸 자세가 다르다. 선방 스님만의 모습이 있고 공부한 스님들은 풍기는 게 있다. 얼굴도 깨끗하고 피부색도 틀리다. 진짜 참선을 해야 한다.”

“나는 선방 공양주다”

그는 일반 사찰은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스님이 절에 혼자 있으면 수행에 게으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중생활(공동체)을 해야 한다. 보통 절에서는 공부는 시키지 않고 기도를 올리라고 한다. 초파일, 백중, 동지 기도로 절이 먹고 사는 거다. 또 신도들이 계속 와야 절이 유지되니까 초하루, 보름, 지장제(18일), 관음제(24일)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 무슨 이유든지 단다. 매월 초3일 기도도 하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만 초3일 기도를 했다.

절에서 영가위패 모시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재사일 경우 30~50만 원, 명절 차례는 30만 원을 받는다. 그때 제사 준비도 모두 공양주가 한다. 그런 것이 많은 절은 200~300만 원이 들어왔을 경우 스님한테는 10만 원, 공양주한테 3만 원씩을 준다. 또 1년에 3~4번씩 보너스가 있는데 각각 30만 원을 주고, 백중 때 30만 원, 초파일 때 50만 원을 준다. 초파일, 백중, 설·추석 명절에도 보너스가 있는데 금액은 절마다 다 다르다. 봉급을 보시금이라고 하는데 공양주 보시금은 보통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다. 월급이 약하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공양주를 직원으로 해놓지 않고 봉사자로 해놓는 편법을 쓴다. 제사가 많은 절은 공양주가 180~200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곳은 힘드니까 젊은 사람이 가야 한다.

그런데 참선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계룡산의 오등선원이었다. “공양주도

선방에 있었으면 계속 선방에 있어야 한다. 나는 선방 공양주다. 그건 스님들도 인정한다. 오등선원은 원주 스님의 주선으로 공부 겸해서 간 것인데 밥 먹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공양주 2명 외에 주일마다 봉사자가 2~3명씩 들어왔는데 일이 참 힘들었다. 밥솔이 너무 큰데 그걸 무리하게 드느라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 그곳에서 3개월 일하고 다음으로 간 곳은 성남의 천태종 사찰 대광사였다. “내가 대광사에 가서 히트를 쳤다. 서울에 관문사라는 천태종 절이 먼저 생겼는데 음식이 형편없으니까 성남 신도들이 대광사로 오기 시작했다. 일요일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신도들의 음식을 다 만들어내야 해서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나올 때 공양주 보살이 ‘콩나물 김치국 만드는 법 하나만 가르쳐달라’며 자기가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하더라.”

큰절은 힘에 부쳐 조그만 절에 간다고 간 것이 장곡사였다. “장곡사에서는 공양간을 새로 지어 이삿짐을 옮기느라 힘들었다. 내가 쉬는 방이 바로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서 도무지 쉴 수가 없는 거다. 참고 살아야지 하는 맘도 있었지만 너무 악조건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나는 그 절에서 음식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사무장이 내가 원하는 장을 봐주지 않았다. 재료 다섯 가지를 사오라고 써주면 돈을 아낀다면서 꼭 한 가지를 빼



3층석탑에 새겨진 공양상. 순천 금둔사.

먹었다. 그 절은 그런 게 있었다.

그 절은 주지도 이상했다. 자기 입에 맞는 것만 생각하지 대중은 신경도 안 썼다. 신도들은 전에는 먹을 게 없었다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는데 주지 스님은 음식을 타박했다. 스님은 음식이 자신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도 바깥 음식 같으면서 흠을 잡았다. 그 스님은 십대 때 절에 들어와서 먹던 그런 음식을 기억하고 있는 거다. 과거 나뭇짐 지고, 하루 종일 일한 후 먹던 밥이 얼마나 맛있었겠나? 지금은 좋은 것은 다 먹고 다니니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다. 절밥을 먹고 배가 나온 스님은 다 문제가 있는 거다. 바깥에서 좋은 것만 먹고 다니는 거라고 보면 된다.”

한국불교의 현주소

그는 공양주 노릇을 한다는 것은 수행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돈 벌려고 공양주 보살을 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다. 만약 밥만 해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이게 수십 년 수행의 마지막 공부다. 그런데 보통 절에서는 저 보살은 절에 좀 다녔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본다. 그럴 때 견뎌내는 게 수행이다. 단 1년이나 5~6개월 하는 것도 그만큼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는 3년간 공양주 보살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1년 반을 허송했다고 말했다. “내 맘과 같지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았다. 어떻게 절에서 그럴 수가 있나? 갑질하는 절이 많고 또 주지들은 돈을 너무 밝힌다. 큰절은 어른 스님들이 계셔서 안 그러는데 일반 사찰은 주지가 신도와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유대를 맺는다.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세속물이 다 들었다. 존경받을 만한 스님은 밖에 안 나온다. 절 뒷방 노릇한다. 물이 안 들어 있는 스님들은 안 나온다. TV를 보면 원로스님이라고 나오는데 법문도 못하면서 보살들한테 돈을 뜯는 스님이 원로임네 하는 거다.”

그가 예로 든 사례는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님들이 위에 신도시에 3천 평의 부지를 200억 원을 주고 사서는 성남의 B.O.S 포교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그런데 거기는 돈 버는 스님들만 있다. 6~7명의 스님들이 한 달간 아침공양만 하면서 참선을 한다고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갔다. 그러나 밤에 기어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다 쇼다. 어떻게 한 달을 한 끼 먹고 있겠나? 내가 그곳에 밝은 스님한테 들었다. 그 스님이 ‘형님, 절에 가면 돈 10원도 내놓지 마. 그것들 돈을 갖다 다 그 지랄을 하고, 계집질하고, 애는 둘셋씩

치질러 놓고 또 돈을 긁으려고 해.’라고 하더라.

한국불교가 망한 것이다. 내 살림으로 말하면 망한 것이다. 남의 살림을 망친 것이다.

또 어떤 절은 주지와 사무장이 붙어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 이상한 스님들이 많다. 나를 따르는 어떤 스님이 나한테 ‘엄마, 나는 진짜 금쪽처럼 살다 갈 거야. 세상에 요즘 중들이 중이 아니야. 주지하고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도 싫어. 여자와 똥구는 것을 생각하면 얼굴도 보기 싫고 구역질이 나.’하더라. 그런 절이 조계종 절이니까 문제다. 주지는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사무장도 저녁이면 나간다. 절에서 스님들이 공공연하게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화려한 시절을 뒤로 하고

그는 자신이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는 반대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공양주 노릇하는 것도 모른다. 옛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지금 만나도 여전히 나를 사장님 대하듯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한다.”

그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어난 1971년, 경찰인 남편을 따라 성남 모란시장 인근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1992년부터 98년까지는 역시 성남에서 한국관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해서 돈을 긁었다(?). 기사가 큰 화환을 문앞에 놔두면 ‘아, 오늘 절에 가는 날이구나’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때 돈 벌 때는 해가 지는 것도 싫었다. 철없는 욕심이었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내 손바닥에 ‘지혜’라는 글자를 써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 줄 몰랐다.”

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빚보증을 서주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끝내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IMF 때 식당이 안 되면서 하루아침에 망한 거다.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다 거저 먹으려고 하더라. 그 많던 빚을 다 갚고 7~8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다. 은행 같은 데는 내가 잘 될 때는 매우 잘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안면을 싹 바꾼다. 나는 그들을 ‘은행 기생’이라고 부른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파산신고 하고 회복이 되는데 수년이 걸렸다. 2~3년 전부터 내가 비로소 은행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것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안착되더라. 과거엔 진짜 많은 돈을 만져봤다. 가방 안에 1백만 원 이상은 늘 들어있었고, 없으면 또 불애했다. 그 많던 돈을 남동생이 노름하면서 문서를 가져가 다 잡혀먹었다.

내가 전생에 빚을 많이 졌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냥 산다.

아는 스님이 전생의 빛을 갠 것이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한다. 내가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굉장히 괜찮은 여자다.”

너희가 게맛을 아느냐?

지금 그는 절에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앞으로 원이 있다면, 물이 흐르고 산이 있는 양지바른 곳에 단층짜리 집을 소박하게 지어 도반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노스님들도 쉴 데가 필요하면 와서 자유롭게 쉬다 가시고 하는. 자식들도 가끔 와서 보고, 그리고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간다고 해도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내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이 들어 이제야 지혜가 생긴다. 지혜라는 게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다.

늙어서 즐겁게 사는 것만 추구하면 자기 아픈 것은 못 견뎌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견딜 힘이 생겼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살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살 수가 있다.

누구든 공부할 때의 희열을 맛보지 않으면 그 참맛을 모른다. 내가 느끼는 그 맛을 모른다. 그때는 돈이 필요 없다. 어느 날 춤이 절로 나왔다.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희들이 이 맛을 아냐?’하면서 ‘감사합니다’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맛을 알면 참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법화경』 사경(寫經)을 몇 번 할 때였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 쉬어야겠다고 하는데 밤에 별이 위에 떠 있는데 막 반짝반짝하길래 내 눈이 잘못됐나 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랬다. 그때 하루에 5시간씩 사경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아,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더 열심히 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화경』을 27~28번 쓸 때 머리에서 사리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했다. 또 멀쩡한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툭 떨어졌다.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보니 넘실넘실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다. 너희들이 게 맛을 아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옛날 수표를



절밥. 예산 수덕사.

쓸 때 괴로웠던 때의 생각이 스치면서 그 순간 제일 행복했다. 수표 못 막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져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그 때가 안 잊힌다. 그런 순간을 딱 한 번 느꼈다.”

글 김예옥

신문사에서 10년간 기자생활을 하고 이후 출판기획·편집자를 거쳐 글을읽다출판사 및 글을읽다 고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재문씨에게 듣는 고양시 농업 이야기

이옥석



장산두레패 회장으로 활동하는 양재문씨

제보자 : 양재문(1942년)

주 소 : 양재문(80세)씨는 1942년 고양군 송포면 구산2리 604번지, 노루뫼 마을에서 태어나 1990년 한강제방 붕괴로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자 멀리있는 인근 송산로 221-9에 새로 집을 지어 이주했다.

양재문(80세)씨는 1942년 일산서구 구산로 640번지, 노루뫼 마을에서 태어나 1990년 한강제방 붕괴로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자 멀리있는 구산로 1135번지에 새로 집을 지어 이주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80평생을 노루뫼(장산)마을에서 살고 있는 양재문씨는 마을가까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옛날처럼 농사짓고, 10여 년 전 복원한 두레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노루뫼라는 지명이 생긴 장산

노루뫼 마을에는 장산이라는 야트막한 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산 주위로는 지대가 낮아 홍수가 나면 농경지와 주택의 침수가 잦았던 곳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옛날 충북 제천이나 영월에서부터 떠내려 오는 재목을 건져다가 집을 짓기도 했고, 높지 않은 장산으로 가축을 데리고 피신하기도 했다. 1990년 홍수가 나서 이 일대가 물에 잠겼을 때도 주민들은 장산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장산 마을은 윗끝, 아랫끝, 뒷떨, 새마을 등의 부락이 있다. 윗끝은 산머리부분이고 아래끝은 송포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뒷떨은 장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뒷산인 장산은 비록 넓이나 높이는 6,000여 평이고 60~70m 정도로 보인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산이 영험하여 몇 년 전만해도 이 산은 돌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 건드리는 일을 꺼려했다. 산을 달래려고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당굿을 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어 왔다.

남원양씨 집성촌 노루뿔 마을

노루뿔 마을은 남원양씨가 정착한지 11대 약 300여 년이 넘는 남원양씨 집성촌이다. 300여 년 전, 김포군 검단면에 양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이 곳에 살던 총각이 장산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빛에 이끌려 한강을 헤엄쳐 건너오게 되었다고 한다. 한강을 건너오느라 지치고 갈증을 느껴 우물가에 갔다가 어떤 처녀를 만났다. 그녀에게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셨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처녀와 결혼하고 이 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 분의 묘가 선산 연천군 백학면 백양리에 있다. 현재는 장산 마을에는 양씨들이 20여 호가 살고 있고, 더 많은 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



장산두레매 활동을 먼저 하셨던 양재문씨의 부친 양다성씨

이 마을 뒤로 흐르는 장월평천은 고양수리시설이 생기기 전에 장월에서 구불구불 휘돌아 장산마을을 돌았고, 그 물을 타고 이곳에 온 큰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하여 쉬어갔던 배터(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넓이가 약 50m, 넓은 곳은 100m 정도로 셋강이라 부를 만큼 넓었다고 한다. 그 배터가 구 장산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였다고 한다. 장산 마을의 부자였던 양명호씨 댁에도 큰 배가 여러 척 있었다고 한다. 이 분은 옛날에 큰 부자로 토지가 많아 서울 무악재를 넘어서면 제일 땅이 많은 부자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노루뿔 마을의 지명

논농사를 주로 하는 노루뿔 마을은 장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한강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유입되어 생계가 막연해지는 때도 많았다. 그러한 때에는 콩, 수수, 피, 조 등을 재배하여 근근히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 곳에는 재미있는 지명이 많이 있다. 무뜰, 방죽, 땀논, 방아다리, 금레바닥, 다랑깨, 수미논, 움턱깨, 내평, 농장방죽, 동깨, 호대결, 오방죽, 독안방죽, 피방죽, 동이논, 아이방죽, 돌고지방죽, 새동머리방죽, 쌀독이방죽 등이다.

‘동이논’이라는 지명에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 살기가 몹시 어려웠던 양부자님의 집안 조카가 양부자를 찾아가 집안 사정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청하니 제일 좋은 땅 4,000평(20두락)을 주면서 열심히 살라고 했다. 땅을 받은 조카는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 후 피죽 한 동이를 갖다드렸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동이논’이다.

‘무뜰’은 찰진 흙이 있어 물이 잘 마르지 않으나 비가 많이 오는 가을에는 수확에 애를 먹는다는 논이다. ‘땀논’은 한강제방을 막고 농지 개간할 때 ‘여기서부터 내가 개간 한다’하여 흙을 파서 경계를 했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을축년 대홍수 이후 한강 일대에 개간사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명이다.

장산에서 법곶동 울리 사이 원형다리를 ‘방이다리’라고 불렀고, 지형이 낮아 벼농사에 물 대기가 편하여 ‘금레바닥’이라는 이름도 생겼다. 수해 때는 물이 빠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장산에서 가좌2리 중간지점에 있는 논으로 별안간 높은 지역이라고 ‘다락논’이라고 불렀는데 동네사람들은 주로 ‘다랑깨’라고 불렀다. 다락논 밑에 있는 논에는 물이 잘 스며나와 물 걱정이 적었다 하여 붙인 ‘수미논’도 있고, 움푹 패인 개울을 개간하는데 꽤 힘들었다고 하여 ‘움턱깨’, 장산에서 개울(냇물)따라 구산1리 되레지 지역으로 가다가 동막이 하던 곳을 ‘동깨’라고 불렀다,

피를 많이 심었다 하여 지은 ‘피방죽’, 새로 동막이 한 지역이라고 하여 ‘새동머리방죽’, 장월 앞 큰 독으로 농사가 잘되어 쌀독이 꽉 찼다고 하여 ‘쌀독이방죽’, 어린 아이들의 힘까지 보태서 개간했다고 해서 붙여진 ‘아이방죽’, 파주시 교하면



제31회 고양행주문화제 '민속놀이 한마당'에 참여한 장산두레매

서패리 사람들이 개간했다는 ‘들고지방죽’, 장산에서 법곶동 쪽으로 유일하게 폭 3m 정도의 도로가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이 곳에 ‘농장방죽’이라고 이름 붙인 곳도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지명이다.

농사짓는 이야기 - 못자리 만들기

못자리는 일 년 농사의 절반이라고도 할 만큼 한 해 농사는 못자리에서 시작한다. 못자리 모가 제대로 되면 그 해 농사가 수월하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못자리 하기도 힘들었다.

노루뿔에서는 벼씨 불리는 방법이 특이했다. 우선 깨끗한 벼씨를 말(두)에 되어서 가마니에 담고 입구를 막아 가까운 냇가로 가져갔다. 벼씨가 들어있는 가마니에 줄을 매서 가마니는 물속에 담그고 줄은 독에 박아둔 말뚝에 묶어 뒀다.

벼씨가 부를 동안 소를 이용해서 못자리할 논을 평탄하게 만들고, 새끼줄로 못자리판 넓이만큼 띄워놓는다. 10여 일 후 벼종자가 든 가마니를 개울에서 건져와서 하루나 이틀을 두면 희끗희끗 싹이 트기 시작했다.

못자리 할 논이 물이 10~15cm 정도 되면 아침 일찍 벼씨를 못자리에 뿌린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소로 논을 갈아 썰리고 삽으로 평탄 작업을 한 후 물을 약 15cm 정도 잡았다. 그 후 1m 20cm 정도의 간격으로 새끼줄을 길게 띄우고 벼씨를 뿌렸다. 옛날에 음력 3월 10일~20일 즈음은 참으로 추웠다.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5mm 정도 얼어 있을 때가 많았다. 아침 일찍 희끗희끗 싹이 튼 벼씨를 거름통에 담아 맨발로 살얼음이 언 못자리 논에 들어갔다.

살얼음이 있는 논에 맨 발로 들어가서 벼씨를 뿌려야 했다. 장화도 없던 시절이어서 그 고통은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알 길이 없다. 어찌나 물이 차가웠는지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발이 마치 오리발처럼 붉어졌다. 추위에 발을 동동구르며 나와서 옆에 곡초(짚단)에 모닥불을 피워 잠시 발을 녹이다가 다시 벼씨를 뿌리러 들어가야 했다.

햇볕 따스하고 살얼음이 녹는 낮에 이 작업을 하면 그 고통이 줄겠지만 이른 아침에 추위에 떨면서 이 일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10시 이후에는 봄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벼씨가 날려서 한쪽에 몰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전 10시 이전에 벼씨를 뿌려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함께 일을 한 이웃과 어울려 점심을 먹었다.

손빌리기, 모찌기

못자리가 끝나면 소를 몰고 네 집, 내 집 가리지 않고 논갈이를 했다. 소가 없는 집이 남의 집 소를 빌리는 일을 ‘손빌린다’고 했다. 이렇게 소를 하루 빌려 쓰면, 그 대신 일을 3일 해주는 품앗이가 있었다.

모내기 때가 되면 품앗이로 서로서로의 모를 심는다. ‘동그람패’(병어리패라 하여 협심하는 모임)라 하며 10~20명, 많으면 30~40명이 돌려가면서 모를 낸다. 오전 10시~11시까지는 못자리에서 모를 뽑아서 묶었다. 이를 ‘모찢다’고 한다. 이렇게 모를 묶어놓으면 모쟁이가 지게나 소를 이용하여 모내기 할 논으로 옮긴다. 소 등에 ‘질마’(소 등에 얹는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모를 담는 그릇인 ‘옹구’를 올려서 그 안에 묶은 모를 담아 써래질해 놓은 모내기 할 논으로 옮기는 것이다.

모를 하루 심을 만큼 찢면 모내기가 시작된다. 아주 오래 전에는 줄을 맞추지 않고 모를 심었다. 그것을 ‘막모’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줄을 맞춰서 모를 심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것을 ‘줄모’라고 하는데, 줄모는 논 양쪽에서 줄을 잡는데 그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만들어 놓았다. 이 눈금 위치에 모를 심었다. 2명이 양쪽에서 못줄을 잡고, 줄 앞으로 길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꾼들이 서서 호각소리에 맞춰 뒤로 물러서가며 모를 심었다.

식사 때가 되면 정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 주부 5~6명이 한 줄로 서서 광우리를 이고 나오는 정다운 행렬이 보인다. 밥, 국, 찬, 물, 술을 광우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온다. 식사 때에는 이웃 논에서 일하고 있는 일손은 물론이고 길가는 주민도 함께 한다. 이것이 이 고장 인심이었다. 논에서 일하는 이들의 식사가 끝나고 여인네들이 광우리를 이고 집에 오면 집에도 모 밥을 먹는다. 점심을 준비했던 아낙네들과 마을 노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김매기와 두레패

마을의 모내기가 끝나면 곧바로 김매기 철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을마다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두레패를 결성한다. 김을 내는 논에서는 농기가 휘날리고 북소리와 함께 농요를 부르는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힘든 작업이라 술이 필요하다. 한 사발 마신 막걸리 기운에 호미를 들고 춤을 추기도 했다. 40~50명의 일손이 쭉 늘어서서 네 논 내 논 없이 넘어가며 김매기 작업을 했다.



김매기 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장산두레패

김매기는 호미로 풀이 난 논흙을 파서 엷는 작업이라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6~7회 정도 먹었다. 아침밥은 6시~6시 30분경에 먹는다. 8시~9시에 아침 찹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2~3시 사이에 중식참을 먹고,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까딱참이라고 해서 또 먹는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은 후 농악 놀이를 했다.

두레패 인원은 마을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산마을에서는 대략 30~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때도 품앗이로서 네 논, 내 논 구분없이 함께 작업을 했다. 늦게까지 김매기를 하다가 다 끝이 나면 두레를 치며 마을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온 동네 사람이 모여 두레소리에 춤을 추며 놀았다.

추수의 계절

추수철 벼 베기를 할 때가 되면 우선 논에 물을 댄다. 품앗이 인원 15~20명으로 구성된 병어리패가 다시 결성되어 벼 좋은 날 벼를 베기 시작한다. 논에 들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죽 늘어선 채 낫을 들고 벼를 베어 논 바닥에 묶기 좋게 깔아놓는다.

논 바닥에 깔아놓은 벼를 며칠 동안 자연 건조시킨다. 바닥에 벼를 뒤집어줘야 더 잘 건조된다. 벼 뒤집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날씨가 좋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비라도 오게 되면 큰 낭패였다. 적당히 마르면 벼단을 묶어 마차나 지게로 실어 집 마당으로 운반한다. 둥그렇게 낫가리를 차곡차곡 높게 쌓고 탈곡기로 타작을 한다. 집 마당에 탈곡기를 놓고 낱알이 떨어질 자리에는 넓게 포막을 깔아놓는다.

절구를 닦아 놓고 벼단을 쳐서 벼 이삭 70% 정도를 털어

내고 나서 밭로 밟아 탈곡하는 탈곡기에 털어낸다. 바닥에 쌓인 낱알을 통에 담고 한 사람이 바람개비를 돌린다. 통에 든 낱알을 어깨높이 만큼 들어서 바람이 불어대는 바람개비 앞에서 통을 흔들어 바닥에 떨어트리면 검불은 바람에 날려 멀리 떨어지고, 낱알은 바람개비 바로 아래에 떨어진다. 이 낱알을 가마나 부대에 담아서 창고에 보관한다. 따로 창고가 없는 사람은 마을 정미소에 저장했다가 쌀이 필요할 때 정미한다.

타작하는 날,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서 일하는 일꾼에게 대접한다. 일 년 농사 중에서 가장 풍성한 일밥이다. 이때도 타작밥이라 하여 이웃을 불러 함께 밥을 먹었다.

거름 만들기

늦은 봄부터 논두렁이나 냇가 독의 잡초를 베어 우마차로 실어다가 퇴비가리라는 곳에 쌓아둔다. 여기에 외양간에 깔았던 짚을 섞는다. 또한 인분과 소, 돼지의 두엄, 개똥 등도 보이는 대로 퇴비가리에 던져놓는다. 여름부터 한 겨울을 지나 초봄까지 헐던 퇴비로 비료를 대신했다. 비료는 정부에서 면사무소에서 배급제로 질소, 인산, 가리를 배급했다. 당시는 비료 생산이 적어서 저울에 달아서 분배해야 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방앗간 사용료 지불 방법

이 곳에서도 쌀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쌀, 보리쌀, 밀가루, 메밀가루 등으로 농사짓는 곡식이 다양해졌다. 몇 몇 부지런한 사람들은 보리쌀을 이모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미소(방앗간) 사용료(도정료)도 변화도 컸다. 1960년대에 쌀 40가마 찼으면 1가마를 도정료로 냈다가 이후 35가마, 30가마, 20가마, 16가마로 바뀌다가 이제는 13가마에 1가마를 도정료로 내고 있다.

씨레부심

씨레는 1m 50 정도 되는 긴 나무 막대기에 약 30cm 간격으로 나무 받을 8개 정도 달아서 논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소 뒤에 우마차 모양으로 이 씨레를 달고 사람이 뒤에서 씨레를 붙잡는다. 앞에서 소가 끌고 가고 뒤에서 사람이 씨레를 붙들고 지나가면 논바닥 흙덩어리가 깨지면서 고르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트랙터가 이 일을 순식간에 하지만 예전에는 소에 씨레를 달고 흙을 고르게 만드는 평탄작업을 했다.

‘씨레부심’이라는 말은 70세 이상의 구세대만이 알고 있는

옛 이야기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를 심기 전에 씨레로 논을 고르게 만들고, 모심기를 다 끝낸 후에 씨레를 잘 씻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했다. 이렇게 씨레를 씻어 보관하는 일을 ‘씨레부심’이라고 했다.

일 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인 모내기가 끝났다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고 올해 농사도 풍년을 기대하며 인절미(찹쌀떡)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며 막걸리로 정을 함께 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호미걸이

고양시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된 ‘송포호미걸이’가 있다. 옛날에 필력이 있는 농기를 세워두고 두레로 협동하여 논감을 메던 시절에는 논호미 밭호미가 구분되었다. 논 호미로 밭은 뭘 수 있으나 밭호미로는 논 감을 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밭호미는 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밭호미는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논호미는 밭호미보다 훨씬 큰 타원형이다. 호미 가운데가 약간 볼록해서 물에 젖어 있는 논흙이 잘 떨어지게 되어 있다.

호미걸이는 모내기 후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를 끝내고 나서 호미걸이 하는 날을 잡는다.

이날 노동에 대한 쉼을 하고, 한 해 농사의 첫 작업을 잘 끝

냈다는 의미로 떡이나 빈대떡, 술 등을 준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한 바탕 잔치를 한 후에 호미를 잘 씻어 기름을 발라서 기둥이나 높은 곳에 걸어서 내년을 기약한다.

동막이(물막이)

송포면 일대에서 연례행사로 수리시설을 만들던 체험이야기이다. 동막이란 큰 냇가를 막아서 조수물을 가두는 것이다. 들어왔던 조수물이 동에 막혀 못나가고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을 가두어 둔다고 하여 일명 물막이라고도 한다.

이 동막이가 생긴 것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이 지역에 한강제방이 생기고 나서 부터라고 한다. 제방이 없을 때는 조수물이 만조가 되어 들어오면 온 들판이 물속에 잠기어 물을 막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제방이 생기면서 우선 바닷물이 농토에 밀려들어오지 않아서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조수물에 따라 물이 하루 2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물이 들어왔을 때 막아두어 가물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물막이다.

한강 제방을 막기 전에는 건기 때에 조수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바닷물이 들어와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장마 때는 물이 범람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하지만



송포호미걸이 공연 모습



동막이를 하며 농사짓던 송포동네

장월동네 끝자락에 오갑문(5개의 문)의 배수시설을 만들어서 조수 물을 조정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장월평천이 곧게 뚫리기 전에 옛날 천은 이리저리 꾸불꾸불했다. 그러니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물이 장월평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위로 넘쳐서 논이 물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고양수리조합이 시작될 때 장월평천이 오갑문까지 곧게 연결되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오갑문으로 바로 빠져 나가고, 조수물도 오갑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빠져버리고, 어디에도 멈추지 않게 되었다.

옛날 이 꾸불꾸불한 장월평천 오갑문 앞에 자리를 잡아 동막이를 했다. 수리시설이 없어서 모심기를 제 때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가을 농사가 끝나면 바로 동을 막고 겨우내 물을 받았다가, 봄이 되면 그 물을 논에 퍼서 농사를 지었다.

이 물막이 작업은 장월평천에 이어진 농지를 갖고 있는 동리 사람이 모여 하는 작업이다. 서촌, 도촌(대화동쪽), 장산, 장월, 중촌, 향정(구산동) 등 6개 동리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법곶동 3개 마을, 구산동 4개 마을 합쳐서 법곶동과 구산동 7개 마을의 농사가 메인 중요한 목줄이었다.

이 물막이는 수십명 많으면 백여 명이 동원되었고, 장비는 삽과 지게가 고작이었다. 높은 지대의 밭이나 논흙을 동리 사람들이 지게로 퍼서 동막이 할 장소로 운반했다. 동막이 할 자리를 잡고, 흙으로 넓게 독 쌓는 식으로 양쪽에서 막는다. 그리고 가운데 지점에는 가마나 부대에 흙을 담아 쌓는데, 조수물을 잡기 위해서 동 가운데 부분을 약간 낮게 만들어 놓는다. 조수물이 들어오면 흙을 담은 부대를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급히 쌓아 올려야 한다.

조수물은 밀려들어오고 나면 잠시 움직임을 멈춘다. 조수물이 들어와 움직임을 멈추고 수평을 이룬 바로 그 순간에 독 양

쪽에 흙을 담아서 쌓아두었던 가마나 부대로 독을 막는 것이다. 물이 멈춘 시간이 잠시이기 때문에 급히 일을 해야 했다.

조수물을 가둔 후에는 부대나 가마나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흙으로 성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물을 막아 놓으면 여러 형태에 기계로 물을 퍼(양수)서 논에 물을 잡어 못자리 모심기에 이용했다.

막고짐

이 물막이 작업에 ‘막고짐’이라는 행위가 있었다. 지게로 흙을 저 나르는 작업은 워낙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서로 지게를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 일에 결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작업하는 중에도 피를 부리기 일쑤였다. 지더라고 지게에 흙이 몇 삽 오르면 더 받지 않고 동막이하는 곳으로 흙을 쏟으러 가기도 했다.

이에 머리를 쓴 것이 막고짐이다. 지게로 흙을 많이 지고 나르도록 작업을 독려하는데 담배를 이용한 것이다. 충분한 양의 흙을 지게에 저오는 사람에게 담배 1개피나 2개피를 주었다. 흙을 빨리 저오게 해서 동막이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당근의 역할을 했던 것이 막고짐이다. 이때 담배 값은 마을 유지가 낸 찬조금으로 준비했던 것 같다.

양재문 회장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산두레패를 재결성하고 10여 년간 억척스럽게 온갖 크고 작은 공연에 참여하며 장산두레패의 풍물을 널리 알려왔다. 하지만 재결성할 때부터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었던 장산두레패는 현재 더욱 고령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연도 연습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젊은 회원들이 영입이 되어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렵다”며 안타까워하는 양재문 회장은 “도시화되기 이전, 고양군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마을마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두레 회원이 되길 원했던 그런 시절이 그립다.”고 말한다. 몹시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글 이옥석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고양신문 기자와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동만 용인 독성2리 이장(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 마을주민 통째로 새로운 둥지로 집단이주 추진

박숙현



독성2리 마을회관 앞 벚꽃길에서 정동만 이장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1~3리와 죽능1~6리 일대에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통 마을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래 독성리, 죽능리 지역은 용인에서도 현재까지 농촌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구조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여타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다. 향후 SK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면 산단에서 빠지는 독성 3리, 죽능6리 등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원주민 가운데 외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마을이 해체되거나 과거 오랜 기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지해 왔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마을 가운데서도 독성 2리와 죽능 5리는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는 아픔을 겪는다. 전통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대를 이어 마을에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경제·생활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새롭게 이주해 들어와서 살고 있거나 개발을 앞두고 보상을 노리는 차원에서 이주해 들어온 주민들은 마을의 존재에 별다른 미련이 없지만 이들과는 달리 연세가 높은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요사이 모두가 근심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특히 옮겨갈 집 마련조차 힘든 주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이가 정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을 주민들은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성 2리는 원주민 모두가 한곳으로 이주하게 돼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마을을 통째로 옮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현재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만 독성 2리 이장이다.

이들이 옮겨가는 곳은 수용에서 제외된 독성2리 나머지 지역으로 현재 독성2리 체험마을인 연미향마을 바로 옆 7000여 평

의 부지다.

“현재 저희 동네는 34가구이며 주민 수는 70~80명 됩니다. 요새는 고령자가 많아 60대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중 원주민 위주 20가구가 한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한곳에서 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서로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 무시하자. 나이도 있고 의기투합해 같이 살기로 한거죠.”

정동만 이장은 “산단 내 땅보다 지가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단지 아는 사람끼리 웅기중기 모여 살자는 뜻 하나만 가지고 그러기로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단지 안가고 독성 2리 중 산단 소유에서 제외된 나머지 독성2리 땅으로 지가 상승률 무시하고서 가게 되는 것이죠”라고 했다.

정 이장은 또 “산단 내 땅 사기 어려운 분도 많고, 땅을 사도 집을 지어야 하고. 게다가 거기서 집을 지을 때까지는 다른 곳 가서 살다 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이주해가는 곳은 정착하는 데를 먼저 정해서 주택을 미리 짓고 여기가 수용되면 그쪽으로 곧바로 이주하는 것으로 한거니까 그것만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라고 했다.

현재 용인시 및 사업자 등과 협의해 허가 서류를 낸 상태다. 단독주택 27가구, 빌라 40가구가 들어서게 돼 동네가 훨씬 커지게 된다. 산단에는 안들어가지만 산단 바로 경계에 있는 주민들도 이곳으로 일부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경계지역 주민분들은 보상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산단하고 경계니까 공사차량이 계속 다녀야 하고 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 크게 아니죠. 그분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빌라를 더 넣자 그렇게 한겁니다.”

정동만 이장은 동네 이주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용인시나 업자들 모두 난색을 표했다.

“시는 인허가 내기가 곤란하다고 그랬고 업자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둘 조절하느라고 애먹었어요.”

정 이장은 “시에서는 허가 낼 수 있는 면적이 적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면적이 커야 사업성이 맞지 않겠어요. 특히 독성 2리에서 가시는 분들은 조성원가로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 돈이 남을 게 없잖아요. 판 부분을 확대 시켜야 하는데 해결하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시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희망하는 분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빌라를 권유해서 업자가 빌라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라고 했다.

전원주택에 사는 외지인 등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34가구 가운데 20가구만 한 곳으로 옮겨간다. 20가구 가운데도 함께 옮겨가기가 힘든 집들도 있지만 되도록 한 집도 낙오되지 않게 모두 함께 간다는 게 원칙이다.

“대대로 살아온 것도 있고 자식이 잘 안풀리다보니 혼자 독거



정동만 이장

노인이 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은 마을분들 한분도 버리지 않고 끈끈하게 모시고 가려구요. 그분들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갈려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정동만 이장은 옮겨가는 마을을 SK에 선진지 마을 사례가 되도록 잘 만들어달라고 얘기 했다.

“일단 잘 만들어봐야죠. 디자인 잘해서 기반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옮겨가잖아요. 가게 되면 일단은 상처부터 치유를 해야죠. 수용 돼서 농토고 뭐고 다 없어졌는데 상처부터 치유하고 그걸 잊게끔 동기 부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한다고 다 잊겠어요. 이벤트 같은 것을 마을에서 해야겠죠. 건강 허락하는 분이나 안하는 분이나 몇 십 년 사시던 집이나 농토가 다 없어졌으니 실망감을 최소화 시키는 게 우선이죠. 그게 몇 년간 쉽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들은 독성2리로 시집은 이후로는 한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 없이 거의 한 집에서 수십년 살아온 분이 많고, 할아버지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주하게 되는 곳에서 처음부터 정붙이고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동만 이장은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위한 이벤트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을 일단 가꿔야죠. 집은 현대식으로 하되 마을은 복고풍으로 디자인을 잘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도로경관 개선사업 같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손수 가꾸게끔 할 겁니다. 물론 시나 SK에 요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을이라는 의미가 없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심고 가꿔야 애착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이 간다고요. 그래야 옛날에 살던 마을을 잊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계속 몇 년을 해나가야죠. 몇 년 동안 공동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끔, 애착을 갖게끔 해주면 과거에 살던 곳을 잊겠죠.”

정동만 이장이 새롭게 이주할 독성2리 마을을 복고풍으로 만

들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 현 연미향 마을과 연계해 농촌체험 마을 사업을 확대 운영해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SK 가족들이 수 만명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도시 사람들 아녜요. 농촌 체험을 제대로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정동만 이장은 향후 농촌체험마을 사업 경영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연미향마을 운영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지금 연미향마을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 사유지라 임대료를 내다보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사서 마을에 주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또 마을 공동소유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애착을 더 갖게 되겠죠. 원주민들이 자신이 평생 일하던 논밭 다 들어가니까 일거리가 사라지는 대신 잠시라도 허탈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상생협력 사업으로 넣어 달랬어요. 3000여 평 되요. 임대료가 절감됨과 동시에 전에는 각자 농사를 짓다보니 연미향마을에서 봉사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거기 와서 시간이라도 잊으시라 그 거죠. 수익이 나면 인건비 드려야죠. 그러나 수익보다도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소일거리와 공동체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안하면 죄다 우울증 걸려요.”

이번에 마을 이주건을 해결한 정동만 이장은 그동안 이장을 보는 스타일도 뛰어나고, 과거 연미향마을도 혼자 제안해서 성사시키는 등 경영마인드와 기획 추진력을 고루 갖춘 농촌 공동체의 능력 있는 리더다.

정동만 이장은 이장 19년차다. 현재 65세이니 47세부터 이장을 했다. 원래는 사회 진출하려고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못했다. 새마을지도자도 8년 했고 마을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여러 해를 했다.

정동만 이장은 낙농을 하는데 마을에 갑자기 일이 생겨 이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장을 갑자기 보게 된거예요. 이장 보면서 마을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몇가지 조건 안들어주면 이장 안보겠다고 조건을 걸었죠.”

당시 독성 2리는 지금과는 달리 보통의 다른 동네처럼 이웃간에 갈등이 있었다. 정동만 이장은 공동체 단합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장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난 조건을 걸겠다. 난 내가 이장 보면 주민들 편안한 삶 살 것 따질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웃간에 담을 없애라. 시기하고 혈통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곳곳에 있었어요. 또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 이 세가지 조건을 걸고 일을 시작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규모 다목적 광장사업부터 마을안길 경관 개선사업, 골목길 개선사업, 농로포장 사업을 했고 하천 정비 사업을 했다.

“우리 마을은 뭐 그리 특별하게 베풀을 하거나 이런분은 안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천하게 사신 분들도 아니고 전원적인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우리 마을이 특이한 게 아직까지 시골에 대한 옛날 풍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까지 우리 마을은 척사대회도 해요. 보통 연세들이 들면서 흐지부지 하지만 저희는 안그래요. 선물도 줘요. 1등부터 꼴등까지 똑같이 줘요. 내용을 똑같이 준비해서 서로 서운하지 않게 드려요. 보통 생활용품 중 비싼 걸 준비해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 회관에 모여 음식 나누면서 서로 감사해합니다. 평소에도 코로나 전에는 회관에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서 자주 나눠 먹고 서로 어느 가정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십시일반 봉사도 해요. 마을 안길이며 꽃길 가꾸는 것도 사실은 노인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제초 작업도 사람 사서 돈주고 하는 마을도 여러 곳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다해요. 꽃길도 가꾸고, 잡초도 뽑고, 꽃



독성2리 마을회관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이 크다



연미향마을 체험 장면

도 심고 막 이래요. 끝나면 회관에서 음식 준비해서 나눠먹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유지 되는 마을인데, 이런 데가 드물더라구요.”

마을 기금을 쌓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정동만 이장은 마을 기금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 때 회관에서 출향인과 마을 발전에 관한 회의를 해요. 그럴 때 마을발전기금을 조금씩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을 당하는 등 큰일을 치루면 그 집에서 얼마를 주시고, 그런 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을 부녀회에서 농산물 팔고, 멸치 액젓 떼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겨요. 그런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그뿐 아니라 독거노인분들 김장도 해줘요. 자식들이 나가 살잖아요. 그런분들 김장도 해주고, 구정 때는 흰떡도 해서 썰어서 나눠드리고, 송편도 해서 드리고, 반찬도 해서 나눠 드려요. 그랬더니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마을에 오면 마을에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게 쌓이게 몇 천만원 되요.”

정동만 이장은 십시일반 알뜰살뜰 모인 기금으로 알뜰살뜰 정겹게 살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마을들과 달리 갈등과 분열 없이 결속력 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다 정동만 이장의 리더십 때문이다. 정동만 이장의 리더십이 출중하니 동네 분들의 호응도가 높고, 부녀회도 호응을 잘 해준다. 결국 마을이 뚝뚝 뭉쳐 하나가 됐다.

정동만 이장은 무엇보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인 농촌체험 연미향마을을 지난 2005년 개인적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당시 농림식품부로부터 70억을 비롯해 기타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합해 100억여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원삼면 독성1, 2, 3리, 죽능5리, 두창4, 5리 등 6개 마을 주민에게 사업신청을 받아 연미향 영농법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신청했죠. 제가 혼자 계획 세워서 신청서를 냈어요. 혼자해서 6개 마을에 나눠 준거죠. 2005년 5월에 책정 됐어요. 중앙 및 시도 심사를 거쳐 합격돼야 확정이 돼요. 지원금을 몇 개 기관에서 준 게 한 100억 가까이 됐어요. 6개 마을 분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 했지요. 한우 우사 4000평, 우렁이 양식장 2000평, 하우스 5200평, 각 마을마다 옛날 담장 버리고 현대식 펜스로 바꿔주고, 조경 사업하고, 꽃나무 심고 했죠. 마을회관도 세 개 마을에 지어줬어요. 부지까지 사서 지어줬죠. 독성1리, 독성 2리, 죽능5리 마을회관이예요. 처음에는 조직원 없이 저 혼자 일했죠. 나중에 조직원이 생겼죠. 처음에는 돈이 안 되니까 안왔지만 시설을 하게 되니 너도나도 참가하더라고요.



마을주민이 손수 가꾼 독성2리 마을회관 벚꽃이 만발한 독성2리 마을회관길

시설하우스 5200평이니 여러 농가가 할 것 아녜요. 육묘, 화훼, 채소도 하고 우렁이 양식장은 우렁이 나갈 때는 외국인까지 채용해요. 우렁이 잡아서 고기로도 팔고 친환경농업 벼농사 짓잖아요. 한 100만평 정도 되는 논에 우렁이 키워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우렁이 값은 시가 지원해주는 거죠. 자부담분은 참여 농가가 부담하는거죠.”

이번에 옮겨가서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도 넓게보면 연미향마을이 된다. 연미향 마을을 운영하는 목적이 수익사업도 되겠지만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농촌·자연에 대한 중요성, 농민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도시민에게 알려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도시민들이 시골에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해서 농업의 소득을 올리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직거래 하기가 어렵잖아요. 도시민들을 불러들여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직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거죠.”

다만 관리주체가 현재 독성2리에서 원삼면 20여개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 독성2리 마을 주민들이 고령이다보니 2선으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동만 이장은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자격으로 SK측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원삼면, 더나가 용인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협의 중이다.

글 박숙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아이 제일주의'로 완성한 배혜경 교장의 교직 생활 40년

류설아

“교사가 되었을 때 처음 그렸던 그 아름다운 꿈을 작은 학교에서 꼭 맛보고 싶었어요. 동료 선생님들과 학부모 등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사람이 되면서, 학생을 가장 우선하는 학교를 꿈꿨죠.”

1968년 문을 연 용인의 남춘초등학교는 각 학년 1개 학급으로 전교생 40여 명인 작은 학교다. 강원도 춘천에서 교편을 잡고 90년대부터 용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 배혜경 남춘초 교장에게는 꿈을 이루는 무대다. 이곳에서 내년 정년퇴임을 하는 배 교장의 40년 교직 생활을 들었다.

교편을 잡다

1960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배혜경 용인 남춘초등학교장은 어린 시절부터 단 하나의 길을 향했다. 교사다. ‘선생님이 최고’였던 시대 상황이, 시골에서 훈장이었던 할아버지와 공직에 몸담았던 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작은 아버지 등 가정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학창 시절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쑥쑥 그 내용이 이해돼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4년제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를 중용해 2년제 춘천교대에 입학했죠. 오빠는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데 저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참 속상하고 창피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교대 2년 차에 초등학교 실습 기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을 얻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초등 교사를 강요하셨던 것은 딸이 엄마 곁에 있기를 바랐던, 아버지 나뉠의 느낌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대 졸업 후 강원도 홍천의 3개 초등학교에서 1980년대 10년을 근무했다. 열정 가득했던 교사 초년 시절, 신나게 배우고 가르치고 익혔다. 당시 그의 기억에 선명한 한 관리자는 교사들

에게 동일한 한 과목을 연구하고 같은 단원으로 공개 수업하는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가는 길과 도달 지점 모두 다른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구현하는 시간이었다.

결혼 그리고 용인, 새로운 시작

개신교가 모태 신앙이었던 배 교장은 평생의 반려자를 신앙 모임에서 만났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무리와 모임이 있었는데 모태 신앙에 회의감이 들던 차에 종교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듣고 각성하게 됐어요. 그렇게 종교적 동지로 만나 제 마음을 흔든 두 살 연하남과 5년 동안 연애했다가 29세에 결혼하면서 강원도를 떠났어요.”

1991년 결혼과 동시에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다. 춘천 시내에서 살았던 그의 눈에 비친 용인시는 시골이었다. 지금의 처인구와 기흥 정도만 있는, 용인읍. 수원에 나갈 때에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서울에서 한참을 시외버스를 타



고 내려와야 했다. 한창 도시화가 진행 중인 용인시의 용인초등학교에서 경기도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77학급에 2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학생도 교사도 많았다.

“한 학년이 14반까지 있을 정도로 대규모 학교였어요. 관리자로부터 장학의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저 사고 없이 학생을 돌보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 강원도에서 올라온 저에게 교감 선생님이 ‘수업 실기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기대회를 개최했다. 학교 대표로 뽑힌 교사는 제3의 학교에서 처음 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동기 유발 정도와 교수법 등을 평가했다. 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단 한 명의 교사에게는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

배 교장은 대회용으로 음악 수업을 준비했다. 서양음악 일색이었던 초등 음악 교과 과정에 국악기 단소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다. 리코더가 기본이었던 상황이어서 단소를 가르쳐야 하는데 배운 선생님을 찾기는 힘들었던 때다. 마침 강원도에서 단소 입문 과정 연수를 밟은 배 교장은 내심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패했다.

“충격이었어요. 용인에 오자마자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고, 강원도에서 1등 소리만 듣고, 앞서 단소도 배웠던 터라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그 일로 ‘다시는 수업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쓰라린 좌절감을 안긴 그날의 대회는 오래지 않아 인생을 흔드는 인연을 선물했다.

작은 학교에서 이룬 아름다운 하모니

95년 용인 수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근무하게 된 풍덕초등학교, 개교 학교로 65학급에 3천 명이 넘었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많은 학교로 가자마자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당시 출산휴가는 출생 45일 전부터 딱 60일이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고 해도, 관리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죠.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 단소 수업하신 분이죠?’라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에게 실패의 상처를 안긴 수업 실기대회를 감명 깊게 본 관리자였다. 그의 신뢰와 지지 덕에 복직하자마자 합창부 지도 교사를 맡아 3년 동안 이끌었다. 부촌에 재능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여서 용인시 초등학교 대표 합창단으로 꼽혀 경기도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합창부 지도 교사라는 역할은 뒤이어 전근 간 보라초에서도 이어 나갔다. 전체 11학급으로 학생 수



도 적고, 합창부도 없는 작은 학교였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도 많았다.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하모니를 만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청해서 3~6학년 40여 명 아이를 데리고 합창 연습을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합창해 본 적 없는, 들쭉날쭉 키 차이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서로 다른 아이들이 호흡을 맞췄을 때 정말 기뻐요.”

작은 학교의 작은 합창단을 꾸려나가는 일상은 바빴다.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한 아이들에게 합창곡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녹음했다. 밤이면 녹음한 연습곡을 들으며 지도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심시간과 하교 시간을 쪼개 하모니를 완성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대에 섰을 때 함께 인정받았다. 보라초 합창단은 당시 2년 동안 지역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객지에 와서 합창 덕분에 이름값을 얻고 ‘배혜경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보다 학부모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에 행복했어요. 경운기에 참외나 수박을 싣고 와서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화음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것도 행복했지요.”

갑옷을 벗고 관리자로 나아가다

배 교장의 교직 생활의 변곡점마다 ‘관리자’가 있었다. 그를 믿고 지지해 준 교감, 교장 선생님 덕에 낮은 곳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그런 관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나아갔다. 서울 교대에 편입학해 방학이면 공부에 매진했고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등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 이 과정에서 수업 실기대회 1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필요했다. 가산점을 얻을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였다. 대회 출전을 결심했다. 목표는 1등이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 수업을 녹화하고 녹음했어요. 그 속에 내가 아닌 내가 있더라고요. 익숙한 교수법, 내 편리성에 맞춰진 루틴이 있는 것을 확인했죠. 아이들이 보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손질, 동선을 모두 바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바뀌야 할 부분을 물어보고 실천하고 또 확인하고요. 내가 입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간혀 있던 세계를 학생들과 함께 깨기 시작했다. 국어 과목의 토론 수업을 준비했던 배 교장은 자신을 부수는 각성 끝에 당당히 목표를 이뤘다. 2001년의 수업 실기대회 1등은 토월초 5학년 배혜경 교사였다. 그 이후로도 관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일을 배우기 위해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을 돕는 역할을 자처했고, 죽전의 대덕초에서 교무부장으로 발탁돼 수많은 경험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1일, 의왕시의 왕곡초 교감이 됐다.

“어느 날 남편이 승진을 향해 내달리는 저에게 ‘왜 관리자가 되려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제 머리가 잘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생각했죠. 도움받았던 관리자들, 마음속 멘토를 떠올리며 답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교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 홍익인간이었어요.”

초보 교감에서 노련한 교장으로

27년 6개월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관리자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도움 주는 교감이기를 바랐다. 열심히 문제를 찾고 답을 제시했다. 시행착오였다.

“교감직 두 달 만에 제 잘못을 깨달았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내놔거든요. 그랬더니 고민 없는, 영혼 없는 교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 방식이 선생님들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과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봤다는 각성이었어요. 그때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로 방법을 바꾸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뀌어나가는 관리자로서의 경험은 혁신교육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2012년 부임한 용인 언남초등학교는 그해 3월 혁신 초로 지정받았지만,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언남초만의 혁신교육이었다. 시골 작은 학교의 대안 교육이 혁신 교육인 것처럼 인식하던 시기에, 생소한 도시형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했다. 배 교장은 교사들에게 그 방법론을 ‘함께 생각하자’라며 대토론회를 열고 어느 날은 보자기 위에 앉아 촛불 켜고 대화했다.

“혁신 교육은 교사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해요. 혁신 교육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야죠. 그래야만 지역과 학부모,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법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혁신 교육에 앞장선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하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발전과 변화에 선생님들의 성취감과 희열도 커졌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꾸려 운영하는 언남초의 동아리 중 동물사랑 동아리의 토끼 개체 수 줄이기 대작전은 꽤 유명한 사례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온



병아리와 토끼 등 동물을 키웠는데, 토끼의 강한 번식력이 문제였다. 도저히 관리 불가능한 상태로 늘어나자 선생님들끼리는 암컷을 산에 방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동아리 학생 임원들과의 연석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장날에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토끼를 팔겠다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선생님들의 오랜 기다림과 대화 끝에 아이들은 스스로 암놈 방사를 제시했다. 이 같은 수많은 사례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바람직한 관리자상으로 완성됐다.

2014년 화성 장안초등학교의 개교 이래 첫 여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혁신학교는 아니었지만, 혁신학교처럼 교육과정을 주도했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에게 물으니,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많은 아이, 그래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아이’로 생각하자고 했죠.”

기존과 다른 교육이 이뤄졌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호응 얻은 교육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교육이었다. 태블릿을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배 교장이 학교를 떠날 때 동문회가 나서서 ‘좀 더 있어 달라’는 청을 받기도 했다고.

다시 작은 학교, 새로운 꿈

“규모가 큰 학교는 행정과 관리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작은 학교에서 교육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빛나는 그런 학교요.”

배 교장은 22년 2월이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다.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남촌초등학교는 그의 꿈 따라 변화하고 있다. ‘아이 제일주의’에 모두 동의하고 실현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뒤에서 밀어주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학교. 부모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학교가 그의 꿈이다. 부임 직후 학교의 각종 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했고 교육 또한 혁신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19 학교안전 우수학교와 2020 혁신공감학교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하지만 배 교장이 꼽는 제1의 성과는 숨소리가 커지고 한결 밝아진 아이들이다.

“작은 학교여서 아이들과 한 명씩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빛나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자신감 키우기를 중요한 교육으로 설정했어요.”

책을 읽고 로봇을 만들고 둘러앉아 악기를 연주하는 등 아이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배 교장은 어떤 꿈을 꿀까. 어떤 꿈을 이룰까.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준비했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쟁 조정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교육계를 못 떠날 것 같죠?”

글 류설아

수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문과 방송사에서 15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다양한 저술을 펴냈다. 현재 구술사 채록 등 프리랜서 인터뷰어로 활약하고 있다.

TRIP & HEALING

휴, 여행

청춘은 음악과 함께 여기에 남아, 음악도시 가평

산행

한남정맥의 현주소, 수원 - 의왕구간

경기도의 맛

김포 김구원선생두부

청춘은 음악과 함께 여기에 남아, 음악도시가평

유승혜





1



1. 핑크몰리가 화사한 가을의 자라섬
2. 대형 콘트라베이스가 돋보이는 음악역 1939 전경

어떤 음악은 듣는 순간 나를 가장 설레던 과거의 순간으로 데려다 놓는다. 그때의 공기와 기분이 음악의 선율과 함께 찾아온다. 어떤 지역은 발을 딛는 순간 나를 가장 순수했던 오래전 어떤 날로 돌려놓는다. 20대 청춘의 한 조각이 가평에 머물러 있다. 재즈 선율처럼 자유롭고 낭만적이었던 기쁜 우리 젊은 날. 그 찬란했던 시간을 만나러 가평으로 갔다.

축제는 끝나고 가평 가는 무궁화호는 사라졌어도

가평터미널에 도착해 곧장 자라섬을 향해 걸었다. 북한강으로 합수되는 가평천의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 섬까지는 1km 남짓. 근처 카페에서 주문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늦은 가을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치러진지 수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축제의 땅에 축제가 없으면 빈 땅이 아닌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자라섬은 서도, 중도, 남도, 동도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동도를 제외한 세 개의 섬은 모두 이어져 있다. 자라섬의 대문은 서도다. 사실 서도에 들어서자마자 섬이 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늘어난 캠핑족들이 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도의 대부분 면적은 캠핑 사이트가 차지한다. 캠핑 트레일러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카라반 구역과 일반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잔디광장과 수영장, 자전거대여소, 편의점 등이 자리한다. 근사한 풍광에 편의성까지 갖췄으니 인기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일이다. 벽적인 서도를 지나 섬과 섬을 잇는 널찍한 길을 걸어 중도로 향한다. 고개를 돌리면 가까이에 경강철교가 보이고 그 위를 20~30분에 한 대꼴로 수도권 전철과 ITX-청춘 열차가 오간다. 2010년 12월, 복선전철화로 철로에선 무궁화호가 퇴장했다. 좀더 빠르게 서울과 춘천을 오갈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은 경춘선 무궁화호가 그립다. 처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찾았던 2010년 11월, 나는 막바지 운행을 하던 무궁화호를 타고 가평에 왔다. 이따금 나는 ‘기차 타고 가평 가는 감성’을 아는 마지막 세대였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한국 재즈의 본토가 된 섬

이제 가평하면 자라섬을, 재즈하면 자라섬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 2021년 11월 열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어느덧 18회를 맞이했다. 아시아 최대 재즈축제로 자리매김했고 매년 세계적인 재즈 거장들이 축제를 찾는다. 2004년 첫 회 때 3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순조로운 신호탄을 쏘아올린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이 늘었고 9회 이후로 연간 평균 20만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가평군 인구가 6만명이니 그보다 세 곱절 이상의 인파가 사흘 간 자라섬에 모이는 셈이다.

축제는 애당초 가평이라는 큰 단위의 자자체보다 자라섬이라는 작은 단위의 섬을 주제로 내세웠다. 1회 축제 때만해도 자라섬은 지금처럼 유명한 섬이 아니었다. 관리되지 않은 황무지 같은 섬이었고 장마철마다 섬의 일부가 물에 잠겨 써먹기도 애매한 땅이었다. 그러나 면적이 넓어 마냥 놀리기에는 아까운 땅이기도 했다. 가평군은 자라섬을 특별한 무대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섬에 무대를 짓는 게 아니라 섬 자체를 무대화시키는 전략이었다. 당시 공연기획자로 명성을 날리던 인제진 총감독이 자라섬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그는 섬에 오션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첫 축제가 열린 직후, 사람들은 자라섬을 ‘한국의 뉴올리언스(재즈의 본고장)’라고 추켜세웠다.

무대가 건혀도 쓸쓸하지 않도록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적이 있나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에’를 흥얼거리며 자라섬 산책로를 걸었다. 축제가 끝난 자리를 걷는다는 생각에서였는지 블루스 재즈풍의 노래가 이곳과 어울린다는 생각에서였는지 그냥 문득 떠오른 노래였다. 1980년 대학가요제에 등재해 원히트 원더로 명곡을 남기고 사라진 샤프의 멤버들은 이제 장년층이 되어 흘러간 노래를 추억하고 있을 것이다.

가평군은 사시사철 자라섬의 경관을 가꾼다. 계절별로 꽃나무를 심고 조명을 세우고 산책로를 정비한다. 2020년에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섬을 갖은 노력으로 메우고 다져 놓았다. 365일중 사흘만 사람들이 찾는 축제의 섬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사람들이 찾는 일상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정성이다. 이렇게 섬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한 쉬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중도의 잔디 광장을 가로 질러 ‘꽃섬’ 남도로 향했다. 축제가 없을 때는 꽃밭을 잘 가꾼 남도가 자라섬의 ‘하이라이트’다. 내

가 방문했을 때는 따스한 분홍빛의 핑크물리와 구절초, 백일홍이 꽃밭을 이루고 있었다. 혼자서 아쉬울 정도로 누군가와 걷고 싶은 꽃길이었다.

최고의 재즈맨은 자라섬에 부는 바람

자라섬의 산책로는 ‘재즈로’라고 불린다. 재즈로를 걸으며 홀로 노래를 부르다 문득 섬 안에서 음악이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공원이 가로등에 야외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재생하는데 자라섬은 예외다. 하루 종일 재즈가 울려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곳인데 평소 캠핑사이트로 이용이 되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섬은 오직 자연의 소리만으로 가득했다.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어우러졌다. 남도 끝으로 다가갈수록 이웃한 남이섬의 시끌벅적한 유람선 안내 멘트의 테시벨도 높아졌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흥이고 분위기겠으나 자라섬의 소리가 더 편안했다.

재즈는 바람 같은 음악이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 강위를 지날 때, 그리고 우리의 귓가를 스칠 때 비로소 소리가 나고 그 모든 소리가 서로 다르듯 재즈도 그러하다. 악보가 동일해도 연주자에 따라 악기에 따라 그리고 그날의 바람에 따라 음악은 달라진다. 그래서 바람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들이 자라섬을 찾는 것일까. 자라섬에 음악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옛 가평역 부지에 들어선 ‘음악 동네’

자라섬에서 1.5km쯤 떨어진 곳에 음악역 1939라 명명된 가평뮤지컬리지가 있다. 음악을 테마로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음악문화공간이다. 가평군이 ‘음악’, ‘자연’, ‘사람’을 중심에 둔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도시를 표방하며 옛 가평역 부지에 2018년 완공해 문을 연 공공시설이다.

서로 다른 디자인의 2~3층 건물들이 산책로를 따라 쪽 늘어서 있고 주변은 광장과 카페, 특산물판매장, 기차 갤러리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M스테이션이다. M스테이션 앞에는 건물 높이만한 대형 콘트라베이스(더블베이스)가 세워져 있다. 재즈를 상징하는 악기 중 하나다. ‘둥둥둥’하고 현을 튕겨 내는 낮은 음이 매우 매력적으로 재즈의 리듬을 살린다. ‘재즈의 도시’다운 조형물이다. M스테이션은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영화관(1939 시네마), 북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가평에 며칠 간 머물 때 이곳을 자주 들락거렸다.

1. 옛 가평역 부지에 세워진 문화복합시설 음악역 1939

2. 자라섬 중도에 갖춰진 캠핑장 전경



이곳 북카페에서 원고를 쓸 때 가장 집중이 잘 되었다. 정숙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은은한 조명과 넓은 데스크가 작업 환경으로 안성맞춤이다. 책도 제법 많이 비치되어 있다. 가평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음악공연이 이곳에서 열리는데 설계에 공을 들여 음향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1939 시네마는 가평의 유일한 영화관이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공연이 매일 열린지 않기 때문에 영화관과 북카페가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M스테이션 옆에 작은 건물 두 동은 각각 녹음 스튜디오와 음악 연습실이다. 주로 가평과 인근에 거주하는 뮤지션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역시 최상급 시설로 이용률이 매우 높다. 뮤직빌리지 가장 끄트머리에 뮤즈빌이라 명명된 레지던스가 있어 공연장이나 녹음실을 이용하는 아티스트, 스텝, 교육수강생 등이 숙박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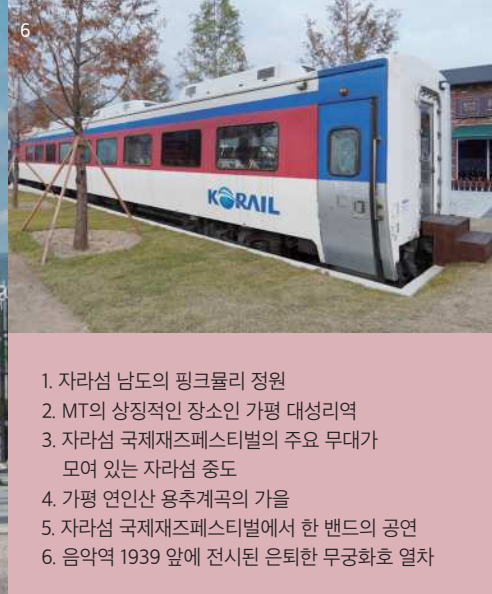
늪음이 낯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1939는 경춘선 가평역이 개통된 해를 의미한다. 뮤직빌리지에 들어선 옛 가평역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오갔다. 바로 다음날인 12월 21일부터 구역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신역으로 새 열차들이 서울과 춘천을 이었다. 신역은 살짝 시내와 벗어나 있어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30분 쯤 발품을 팔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역 부지가 뮤직빌리지로 재탄생했으니 위치에 대한 아쉬움은 상쇄된다. M스테이션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퇴역한 2량의 무궁화호 열차가 '1939' 팻말을 달고 서 있다. 열차는 이곳에 역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다. 부지에는 옛 역사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청량리발-남춘천행' 무궁화호 열차 덕분에 가평역과 경춘선의 추억을 더듬는 이들이 많다. 열차 앞에는 장식용으로 놓아둔 공중전화 박스도 있다. 한때는 일상이었던 풍경이 연

출된 풍경으로 변하는 세월 동안,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도 영원한 것은 없음을 인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늪음이 낯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더 이상 기차가 오가지 않는 경춘선의 폐선 위로는 레일바이크가 달린다. 뮤직빌리지에서 500m만 가면 가평레일파크다. 이곳에서부터 반자동 레일바이크를 타고 춘천의 경강역까지 편도 4km의 구간을 오갈 수 있다. 페달을 굴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철교와 터널에 울려 퍼진다. 가평의 레일바이크가 다른 곳과 견주어 특별한 명소는 아니다. 전국에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 천편일률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폐선이 폐선으로 남지 않으려면 그 위로 바퀴가 굴러야 하는데 그를 위한 최선이 레일바이크라고 생각한다. 발을 굴러 동력을 만드니 친환경적이고 짧지 않은 1시간 30분 동안 주변의 자연경관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니 단점이라 할 게 없다.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한 리사이클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도 살린다. 모쪼록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는 인기 만점 관광 코스다.

물길마다 젊음의 파동이 퍼지고

가평에는 북한강과 이어진 특별한 물길 세 곳이 있다. 북한강이 지나는 청평호, 호명산 위의 저수지 호명호수, 연인산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용추계곡이다. 각각 가평8경의 1,2,3경을 담당한다. 청평호는 1944년 청평댐이 준공되고 생긴 호수로 오랫동안 레저 관광지로 사랑받아왔다. 같은 인공호수로 한강 본류의 팔당호는 상수도원으로 보호받아 유원지와 낚시터가 개설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변 드라이브 코스 등 호수 주변만 즐길 수 있지만 청평호는 호수 안으로 들어가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관광도시로서 가평의 명성은 청평호가 상당 부분 쌓아왔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름이면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등을 타며 물살을 즐기는 사람들이 청평호로 모여든다. 청평



1. 자라섬 남도의 핑크몰리 정원
2. MT의 상징적인 장소인 가평 대성리역
3.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주요 무대가 모여 있는 자라섬 중도
4. 가평 연인산 용추계곡의 가을
5.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한 밴드의 공연
6. 음악역 1939 앞에 전시된 은퇴한 무궁화호 열차

호는 일명 ‘빠지(Barge : 수상레저를 즐기는 선착장)’의 성지로 불린다. 수상레저의 종류도 다채롭다. 널찍한 튜브 위에 몸을 싣고 모터보트에 매달려 가는 플라잉보트, 대형 튜브로 설치된 워터 번지점프와 슬라이드, 서핑과 카약을 결합한 패들보드 등 해를 거둬볼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와 시설이 등장한다. 전국에 크고 작은 워터파크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청평호의 여름은 늘 시끌벅적하다. 같은 물놀이여도 인공시설과 자연이 주는 맛은 완전히 다른 법이다.

예전에 라오스의 북부 도시 방비엥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가이드북에서 방비엥을 가리켜 ‘라오스의 가평’이라고 소개한 문장을 읽고 어떤 고장인지 단박에 느낌이 왔다. 방비엥은 대부분 면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골짜기마다 흘러내려오는 계곡에선 각종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동네다. 방비엥에 들른 이들은 계곡에서 튜브를 타든 다이빙을 하든 झ라인을 타든 레저 한 가지씩은 하게 된다. 액티비티가 8할인 여행지라 그렇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여행하는 모험심 넘치는 젊은 배낭여행자들은 방비엥을 꼭 들른다. 이들은 암암리에 숲속에 들어가 마약 파티까지 벌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위법 행위마저 ‘청춘’이란 명분으로 포장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이 작은 고장은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가평, 그리고 청춘

가평도 그렇다. 청평과 대성리를 중심으로 모여 든 청년들이 건강한 기운을 불어 넣는다. 맑은 물이 흐르는 땅에 푸르고 싱그러운 사람들이 찾아 합을 이룬다. 이들은 심신에서 발산하는

힘을 사방으로 내뿜는다. 꿈을 찾거나 좇는 중이고 생애 가장 순수한 사랑도 한다. 좌절하고 방황하지만 아직은 젊음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때. 그들이 한데 모여 청평으로, 대성리로 여행을 떠난다. 굳이 나누자면 청평과 대성리는 청년이 주 방문층이어도 그 카테고리가 다르다. 청평이 20~30대 청년이 삼삼오오 모여 수상 레저를 즐기러 오는 곳이라면 대성리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최소 10명 이상 모여 MT를 오는 ‘MT촌’이다. 서울, 경기권 대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MT로 가는 곳이 대성리였다.

하지만 요즘 대성리에는 예전처럼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 세대가 바뀌면서 대학생들 또한 단체보다는 개인, 친교활동보다는 스펙을 쌓는 활동에 더 치중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최근의 대학 신입생들은 MT를 가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어떤 학생들은 MT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대학생들을 주 손님으로 받던 대성리 일대 펜션과 민박집도 여러 곳이 폐업하거나 가족이나 연인을 타깃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그럼에도 MT 1번지라는 명성이 아직은 남아있는지 다른 펜션촌보다 적막하진 않다.

이따금 대성리역 앞에서 짐을 푸는 청년들이 보인다. 전철을 타고 오기도 하고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광역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한다. 서울과 가까운 한적한 시골 강변이라는 지리적 요건은 예나 지금이나 장소 선정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는 듯하다. 내가 대성리역을 지날 때도 역 앞 계단에 앉아 단체사진을 찍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썼음에도 눈을 보면 활짝 웃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서 상큼한 오렌지 향이 풍기는 듯 했다. 그들 또한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대성리를 추억할 때면 ‘청춘’이란 두 글자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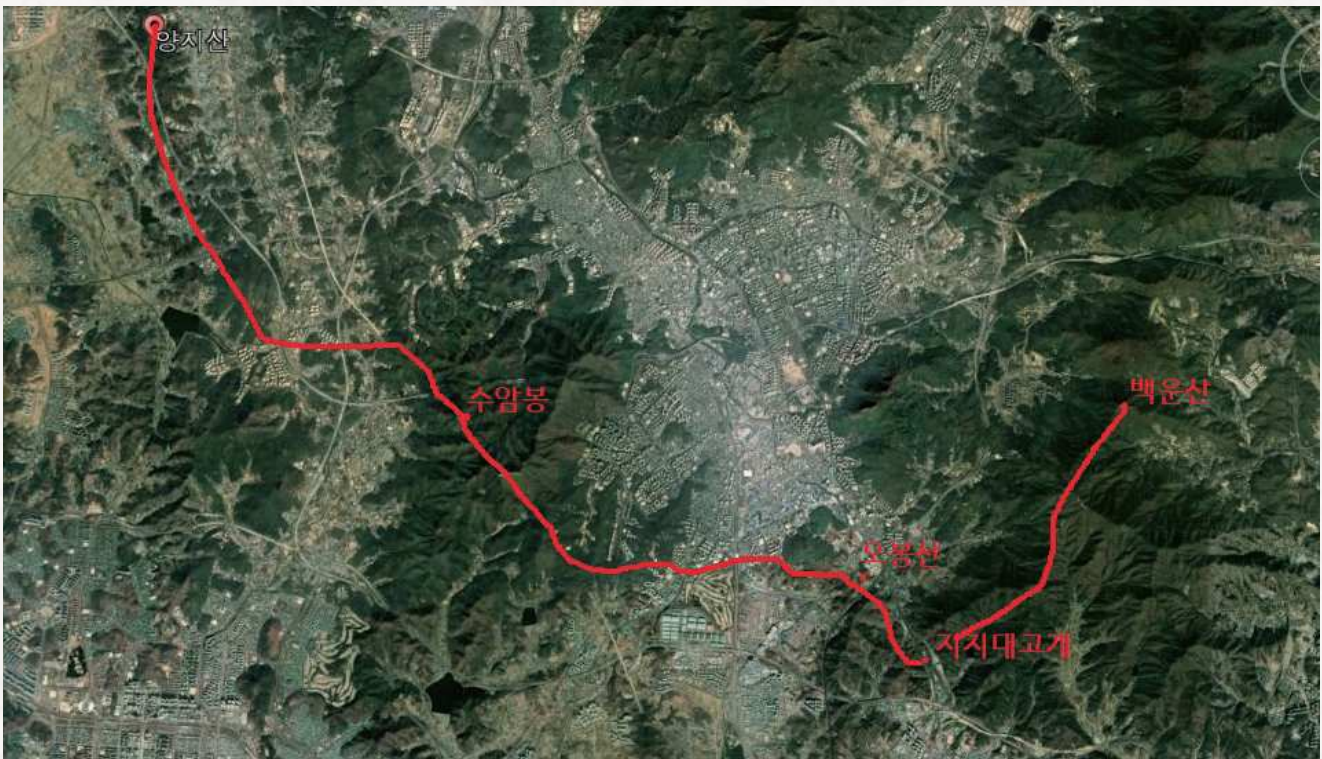
글·사진 유승혜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외 곳곳을 걷고 문장으로 적는 일을 한다. 지은 책으로 『침표,양코르와트』, 『침표,경주』, 『침표,제주』, 『같이 오길 잘했어』 등이 있다.

한남정맥의 현주소

수원 - 의왕구간

고영창



안성 칠장산에서 시작된 한남정맥 산줄기는 수원 광교산에서 한껏 힘자랑을 하며 용솟음 한다. 한남정맥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582m의 주봉 시루봉을 위시하여 백운산(567m)과 지지대 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은 중간 중간 크고 작은 봉우리들로 이어지며 북수원과 의왕시를 경계 짓는다. 그동안 수많은 단절과 훼손에도 불구하고 희미하지만 힘겹게 이어져오던 산줄기는 의왕, 군포, 안양, 시흥 그리고 부천과 인천, 김포시를 거치면서 사실상 산줄기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90년대 지방자치시대와 중국과의 외교 수립으로 인한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정맥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로 개발

이 되었다. 이로 인한 인구의 집중은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맥이 지나가는 지역¹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1%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곳이다. 더불어 정맥 산줄기의 평균 고도가 개발이 용이한 100~300m대의 고도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러한 불편한 지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산업 단지 유치 차원에서 거리낌이 없이 산줄기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산줄기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골프장과 군사시설은 또 다른 훼손으로 이들을 피해 멀리 우

¹ 의왕 163,704명, 군포 269,251명, 시흥 511,882명, 안양 547,258명, 부천 808,047명, 김포 485,859명, 인천 2,938,429명(2021.10월 기준)이다. 여기에 수원과 안산의 인구를 더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회로를 찾아야 하는 길손의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산줄기 답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동안 걷는 내내 나에게서는 커다란 화두로 다가왔다. 비록 끊어지고 훼손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바람으로 걷고 또 걸어봤다. 하지만 한순간 정맥 산줄기가 지났던 고개와 산봉우리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자연마을의 흔적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정의 종착지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한남정맥의 현주소(가칭)’에 초점을 맞춰 총 2회에 걸쳐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지대 고개로 내려서 지지대 고개 비각을 향해 걸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져본다.

버들치고개에서 시작하는 한남정맥 수원구간은 형제봉과 비로봉 그리고 주봉인 시루봉을 거쳐 지지대 고개로 이어진다. 광교산 능선은 수원과 의왕, 성남을 남북으로 경계를 짓고 있다. 광교산은 정맥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능선에는 미군 군사시설과 KT 중계소 등이 상주하고 있어 그나마 개발의 손길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있다. 광교산의 원래 이름은 광옥산(光獄山)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를 치르고 귀환하는 길에 광옥산 행궁에서 머물며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이에 태조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친히 산 이름을 ‘광교(光敎)산’으로 하였다²고 전해진다. 고려 때만 해도 광교산에는 89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때 김준용 장군이 광교산에서 많은 적군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전적비문이 비로봉 아래 암벽에 새겨져 있다.

시루봉을 힘껏 들어 올린 정맥 산줄기는 이후 지지대 고개까지 급하게 지세를 낮춘다. 지지대 고개는 원래 사근현(沙斤峴)으로 1795년 미륵현, 1796년에는 지지현(遲遲峴)으로 고쳐 불렸으며 이곳에 장승과 표석을 세워 현릉원 원행의 이정표로 삼았다. 조선 후기 수원은 장승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많은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지대고개에서 현릉원까지 매 5리마다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 많던 장승들은 모두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지지대 고개를 지나면 수원으로 들어서게 되고 아름답리 노송들이 즐비하였고 역대 수령들의 선정비들이 길을 따라 세워져 있었던 노송지대가 나온다. 70년대 후반까지도 1번 국도가 지나던 길목으로 지금은 거의 모두 사라지고 몇몇 노송들만 안타까운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보호받고 있다.



광교산 비로봉 남쪽 사면 바위에 새겨진 김준용 장군 전적 비문



광교-백운산-지지대고개로 이어지는 능선 위에 세워진 지지대비각. 비각 뒤편으로 의왕구간이 시작된다.



1960년대로 추정되는 노송지대



7~80년대 노송지대



현재의 노송지대 모습

2 『수원 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p136.

김정호가 저술한 『대동지지』에는 당시의 주요 간선도로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은 과천을 경유 인덕원-갈산점-사근평-지지대를 거쳐 수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지대 고개는 현재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고개 정상에 비각이 세워져 있는데 드물게도 단칸 팔작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지대 고개 남쪽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대표적인 자연마을로는 윗·아래 배나무골과 함박골, 안죽골, 햇골, 미륵동, 머느리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륵동 마을 초입에는 미륵불(현 법화당)과 아름답리 노거수가 당시의 모습을 힘겹게 증언하고 있는 것 같다.



지시대 고개 주변에 있었던 수원시 자연마을 배치도.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변화였다.
출처: 『수원 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정맥 산줄기는 지지대비각 뒤로 이어져 수리산으로 향한다. 한편, 의왕은 1989년 미금·오산·시흥·군포·하남과 함께 시로 승격을 했다. 경기도에서는 1949년 수원이 최초로 시(市)로 승격을 한 이후 1963년 의정부, 1973년 성남·안양·부천, 1981년 광명·송탄·동두천, 1986년 구리·평택·안산·과천에 이은 13번째 시로 승격이 된 셈이다. 의왕시의 전신은 시흥군 의왕읍이며, 그 이전인 1914년 의곡면과 왕륜면을 병합하고, 두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의왕'이라 명하고 수원군 의왕면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지지대비가 뒤로 정맥 산줄기는 이어져 오봉산을 거쳐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를 이루는 수리산과 수암봉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오봉산과 수리산으로 이어지는 정맥 산줄기는 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개발 탓에 정맥은 단절되고 훼손이 되었다. 본격적인 개발이 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대 고개에서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주변과 골짜기에는 자연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고리(古古里), 고우물, 골사그네, 군말, 안골, 창말, 넘말, 교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고고리는 ‘통미[通山]’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봉산 깊은 골짜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전주 이씨 외에 타성들이 일체 살지 못할 만큼 누대에 걸친 전주 이씨의 세거지였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별사그네, 안골, 고우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마을 산신제당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고리와 고우물 사이에는 고고리고개가 있어 이 고개를 건너 오봉산 능선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옛 미륵동 마을 초입에 있는 미륵당(현 법화당)의 외부와 내부 및 보호수들의 모습.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 곳의 인문지리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김포 김구원선생두부

신완섭

두부 개발자의 이름을 걸고 4대째 두부집을 하고 있는 『김구원선생두부 본점(김포 고촌읍 신곡리)』을 찾았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빠져나오는 신곡사거리 근처에 있음에도 진입로가 여느 식당과는 달리 시골길 같다. 대보천교 옆 천변길을 제법 들어가니 두부 공장과 함께 고즈넉이 2층에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두부의 대강(大綱)

두부는 콩을 물에 담갔다가 갈아서 그 액을 가열하여 비지를 짜내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것으로서, 콩 제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가공식품이다. 중국 한나라 회남왕 유안(劉安)이 발명한 것이 시초라는 통설이 있지만, 11세기 문헌에서야 두부에 관한 기록이 나오므로 정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콩을 많이 먹었던 중국 북부에서 기원했다는 설, 몽골 유목민들의 음식 문화에서 기원한다는 설, 인도 유입설, 남만주 및 한반도 기원설 등이 있으나 현재 공인된 정설은 없다. 국내 문헌에서는 고려 말 성리학자 이색의 《목은집(牧隱集)》<대사구두부내향(大舍求豆腐來餉)>라는 시에 나오는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입맛을 돋워 주어 늙은 몸이 양생하기 더없이 좋네...”라는 구절이 두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전래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던 고려 말 원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법은 여름에는 7~8시간, 겨울에는 24시간 콩을 물에 불린 후 조금씩 물을 가하면서 곱게 간다. 이것을 콩비지라 하는데, 끓이든지 증기를 뽑아 가열하면 비린내가 제거됨과 동시에 단백질이 콩비지 속에 용해된다. 그런 후 베주머니에 넣고 걸러 짜서 콩물(豆乳)과 비지로 분리하는데, 이때 콩비지가 너무 식으면 짜기 어려우므로 뜨거울 때 콩물을 꼭 짜내고 콩물이 식어서 70~80℃쯤 되면 응고제를 넣는다. 전에는 간수(식염에서 녹아내린 액상)를 주로 썼으나, 근년에는 황산칼슘 성분인 황산응고제를 사용한다. 응고제를 넣으면 콩물 속의 단백질이 굳어지므로 그대로 잠시 놔두었다가 옷물은 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응고물만 사방에 작은 구멍이 뚫린 상자에 무명을 깔고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누름돌로 눌러 두면 구멍으로 물기가 빠져나간다. 두부가 충분히 굳으면 상자째 물에 집어넣어 상자

는 빼내고 잠시 물에 담가 뒤 여분의 응고제를 모두 빼낸 두부를 적당히 자르면 완제품이 된다. 일반적으로 두부 1모는 200g이 표준이고, 콩 1kg으로 4~5kg의 두부를 만들어낸다.

이 밖에 연두부와 순두부가 있는데, 전자는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어느 정도 남긴 채 플라스틱 주머니에 넣어 굳힌 것으로 무척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후자는 콩물이 어느 정도 응고되었을 때 옷물과 함께 떠먹는 것으로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밀봉하여 시판된다. 콩물에 응고제를 넣어 단백질을 굳힌 두부는 콩물 속의 콩기름이 단백질에 싸여 함께 응고되므로 지방도 풍부하다. 두부의 성분은 100g당 84kcal, 수분 82.8%, 단백질 9.3g, 지질 5.6g, 회분 0.9g, 당질 1.4g, 섬유소 0.2g, 칼슘 126mg, 인 140mg, 철 1.5mg, 나트륨 5mg, 칼륨 90mg, 비타민B1 0.03mg, 비타민B2 0.02mg, 나이아신 0.2mg로 이루어져 최고의 고단백 식품으로 평가받는다.

두부에 미친 4대째 두부명가

1대 故 김의창이 강화에서 아들 김구원에게 두부 제법을 전수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살길이 막막하던 시절, 2대 故 김구원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두부 기술을 살려 1956년 서울 영등포에서 두부공장 <두풍>을 차린다. 그는 매일같이 두부를 만들어 영등포 합정동 신길동 일대를 자전거와 손수레를 끌면서 두부를 배달했다. 3대 김성호는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두부 납품과 심부름을 하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동시에 방화동에서 <한일식품>을 창업,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점포에까지 두부를 납품한다. 부지런히 정성으로 만들면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란 일념으로 현재까지 두부 사업을 하고 있다. 4대 김동윤은 2004년 두부공장을 김포 고천으로 이전하여 아버지 김성호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08년 공장 앞에 두부전문점 <김구원선생두부>를 오픈하고 한방간수 및 8가지 약재 추출물의 한방두부 특허를 취득하며 ‘기력두부’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기력(氣力)두부’란?

식당 안에 소개된 안내문의 표현을 빌면, ‘두부를 만들 때 간수(응고제)를 사용하는데 기력두부는 산수유가 간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산 황기, 백출, 대추, 홍삼, 산약, 당귀, 진피 등 8가지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를 넣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인장(章) 국내 최초의 두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8가지 약재의 효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왜 기력두부인지 실감하게 된다.





- 산수유(山茱萸): 산수유 열매로서 간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회춘 효과가 뛰어나다.
 - 황기(黃耆): 기를 살리고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 백출(白朮): 삼주뿌리로서 소화효소(아토티론, 디아스타아제), 이눌린, 비타민A가 풍부하다
 - 대추(待秋): 과육(당분·점액질·농금산·주석산)과 씨(베톨린·베투릭산)의 성분이 이뇨강장·건위진정·건위자양 효능을 보인다.
 - 홍삼(紅蔘): 사포닌이 원기회복, 면역력 증강,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 산약(山藥): 심신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여윈 것을 보하고 오장을 튼튼히 하며 기력을 돕는다
 - 당귀(當歸): 심장 기능을 보강하고 혈액 생성을 촉진하여 기를 보한다
 - 진피(陳皮): 흰속이 있는 것은 위를 보하고 속을 편안히 하며, 없는 것은 담을 삭히고 체기를 푼다.
- 이렇진대 이 두부를 먹고도 기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약발을 받지 않는 본인의 특이체질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

기력두부 맛보기

메뉴판을 받아보고 페이지를 넘겨보니 추천메뉴/요리류/식사류/계절메뉴로 세분되어 있다. ①추천메뉴에는 기력두부 해물낙지전골, 기력두부버섯전골, 기력두부삼겹짜박이, 기력두부낙지짜박이, ②요리류에는 기력두부보쌈과 기력두부불고기, 생두부, 들기름부침두부, 두부샐러드, 수제등심돈까스(어린이용), 두부만두, 두부순대, ③식사류에는 짬뽕순두부, 기력순두부, 해물순두부, 들깨순두부, 옛날청국장, 굴순두부(동절기 메뉴), ④계절메뉴에는 콩국수 등 20여 가지의 두부 관련 메뉴들이 준비하다. 그야말로 두부의 모든 요리를 다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중 얼큰한 맛의 해물순두부에 누룽지술밥(일반 밥값에 1천 원을 더 보태면 됨)을 주문했다.

먼저 밑반찬이 깔린다. 두부튀김, 배추김치, 아삭이고추 된장무침, 콩나물무침 4가지는 모두 손수 만들어내어 맛이 담백하

다. 그중 두부튀김을 맛보니 고소한 맛이 침샘을 자극한다. 잠시 후 해물순두부와 술밥이 올라온다. 고슬고슬 막 지어낸 밥 뚜껑을 열자 단호박과 은행 열매, 콩들이 밥알 사이에 박혀있다. 밥을 떠서 밥그릇에 담고 물을 부어 누룽지를 끓인 후 가장 먼저 순두부 국물 맛을 본다. 깔끔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난다. 연거푸 국물 맛을 보니 장시간의 운전 피로감이 한순간에 싹 가시는 듯하다. 순두부를 한 움큼 입에 넣고 오물오물 그 맛을 음미해 보니 8가지 한방약재 맛이 날 듯 말 듯 부드러운데 고소하다. 간간히 씹히는 낙지 등의 해물 맛과 통통한 새우를 건져내어 머리 꺾질 부분만 빼내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식욕을 북돋운다. 다른 해물순두부보다 유독 국물이 맑은 이유는 풀어 넣은 낱달걀이 반숙이 아니라 완숙 상태로 조리되어서였다. 대개 해물순두부에 들어간 달걀이 반숙 상태라서 해체되면서 국물 맛을 텁텁하게 만드는 것과 달리 이곳의 국물 맛은 시종일관 맑고 개운한 맛을 잃지 않아 좋았다. 그러다 보니 후식처럼 먹는 누룽지 물맛과도 잘 어울렸다. 국물 한 점 남김없이 탕 그릇을 비우며 식사를 끝냈다. 대만족이다.

김구원표 두부박물관

배를 불렀으니 찬찬히 식당 내외부를 둘러보았다. 2층 출입구 벽에 김구원기력두부 연표가 세워져 있다. 1938년부터 지금까지의 83년 가족사가 고스란하다.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라는 말처럼 2대 두부 장인 김구원의 창업 이후 3,4대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단을 내려오다 보니 파주와 연천 콩 농가와와의 계약재배로 수확한 100% 국산 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창 국내 최초 두부 1호로 선정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언론이나 기관으로부터 각종 상을 수상하였음도 알게 된다. 1층 출입구 좌우에는 기력두부 제조과정, 두부 제조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 기력두부가 개발한 여러 상품들, 수상실적 등이 촘촘히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두부박물관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식당 맞은편은 공장 건물이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전면부는 공사가 한창이고, 후면부 공장은 휴일이라 굳게 문이 닫혀 있었지만, 배송 차량 몇 대가 평일의 바쁜 일과를 암시해 주고 있다. 1차 농업 + 2차 가공업 + 3차 서비스업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을 실현하고 있는 산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갈수록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기후와 특정 작물의 카르텔 등으로 세계 작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쌀 밀 콩 옥수수 등 주식 작물과 몇몇 특수농산물들은 부르는 게 값인 시대에 농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보국(保國)의 기틀이 되고 있다. 두부 공장을 창업했던故 김구원의 소원이 백성을 구원하자는 구휼(救恤) 정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구원 두부박물관’이 정식으로 세워질 날을 고대해 본다.

김포 고촌읍의 또 다른 맛 장인

<김구원선생두부> 본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풍곡리에 <고가(古家)>라는 종가음식점이 있다. 황해도 배천 조씨 휴재공파 33대 종부(宗婦)인 김현숙 씨가 대표이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1999년 100년이 넘는 종가에 한식점을 차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음식솜씨로 한식의 세계화에 도전했다. 직접 담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으로 발효 음식에 집중한 결과, 100여 가지의 식초와 청(淸), 장아찌는 물론 토종치즈, 생태식혜, 서대껍질묵, 웅어강정 등의 메뉴를 개발했다. 2007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해온 ‘농가맛집’에 선정되어 건강에 좋은 향토 음식과 농촌 문화 체험에 앞장서고 있다. 고촌읍의 맛을 대표하는 이 두 곳의 강점은 신토불이 우리 전통음식의 재현을 실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큰 박수를 보내며 더욱 분발하여 K-food의 선봉장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것이 가장 ‘우리다운’ 것이다.

김구원선생두부 본점

위치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전화 031-985-7727

영업 11:00~22:00 (연중 무휴)

메뉴 순두부 6종 9,000 / 낙지짜박이, 삼겹짜박이 각 13,000 /
두부보쌈 30,000~50,000 / 해물낙지전골 38,000~58,000 외

종가한식점-고가

위치 경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30

전화 031-986-5459

영업 12:00~22:00 (연중 무휴)

메뉴 한정식(25,000/35,000/55,000/75,000/90,000원)

글 신완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알아야 제 맛인 우리 먹거리>,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INFORMATION & NEWS

고고소식

조선시대 온돌의 발견! - 평택 화양리 유적

문화유적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 이름이 이름이 아니다.

경기학 책 소개

『경기지명총람-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조선시대 온돌의 발견!

- 평택 화양리 유적 -

박경신

평택시는 삼한시대 연달부곡(淵達部曲),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부산현(釜山縣), 신라 경덕왕 때에는 진위현(振威縣)으로 불리웠다. 평택을 가로지르는 안성천이 북쪽으로 지천을 형성하는 것이 진위천인 점을 감안할 때 '진위'라는 명칭은 삼국시대까지 그 연원이 올라간다고 보겠다. 평택의 명칭은 고려시대 평택현의 이름으로 전한다. 이렇게 볼 때 평택이라는 명칭보다는 진위라는 명칭이 평택에 어울리는 지명이라 하겠다. 평택시는 1938년 9월 27일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하면서 처음으로 군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1986년 11월 13일에는 평택군이 평택시로 승격된다. 따라서 역사 전통이 그리 오래된 도시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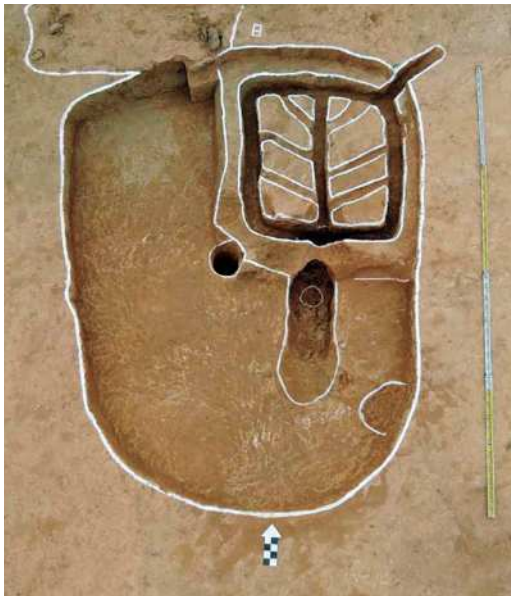
오늘 살펴볼 평택 화양리 유적은 평택시의 남서쪽 서해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적으로 현덕면 화양리 일대에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평택 화양지구는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에야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총 개발 면적은 2,792,158㎡이며 19,650세대 51,353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군이 시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인 10만명의 절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대규모 사업이다.

화양리 유적의 시굴조사 면적은 905,686㎡로 한성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근 2년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면적은 총 68,344㎡로 2019년 1월 28일부터 2021년 4월 17일까지 한성문화재연구원과 도원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집터 251동, 수혈 6기, 지상식건물터 1기, 도랑 9기, 무덤 3기와 원삼국시



평택 화양리 유적 조사 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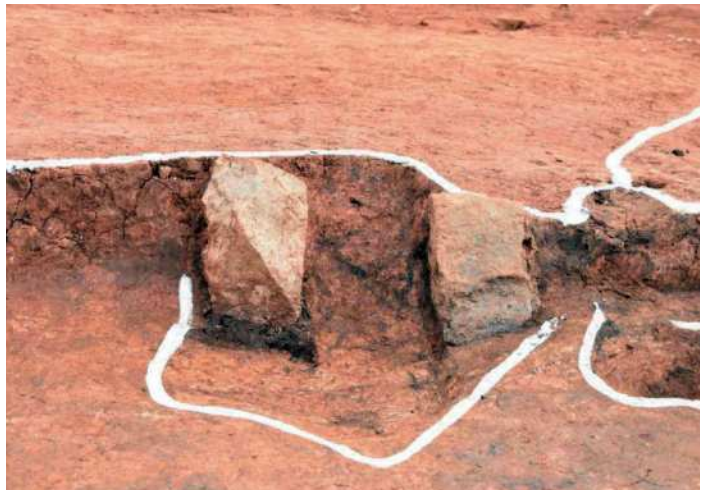
평택 화양리 조선시대 구들 집터

대 집터 6기, 수혈 3기, 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구는 집터 97동, 수혈 227기, 무덤 520기, 가마 8기, 소성유구 26기, 숯가마 1기, 도랑 4기, 건물터 2기 등 총 88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가 최근에 마무리되어 출토유물의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기는 어렵다.

평택 화양리 유적에서 발견된 유구들은 고고학적 학술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집터가 가장 눈에 띈다. 특히 집터는 구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집의 한쪽 모퉁이에 만들거나, 집의 절반에 시설한 것이 많았다. 구들의 구조는 아궁이에서 특별한 개자리 형식 없이 고래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구들의 구들골은 마치 나뭇잎과 같은 모양이거나 일자형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현대의 온돌은 돌이나 기와로 고래독을 세우고, 그 위에 구들장을 깔아서 만든 구조이다. 그런데 평택 화양리 유적의 구들은 생토를 파내서 구들골을 만든 형태로 현대의 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생토를 이용하여 구들골을 만드는 방식은 이

미 백제의 집터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다만 당시에는 짧은 형태의 것으로 조선시대의 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구들은 따뜻한 연기를 통과시켜 구들장을 데우는 원리로 난방을 한다. 그러나 불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과 재들이 함께 구들골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구들골 청소와 고래독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들골을 생토로 만들 경우 구들장에 의한 파괴와 구들골에 가라앉은 재들로 인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화양리 유적에서 발견된 구들은 보수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한편, 유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구들은 구들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다. 구들장은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집을 지을 때 재활용되기 때문에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고래독으로 사용한 돌들과 구들장을 빼낸 후에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양리 유적의 조선시대 집터 가운데 구들은 없지만 한쪽 벽면에 짧게 만든 부뚜막을 시설한 것이 함께 발견되었다. 다른 집터에 비해 열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이다. 아마도 임



평택 화양리 조선시대 구들 집터

시 생활용으로 사용된 집터로 추정된다. 이같이 평택 화양리 유적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놓았던 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온돌문화를 가진 유일한 나라이다. 이웃한 일본은 다다미[畳] 방을 사용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추운 지역에는 난로와 같은 폐치카(Pechka)를 사용한다. 동양은 공통적으로 공기를 데워 집을 훈훈하게 만드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보인다.

어린 시절 필자의 외가였던 화성에는 뜨끈한 온돌이 잘 깔려 있었다. 겨울이면 아침에 아랫목에 뚜껑을 덮은 밥사발을 넣어 두면 저녁까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친환경 보온밥술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늦그릇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함을 넘어 진한 향수로 느껴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온돌을 사용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우리나라만의 온돌을 상상하곤 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사유적에서는 아직까지 온돌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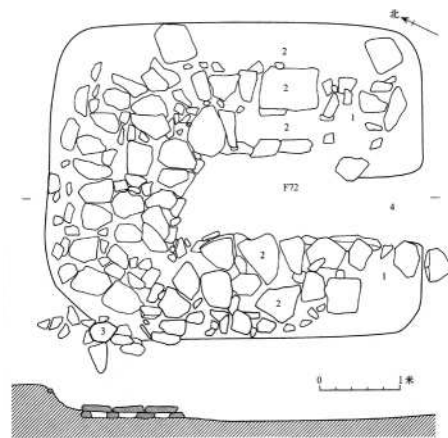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온돌의 시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원삼국시대 외줄구들이 있다. 지금의 온돌은 여러 골의 구들골이 나 있지만 외줄구들은 한 줄짜리 구들이었다. 혹자는 쪽구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외줄구들은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데 바 이칼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외줄구들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연기가 지나가는 구들골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아궁이와 구들골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중국식의 부뚜막과는 다른 구조였다. 외줄구들은 한반도의 동북쪽에 있었던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내려온 신진 문물이었다. 외줄구들이 남하한 이유는 기원후 2세기부터 3세기까지 매우 한랭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줄구들은 점토로 만든 것과 돌을 상자식으로 쌓아 만든 것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줄구들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사람이 누운다면 금세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한편, 온돌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것은 고구려로 알려져 있는데 기다란 구들[長坑]을 사용한 것으로 전한다.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마을 유적으로 알려진 랴오닝(遼寧)성의 오녀산성(五女山城)에서 많은 수의 구들 집터가 발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구들장을 깔은 구들이 한 줄 뿐만 아니라 두세 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방을 ‘ㄷ’자 모양으로 덮은 것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화구와 구들의 방향이 직각으로 꺾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리시의 아차산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보루성에서도 이같이 직각으로 불을 지피는 구조가 발견되고 있어서 고구려의 전통이 오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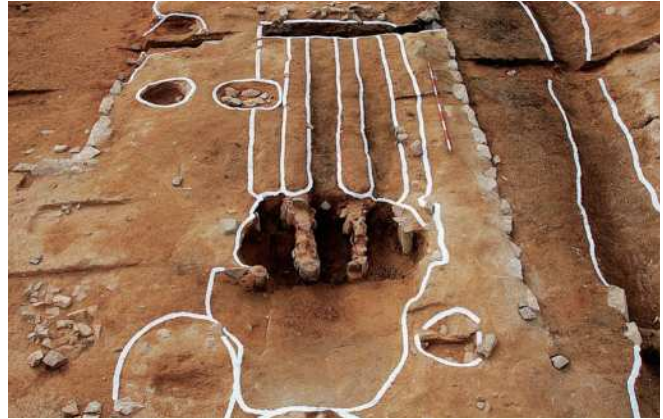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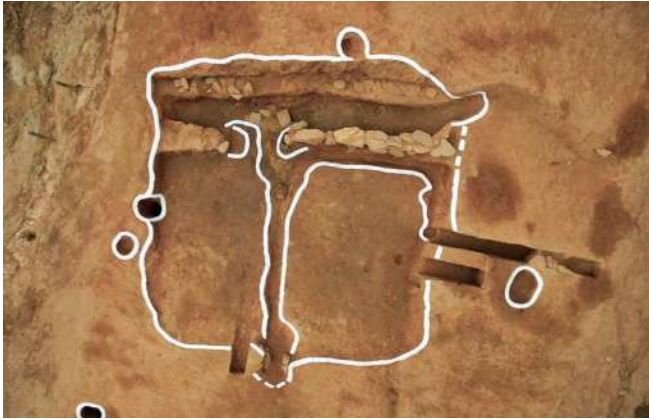
광주 곤지암리 원삼국시대 외줄구들



랴오닝성 오녀산성의 고구려 구들

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줄구들과 고구려의 구들 사이에는 모종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구려 구들이 직각으로 꺾여 있는 구조가 발해의 도성으로 알려진 상경 용천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발해의 종족적 근원지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T자형의 새로운 구들이 등장한다. 원삼국시대 외줄구들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구들 중간에서 불을 지피 양쪽으로 연기를 내보내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의 T자형 구들도 고래 구조가 빈약하여 그 위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점차 고래독을 돌로서 단단히 보강하고, 그 위에 넓은 돌을 덮어 마치 돌상자처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토를 파고 구들골을 만들어 고래독을 단단히 보강하는 구조로 발전한다. 결국 온돌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현재의 온돌과 같은 모습은 고려 중기부터 문헌에 전한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사례이고, 실제 온돌이 유행한 것은 조선시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대감집이나 관청에서만



파주 아당리 I 유적 25지점 2호 통일신라시대 집터(왼쪽), 24지점 건물터(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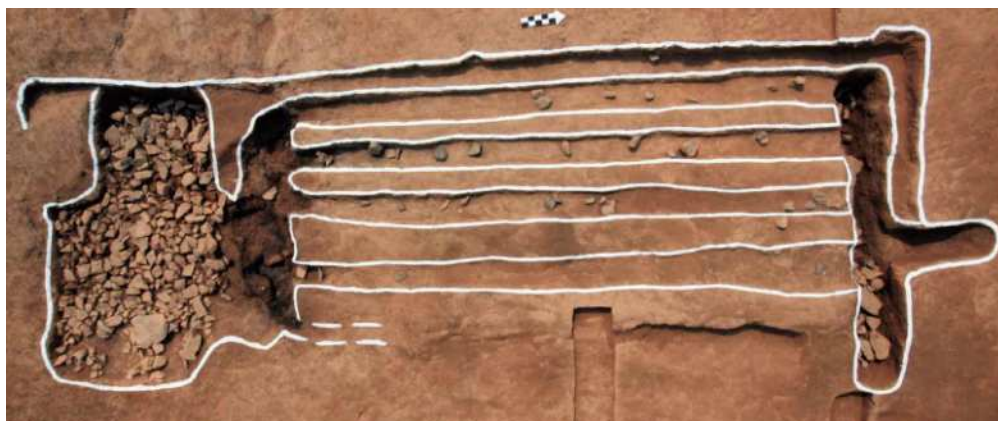
온돌을 사용하였다. 특히 절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이한 온돌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양주 회암사에서 발견된 온돌방으로 기와로 고래등을 만든 특이한 구조였다. 또한 돌침상과 같은 지상식의 온돌 구조도 발견되었는데 칠불암의 아자방(亞字房)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아자방은 온돌과 침상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서 다른 곳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적 제 128호 양주 회암사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까지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운영되던 국찰(國刹)이었다. 이에 걸맞게 중앙의 보광전을 둘러싼 외부의 건물들에 온돌이 잘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승방을 제외한 건물에는 온돌을 놓지 않는데 양주 회암사지에는 다수의 온돌방을 마련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마도 왕의 행차 시 함께 따라왔던 수많은 수행원이 쉴 수 있도록 온돌방을 많이 마련해 둔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을 지핀 아궁이의 형태가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함실(函室)아궁이 구조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함실아궁이의 특징은 불을 지피는 곳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 약간 경사진 구들골을 따라 연기가 지나가는 구조이다. 특히 불길의 잘 빠질 수 있도록 아궁이 바로 뒤에 부넝이라는 인위적인 턱을 만들어 놓는다. 부넝이는 대류현상에 따라 불길이 굴뚝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 구조물이다. 함실아궁이는 아궁이 자체가 낮은 곳에 위치하여 불길이 자연스럽게 굴뚝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 구조이다. 그리고 아궁이가 구들골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불길을 강하게 받는 아궁이 뒷면을 잘 다듬은 돌로 우물과 같이 둘러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에서 발견되는 함실아궁이 돌들은 표면이 별경게 익어 있는데, 당시 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같이 온돌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찰, 궁궐 등 기득권자에 국한된 사치 장소였다. 매우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라고 할까?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일반 가정에서도 널리 온돌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도 여러 채의 온돌 흔적이 발견되었다. 모두 하나의 아궁이



양주 회암사지 구들



인천 운서동 구들

에서 여러 개의 구들골로 나뉘지는 구조인데, 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고래독은 생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돌무지를 쌓아 만들었다. 아궁이라 해봐도 불품없이 파괴되었지만 드디어 민가에서도 온돌의 신문물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엌과 방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구들골이 곧고 길게 뻗어 있는 점에서 현대 온돌의 모습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또한 술걸이가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부엌 바닥은 잔자갈을 깔아 보강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낡은 온돌을 걷어내고, 연탄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해 방을 데우기 시작했다. 구조는 바닥에 보일러 물이 흐르는 호수를 깔아 방바닥을 데우는 구조다. 최근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온돌은 주기적으로 바닥을 들어내고 쌓여 있는 재를 걷어내야 하는 청소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열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보일러도 호수가 터지거나 막히면 호수를 교체해 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이같이 온돌문화는 부지런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난방시설이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에서는 추운 겨울 방을 훈훈하게 하여 추위를 피해왔다. 그러나 몸을 지지면서 온몸의 혈을 따뜻하게 자극해 주는 우리의 온돌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과 근면함은 아마도 온돌의 사용을 통해 이식된 온돌 DNA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끔 TV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의 시골 생활 프로그램을 보곤 한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에서만 생활했던 사람들이 시골에 적응하면서 겪는 좌충우돌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엇

보다 아쉬운 것은 모두 야외 화덕에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각종 발화도구를 사용해 아궁이에 불을 당기고 있다. 진정한 시골 라이프를 즐기려면 부뚜막의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고, 연신 눈물과 콧물을 훔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가끔은 연기를 마셔 목이 따가운 경험을 하는 것도 덤이겠지만 말이다. 불과 연기가 선사하는 향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필자도 아궁이 냄새를 기억하며,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품을 떠올려 본다. 이같이 온돌과 부뚜막은 우리 세대에게는 추억이자 그리움의 존재일 것이다.



문화류씨 운조루 종가 부엌(국립민속박물관)

글 박경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 이름이 이름이 아니다.

조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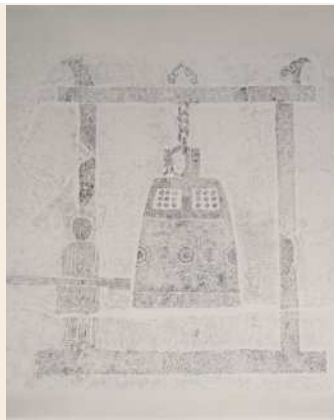
역사는 과거 수많은 이름들의 집합체다. 어쩌면 역사는 이름이 바뀌고 바뀌어 가는 과정의 연속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역사 속 이름들이 현재 그대로 전하지 않거나 잘못 전해진 경우도 많다. 오늘 살펴 볼 안양의 중초사와 안양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안양(安養)은 불교에서 극락정토를 말한다. 안양이란 지명도 안양사란 절 이름에서 유래했다. 전국에 ‘안양’이란 이름을 가진 사찰과 건물이 여럿 있다. 불국사의 극락전을 들어가는 문도 ‘안양문’이고 부석사 무량수전 앞의 누각 이름도 ‘안양루’다. 안양사터 동북쪽 산 아래 암벽에 종이 새겨져 있는 마애종이 있다. 한 스님이 종을 치는 모습이다. ‘안양’이란 이름에 걸맞게 마치 극락정토에 올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는 듯하다.

1. 안양사가 안양사가 아니다

안양의 안양사를 검색하면 주소가 만안구 석수동 242-3으로 나온다. 삼성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안양사에는 비석을 엮어놓았던 귀부도 남아있고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스님의 승탑도 남아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곳이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우고, 김부식이 쓴 비석이 남아있고, 고려 말 최영이 중창한 안양사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왕건이 세운 안양사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안양사에 딸린 부속 암자일 수는 있다. 그럼 안양사의 원래 위치는 어디일까. 산 아래 남서쪽 중초사터 당간지주가 서 있는 부근이 원 안양사이다.

중초사 당간지주 근처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곳을 발굴했더니 절터가 나오고 ‘안양사’라고 새긴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탑자리도 나왔는데 벽돌 탑이었다. 왕건이 세우고 최영이 중수한 탑도



스님이 종치고 있는 석수동 마애종. 사진 국가문화유산포털 석수동 마애종 탁본. 사진 안양박물관



삼성산 중턱 현 안양사. 사진 조경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7층의 벽돌 탑이었다. 안양사는 조선시대 폐사되었고 현 안양사는 고려시대 안양사와 관련된 스님의 승탑과 탑비가 있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곳에 건물을 세우고 안양사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안양사 터가 발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 안양사가 고려시대 안양사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보물이 보물이 아니다



삼성산 아래 원래 안양사터. 당간지주, 삼층석탑, 현재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국보 1호는 승례문이고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다. 국보나 보물에 번호를 매겨 구분하기 시작한 때는 일제저항기다. 물론 일제저항기 때는 보물만 있었다. 왜냐하면 국보 자격은 일본에게만 주어졌고 ‘조선’은 보물로 한정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물 1호가 승례문이고 보물 2호가 흥인지문이었다. 해방 이후 모든 보물은 일괄적으로 국보로 승격되었다. 승례문은 국보 1호, 흥인지문은 국보 2호 등으로 바뀌었다. 국보들은 나중에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오늘 날처럼 국보 1호 승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이 되었다.

안양의 중초사에도 일제저항기 지정된 보물이 있었다. 중초사 당간지주가 보물 6호였고 중초사 삼층석탑이 보물 7호였다. 참고로 보물 3,4,5호는 경성보신각종, 원각사지다층석탑, 원각사비였고 보물 8,9,10호는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개성첨성대, 개성남대문이다. 보물 1호~10호에 걸쳐있는 것들도 해방 이후 한 때 모두 국보 1호~10호로 되었다가 나중에 국보와 보물로 나뉘었고 어떤 것은 보물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중초사(中初寺)란 절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절이다. 당간지주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중초사’란 절 이름이 등장하여 중초사 당간지주라 부르고 바로 옆에 있는 탑을 중초사 삼층석탑이라 부르고 있다. 물론 절터로만 남아있다. 1934년 보물 6호였던 중초사 당간지주는 해방이후 국보 6호로 불리다가 1962년 보물 4호로 조정되었다. 현재 보물 1호는 흥인지문, 2호는 보신각종, 3호는 원각사비다. 중초사 당간지주가 처음 보물로 지정된 것은 당간지주에 글씨가 새겨있기 때문인 것 같다. ‘중초사’란 절 이름도 나오지만 신라 흥덕왕 때인 826년 돌을 잘라 827년 당간지주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연대와 황룡사의 향창화상 등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한 것 같다.

당간지주 옆에 서 있는 삼층석탑도 신라 탑으로 생각하고 1934년 중초사 보물 7호로 지정되었다. 해방 이후 국보 7호가 되었다가 보물 5호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중초사 삼층석탑은 1997년 보물에서 해제되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등급을 낮춰 재지정되었다. 중초사 삼층석탑이 보물에서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보물 5호는 결번인 상태다. 중초사 삼층석탑이 보물에서 해제된 것은 삼층석탑이 신라의 당간지주와 함께 세워진 탑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려시대 석탑이고 어쩌면 원래 이곳에 있던 탑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수도 있다. 탑도 완형이 아니다. 2층, 3층 몸돌도 빠져있다.

국보나 보물에 이상이 생겨 자격이 없어지면 보물 5호 중초사 삼층석탑처럼 결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보 1호는 예외였다. 국보 1호 승례문의 경우 불타서 다시 지었지만 과연



중초사 삼층석탑. 보물 5호에서 보물 지정이 해제되었다.

국보 1호의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도 결번처리되지 않았다. 국보 5호나 보물 5호가 결번처리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호’가 결번 처리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국보 1호 승례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신 1호, 2호 등 문화재 일련번호가 일제 때 만들어졌고 또 굳이 번호를 매겨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번호를 매기지 않고 국보 승례문, 보물 중초사 당간지주 등으로 부르기로 했다.

중초사 삼층석탑의 문화재 명칭은 보물 - 국보 - 보물 - 보물 해제의 과정을 거쳤다. 삼층석탑이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탑은 보물이었다가 보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삼층석탑의 또 다른 면이 발견된다면 다시 보물의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항상 진행 중이다.

3. 중초사가 중초사가 아니다

중초사란 절은 기록에 나오지 않는 절이다. 당간지주에 새겨져 있는 글씨에 ‘중초사’란 이름이 보여 중초사 당간지주라고 부르고 이곳에 중초사란 절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라 때 중초사가 고려시대 때 안양사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런데 해당 구절에 보이는 ‘중초사’가 절 이름이 아니라 새 견해가 나왔다.

‘寶曆二年歲次丙午八月朔六辛丑日中初寺東方僧岳---’
 ‘(보력이년세차병오팔월사육신축일중초사동방승약---)’
 ‘보력 2년 8월 6일 신축일 중초사 동쪽의 승약 ---’(일반 해석)
 ‘보력 2년 8월 6일 신축일에[중] 처음[초] 절[사]의 동쪽 승약 ---’(최연식 해석)

중초사(中初寺)의 ‘중초’는 절 이름에 쓰인 적이 없고 절 이름에 잘 쓰이지 않는 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의 문맥상 ‘中’은 우리말의 ‘~에’ 가깝고 ‘初’도 일이나 사건의 전개과정을 말할 때 ‘처음(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처음 당간지주의 명문을 해석할 때 ‘중초사’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 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4. 당간지주와 7층탑을 세운 이유

고려시대 때 절 이름도 안양사였지만 신라 때도 안양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모르지만 826년 흥덕왕 1

년 공사를 시작해서 827년 흥덕왕 2년 당간지주를 세웠다. 당간지주는 당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당간 끝에 깃발 등을 단다. 그런데 왜 이때 절에 새롭게 당간지주를 세웠을까.



안양사터 금당터. 옆 건물은 안양박물관. 사진 조경철

흥덕왕 때인 822년 신라에 큰 난리가 나서 나라 전체가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김헌창의 난이다.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계승 1순위임에도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신라의 9주 가운데 4주, 5경 가운데 3경이 김헌창 편을 들었다. 당간지주가 세워진 한주는 이때 헌덕왕 편이었다. 김헌창의 난은 제압되었지만 그의 아들 김범문이 825년 다시 난을 일으켰다. 이때 범문은 한주의 고달산[고달사]의 산적 수신과도 연결하여 평양에 도읍을 세우고자 하였다. 범문의 난도 진압되었지만 신라는 김헌창의 난, 김범문의 난으로 뒤숭숭한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한주 한강이남에 안양사 당간지주를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산 중턱 현 안양사 귀부. 사진 조경철

왕건은 왜 이곳에 다시 7층 탑을 세웠을까. 왕건이 막상 고려를 세웠지만 지방이 모두 호응한 것은 아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고려 말 학자 이승인의 <안양사증신기>에 따르면 왕건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지역을 정벌할 때 산 위에 이상한 기운이 있어 가보았더니 ‘능정’이란 스님이 있었고 그 스님과 함께 새로 안양사를 중수하고 7층 전탑을 세웠다고 한다. 왕건은 신라가 황룡사 9층탑을 세워 일통을 이뤘듯이 나도 개경에 7층탑을 세우고, 서경[평양]에 9층탑을 세워 삼한일가(三韓一家)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안양사의 7층탑 건립도 마찬가지로 왕건의 후삼국통일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산 중턱 현 안양사 승탑. 사진 조경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김부식이 쓴 비석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당간지주 부근 안양사터에서는 관련된 유물을 수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현 삼성산 안양사의 귀부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김부식이 썼다고 여겨지는 비석은 안양사터 7층 전탑에 대한 기념 비석으로 생각된다. 현 안양사 귀부와 그 옆에 있는 승탑은 고려시대 어느 고승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이오가 엮은 서첩인 <<대동금석서>>에는 ‘안양사7층탑명’이란 제목의 탁본 일부도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탑명을 쓴 사람은 김부식의 아우인 김부철(1079~1136)로 나와 있다. 김부철을 김부식의 잘못이라 보기도

하지만 <<대동금석서>의 해당 탁본은 정작 ‘안양사7층탑명’이 아니고 어느 고승의 비석 일부라고 보기도 한다. 결국 김부식이 지은 ‘안양사7층탑명’은 안양사터 7층 전탑 근처에 세워졌던 기념 비석이고 김부철이 지은 고려시대 12세기 전반 고승비는 현 삼성산 안양사에 남아있는 귀부이고 승탑도 그 고승의 승탑으로 보여진다.

안양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 시기는 무인정권기이다. 1217년 고종 4년 안양사를 비롯한 여러 절들이 최충헌 암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개경의 홍왕사, 홍운사, 경복사, 왕륜사 등과 지방의 광주[현 안양]의 안양사, 수주(현 군포)의 수리사다. 최충헌 암살이 실패한 이후 안양사도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 최영은 어렸을 때 무너진 7층탑에서 유숙한 것을 인연삼아 무너진 7층탑을 다시 세웠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7층탑을 세운 것처럼 최영도 무너져가는 고려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염원을 담아 무너진 7층탑을 중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안양사는 명맥을 유지하다 조선후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안양사 옛터라고 나온다.

눈앞에 보여 지는 삼성산의 현 안양사가 본래 안양사가 아니고, 중초사로 알고 있던 절도 중초사가 아니었고, 보물 5호였던 삼층석탑은 보물 5호에서 해제되었다.

제 이름을 찾는 게 역사다. 내가 요즘 찾고 있는 이름은 ‘후고려’다. 궁예가 세운 나라는 ‘고려’였기 때문에 ‘후고구려’가 아니고 ‘후고려’라고 해야 한다. 다음 찾아가는 절은 궁예와 관련된 절로 ‘고려’란 이름의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조경철, 2020, <안양 안양사>(조경철, 김선숙, 강문석, 이세호, <<신증동국여지승람 속 경기도의 고적 산천 사찰 역원>>, 경기문화재단)
최연식, 2021,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136

글 조경철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연세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인용지수 한국사 분야에서 2위를 했다. 어린이를 좋아해 2015년부터 군포문화나눔학교에서 박물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라이름역사연구소를 운영하며 통일한국의 나라이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저서로 <나만의 한국사> 등이 있고 ‘나만의 한국사 편지’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다.

책과 논문으로 경기도를 읽다

『경기지명총람-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채미하



들어가며

『경기지명총람-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는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공모사업(1차)’에 열린사회연구소와 (사)기원역사문화서포터즈가 공동으로 공모·선정되어,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경기지명 총람이다. 총 729쪽으로, 2020년 12월 20일에 발행된 본서는 12명의 필자가 저술한 16편의 글을 모은 것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지명을 시·군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평가하였다. 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경기도 행정구역의 형성과 변천’(1~9장)이고 두 번째 주제는 ‘경기도 행정지명의 정리·분석·고찰’(1~16장)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행정구역의 형성과 변천’

본서의 첫 번째 주제인 경기도 행정구역의 형성과 변천은 제1장(총설)에서 9장까지이다. 총설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을 시작으로,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논리’,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유형’,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과정’,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 ‘보도 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이다.

총설인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은 본서에 대한 평론이자 요약으로, 일제강점기 지명 왜곡의 배경과 문제점 및 한계를 언급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명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경기도 행정지명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밝혔다.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에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전체 317개군은 220개군으로 30%가, 4,322면은 2,525면으로 42% 줄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제의 실시는 외형적으로 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세금납부의 의무를 지게 한 것처럼 보이나, 징수된 세금은 일본인 거주지역의 수도·방수비 등으로 지출되어 조선인의 세 부담 가중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논리’에서는 1910~1930년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도·부·군·도(島)-읍·면·정(町)·동·리’의 단계로 구성된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제도는 도·부·읍·면을 법인으로 하여 법적 능력을 부여하였고 여기에 협의회와 평의회를 두었다가 다시 면을 제외하고는 도회·부회·읍회로 개편되었다. 일제는 이를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선전했으나, 제한된 민선제 외에 임명 형식의 ‘관선’제도 있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유산계급에만 제한함으로써 조선인을 차별하였다.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에서는 1895년 갑

오개척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경기도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과 28시 3군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선 후기 경기도의 38개 군현은 1895년(고종 32)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경기도는 한성부·인천부·개성부·충주부·공주부·춘천부 등으로 분리되었다가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경기도로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는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된 후 경기도에 편입되었고, 1914년에는 2부 20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1945년에는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었고, 1946년에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경기도는 휴전선 이남의 2시 19군을 관할하였고, 1981년에는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으며 1995년에는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는 28시 3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7개구, 37개읍, 103개면, 598개 법정동, 1,414개 법정리가 편제되어 있다.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유형’에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전후한 경기도 면 지명의 변천 및 유형을 합성지명, 유력 면 지명, 유력 동리 지명, 공유지명, 옛 지명, 새 지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중 합성 지명, 공유 지명, 옛 지명과 새 지명 명명은 통폐합되는 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력 면 지명과 동리 지명을 활용한 개명 과정에서는 일본 거류민이나 일제 식민지 권력 등과 같은 특정 사회적 주체에 의한 권력 관계가 작용했을 여지도 있었다.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과정’에서는 1917년 수원이 전국 41개 지정면 중 하나로 지정되고 1931년에 수원읍으로 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초기 경부선 개설과 함께 수원역이 개통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였다. 수원읍 관할구역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수원군 소속의 많은 지역이 수원읍으로 편입된 것은 1931년 수여선, 1937년 수인선의 개통과 관련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읍은 1931년 읍 승격 당시 12개 정이었던 것이 1936년 27개 정으로 확대되었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은 수원시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에서는 1914년 부·군·현 통폐합으로 서울의 남서부 일대 모두가 시흥군이 되었지만, 서울의 확장과 수도권 도시화로 시흥군은 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 등으로 분화되다가 1989년 군포시·의왕시·시흥시로 분화되면서 모든 지역이 도시화를 마치면서 시흥군은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보도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에서는 1960년대까지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보도는 정부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지만, 1980년대에는 초보적

숙의의 과정으로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나누었고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에 시민들이 득실과 명분을 따져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에서는 근대 초기 메이지시로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고찰하면서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이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했음을 입증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의 특징은 식민지 한국의 행정조직에도 그대로 관통되었고 해방 이후 한국의 행정조직 저변에 계급적 발상과 태도, 구조의 경직성, 할거주의 등 권위주의적 관리체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 행정지명의 정리·분석·고찰’

본서의 두 번째 주제인 ‘경기도 행정지명의 정리·분석·고찰’은 10장부터 16장까지이다. 10장 ‘일제강점기 상처 난 경기도 행정지명’을 비롯하여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현황’,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 ‘경기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이다.

‘일제강점기 상처 난 경기도 행정지명’에서는 경기도에서 일제강점기 왜곡과 굴절이 이루어진 행정지명은 대략 656개소로 합성지명은 읍면 단위가 47곳, 동리 단위가 483곳이며 생략지명은 62개소, 변경지명은 64개소라고 하였다. 이들 행정지명 개칭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은 경기도 마을 지명을 역사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유래를 밝혔다. 일제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마을 지명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한 39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간한 『경기문화유적지도』 I ~ III에서 마을 지명과 일치하는 유적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도촌(島村)은 섬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진보(鎭堡)에 속한 마을이라고 하였고 와촌은 기와를 굽던 곳이 아니라 기와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촌을 말한다고 하였다.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는 경기도 지명 중에서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자화 된 땅이름을 추출하여 그 참 뜻을 밝히고 그 유래를 밝혀 왜곡, 굴절된 경기도 행정지명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우리말을 한역하는 세가지 방법, 훈차·음차·훈음차 중 가장 원뜻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는 훈음차로, 큰 무덤을 뜻하는 ‘말무덤’을 ‘대묘(大墓)’ 또는 ‘대분(大墳)’으로 한역하지 않고 크다는 의미를 지닌 마분(馬墳)으로 한역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행정 지명에서 좋은 뜻을 지니고 교화적 상징이 담긴 송(松), 죽(竹), 백(柏), 매(梅), 이(梨) 등과 같은 식물명 한자를 비롯하여 마(馬), 장(獐), 응(鷹), 해(蟹), 수리 등과 같은 동물명 한자는 해당 지명의 속성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현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31개 시군과 17개구, 37개읍, 103개면, 598개 법정동, 1414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명과 현재 사용하는 지명들이 조선시대 고지도 중 『해동지도』·『조선지도』·『대동여지도』·『1872년 지방지도』에 기록된 고지명 현황을 살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의 읍·면·동·리 지명과 관련 있는 지명이 군현별로 중복된 지명을 제외하고 『해동지도』에는 159개, 『조선지도』에는 137개, 『대동여지도』에는 105개, 『1872년 지방지도』에는 457개의 지명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지도별로 전체 수록 지명이 117개로 가장 많은 파주시의 경우 면과 동리 지명을 중심으로 산천·장시·역원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은 경기도 금석문에서 경기도의 지명을 찾아 기존의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관련 항목에 덧붙인 것이다. 회천동(檜泉洞)·홍복산(弘福山)·고양시(高楊市)·벽제관(碧蹄館) 등을 포함하여 총 67항목을 소개하였다.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지명 개정의 원칙 및 광복 후 신문물의 본보기, 모범으로서 일본의 지명, 물명을 배워오거나 번안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명 개정의 좋은 예를 소개하였다. 맺음말에서는 지자체에 드리는 제언을 통해 전래 지명 데이터베이스 작성, 방위형·숫자형 지명을 삼가며 ‘일본어투 지명’ 및 비논리·무근거 안내판 청산, 길 이름(도로명)의 ‘○○로’를 ‘○○길’로 고칠 것을 제언하였다.

‘경기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에서는 경기도민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지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학술적으로 그 유래를 규명하였다. 경기지명 바로 알기는 경기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38개 항목이다. 이 중 경기의 기(畿)자를 쪼개보면 전(田)과 사(絲), 과(戈)로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경기라는 말에는 논밭과 의복, 그리고 무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경기지명 바로잡기는 가평 유명산을 시작으로 75항

목이다. 이 중 화성 서동탄역과 관련해서 화성시의 서동탄은 남부 경기지역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옛 지도나 『호구총서』 등에 역대로 삼미(三美)라고 불리던 곳이며 『조선지리지』의 동·리·촌명에 외삼미·내삼미가 있고 현재도 오산시에는 ‘내삼미동’이 있다. 따라서 서동탄역은 전통지명을 사용하여 삼미역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비친다.

나가며

본서는 경기도 지명연구를 바탕으로 경기지명총론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펼치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명 속의 일제잔재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명 왜곡의 배경 및 문제점과 한계를 살폈다. 그리고 현재 왜곡된 행정지명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였고(1장 총설) 행정당국이 왜곡되고 굴절된 행정지명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 방침도 집필하였다(16장 ‘경기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부록에서는 ‘경기도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땅이름’을 소개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서는 일제에 의해 왜곡·오염·굴절되고, 도로명 주소로 말살 위기에 처한 우리말 땅이름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문화자원으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글 재미하

경희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고대 국가제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례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고려·조선과 비교 연구하고 있다.

RESEARCH & STUDY

공간과 역사

기지촌 ; '더러운 그리움'의 공간

기전의 고문서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손돌을 보다

학예연구사 코너

학예연구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파주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

연구노트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磨崖鍾)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석각

논고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기지촌 ; ‘더러운 그리움’의 공간

양훈도

연풍리에서 길을 잃다

지난 9월말 파주 연천 답사 길에 파평면 ‘평화를 품은 집’에 들렀다. 제노사이드를 테마로 박물관도 꾸미고, 평화 관련 출판도 꾸준히 하는데다, 아담한 집을 몇 채 지어 뜻 맞는 이들이 함께 사는 곳이어서 예전에도 찾아가 본 적이 있다. 헌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월요일 휴관일이어서 문이 잠겨 있었다. 시간이 남으니 용주골이라는 델 한 번 둘러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내비게이션에 파주읍 연풍1리를 찍고 도착했으나 기지촌의 흔적을 도대체 찾을 수 없었다. 일행 세 명 모두 용주골이 초행이어서 대체 왜 이 거리가 그 유명했다는 용주골인지 땅땸도 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에게 물어본들 낯선 외지인에게 뭐 자랑이라고 구구절절 알려주겠는가.

하릴없이 배회하다가 이왕 온 김에 다리(연풍교) 건너 연풍2리도 가보거나 하자고 차를 돌렸다. 연풍1리 쪽은 미군이, 연풍2리 쪽은 한국군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풍월을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풍2리도 유곽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되돌아 나가려다 우연히 접어든 골목에서, 흥등을 밝힌 전형적인 윤락업소 몇 곳과 마주쳤다. 대낮인데도 영업 중인지라 민망해서 얼른 차를 돌려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미군 기지촌 용주골은 이미 50년 전에 사라진 곳이기 때문이다. 1971년 파주 문산의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겨 가면서 용주골 기지촌도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일부 업소가 남아 있다가 미군이 아니라 한국인 상대 업소로 변했다.

장파리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 정면.



정확히 말하면, 1980년대부터 ‘파주 용주골’로 전국에 알려진 연풍2리 지역은 원래 대추골이라 불렸다. 대추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대추골은 원래 기지촌 터가 아니다. 연풍1리에 있던 기지촌이 사라지고 윤락업소들이 옮겨온 지역인데, 그런 사실 알 리 없는 뜨내기 들이 입에 붙은 대로 용주골이라 부른 것이다. 용주골이라는 지명도 엄밀히 말하면 연풍4리 세경고등학교 (옛 파주공업고등학교) 부근, 용이 승천했다는 용지(龍池)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연풍1리 기지촌 자리와는 큰 상관없는 땅이름인 셈이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집도 몇 채 없는 연풍리 일대에 성매매 여성들이 하나들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군 부대들이 근방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변한 방도 없어 담요를 들고 다니며 미군을 상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휴전 직후 미 2사단 본부와 예하 부대들이 파주 일대에 주둔하게 되고, 1956년 연풍리에 미군 종합휴양시설(RCI)이 설치되면서, 연풍리 300번지 일대는 일약 미군의 ‘향락기지’로 변했다.

“또한 파주 지역 주둔 미군뿐 아니라 서부전선의 모든 미군들이 주말이면 몰려들었다. 하룻밤을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용주골을 찾는 미군 장교도 있었다. 그래서 건전지가 떨어졌다고 라디오를 쓰레기에 버릴 정도로 용주골은 흥청거렸다. 매일 아침마다 취객들이 흘린 달러를 줍기 위해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도 많았다.” (홍성철, 『유곽의 역사』, 2007, 페이지포드)

그 영화는 끝난 지 오래다. 내국인 상대 영업도 진작부터 내리막길을 탔고, 이제는 문을 닫기 직전이다. 그런 곳에 가서 기지촌의 흔적을 찾았으니, 소가 듣고 웃을까 겁난다. 그나마 파주 기지촌의 옛모습이 어느 정도 남은 곳은 파평면 장파리다.

장파리에 다시 찾아온 찬스

장파리에서 서쪽으로 임진강 건너 용산리 쪽에 1950년대부터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8연대 주둔기지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강 건너로 외박 외출을 나온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이 장파리 장마루촌에 형성됐다. 1960~1970년대 장파리는 클럽, 세탁소, 미용실, 다방 등 미군 상대 업종이 호황을 누렸다. 리에 불과한 마을에 미군 클럽만 무려 7개였고, 인구 2만~3만이 북적대는 소도시 수준이었다고 한다. 미군 상대 접객 여성만 2000명 정도 있었다.

‘메트로홀’, ‘럭키바’, ‘블루문홀’ 등 장파리에 있던 7개 미군클럽 가운데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곳은 ‘라스트 찬스’다. 장파리 도로를 따라 거닐어보면, 예전에 미군클럽이었겠다 싶은 건물이 몇 곳 보이지만, 현재는 상호와 용도가 바뀌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면, ‘라스트 찬스’는 독특한 외관이 원형에 가깝게 남아



미군과 여군. 클럽 ‘라스트 찬스’ 소장 사진.

있어 단박 구별된다.

‘라스트 찬스’라고 하는 이 미군홀은 장파리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꺾어지는 도래굽이에 있다. 거기서 직진하면 부대로 들어가는 다리다. 즉,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잔 하고 즐기는 곳이라는 뜻에서 ‘라스트 찬스’라는 상호가 지어졌다고 한다. 건물 정면의 브이(V)자 기둥과 출입구 상단의 모자이크가 지금도 세련돼 보인다. 내부 벽면도 여러 가지 릴리프로 장식해 놓았다.

‘라스트 찬스’는 공연무대도 갖추고 있는데, 조용필이 무명 시절 이곳에서 공연을 하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라스트 찬스’는 2021년 10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8호가 되었다. 경기도 등록문화재는 국가 등록문화재처럼 경기도의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문화유산으로서, 현재까지 총 11건이 지정되어 있다. ‘라스트 찬스’의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은 기지촌의 역사 또한 엄연한 경기도 현대사의 일부라고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장파리에 지금도 남아 있는 또 다른 기지촌 시절의 흔적은 옛 장파중학교 건물이다. 미군의 지원으로 건립한 학교라는 팻말과 벽화를 2018년 가을 답사 때 직접 확인했다. 이 학교는 정식 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는데, 1950~60년대 진학이 어려운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배움터 구실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답사 당시 버려진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임진강 건너에 주둔하던 미군이 1970년대에 철수하면서 장파리의 전성시대로 저물었다. 미군 클럽 ‘아가씨들’이 떠나가고, 하우스보이와 구두담이도 동두천으로 의정부로 옮겨갔다. 장파리 장마루촌은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영락한 기지촌의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라스트 찬스’를 중심으로, 장파중학교, 소라다방, 장파리방앗간, 천주교 장파리공소 등 몇몇 장소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면서 마을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옛 리비교 복원이 마무리되면, 기지촌 장파리의 이야기는 더 풍부해질 듯하다.

기지촌의 희로애락 파노라마

주한미군은 1971년 닉슨 독트린,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감축과 교체가 이뤄졌다. 파주의 제2사단은 동두천으로 옮겨갔다. 물론 동두천과 의정부에도 1950년대부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두천은 원래 7사단 주둔지였다가, 7사단이 본국으로 철수한 뒤 2사단이 들어왔다. 1960년대에 의정부 인구의 60%가 어떤 형태든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1970년대 교체와 감축을 거치면서 의정부와 동두천의 주한미군 의존도는 오히려 한층 높아졌다. 이때부터 동두천은 도시 전체가 기지촌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실 원래 기지촌이라는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없다. 기지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전쟁까지 겪은,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인지라 불법 탈법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성을 팔고, 미제를 빼돌리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기지촌은 부정적인 어감이 짙게 밴 멸칭으로 변했다.

동두천 기지촌 얘기를 하기 전에 동두천 출신들에게 1960~970년대 고향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먼저 들어보자. 다음 인용문은 김중미의 소설 <나의 동두천>에 나온다. <괘이부리말>의 작가 김중미는 아버지가 미군 군무원으로 취직했기에, 동두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동두천을 떠난 뒤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은 기지촌 골목이 아니었다. 동두천은 소담스러운 소읍의 풍경과 농촌의 정취가 살아 있는 곳이었다. 봄나물을 캐러 다니던 방죽골의 노란연둣빛 생강나무 꽃, 개나리 담장과 뒷한 진달래가 어지럽던 밤골, 송사리를 잡으며 빨래를 하던 큰 개울 신천, 아까시나무 향기에 취해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소요산 계곡과 사기리, 상패리의 황금벌판,

코스모스가 춤을 추던 평화로, 맥 감으러 한 시간씩 걸여갔던 모래내 개울...(중략)...내가 그리워했던 동두천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다.”

물론 <나의 동두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지촌 양색시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고, 소설의 분위기도 기지촌의 암울한 풍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게 맞을 듯하다. 기지촌 밖이라고 삶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고, 기지촌 안에도 희로애락 파노라마가 다 펼쳐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두천에서도 캠프 케이시(Camp Casey) 정문 앞 보산동이 양공주 밀집지역이었다. 한국전쟁 전 보산동 일대는 공동묘지가 있던 외곽에 불과했으나, 미군이 2만 명 가까이 주둔하면서 대형 기지촌이 형성됐다. 미군 내 인종갈등에 따라 북보산리는 흑인 병사 전용구역, 남보산리는 백인 전용으로 나뉘었다. 1960년대 동두천의 양색시는 7,000명이나 됐다. 미군이 감축되던 1977년에도 3,000명이 넘었다. 오히려 동두천 곳곳에 흩어져 있던 미군부대가 정비되면서, 미군 클럽들도 보산동 천연장 뒤쪽으로 모였다. 오늘날의 보산동외국인관광특구 일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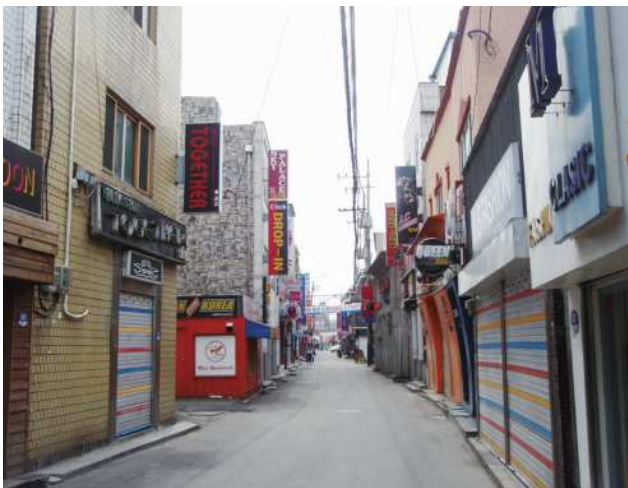
‘강아지도 100달러 지폐를 물고 다녔다’던 동두천 보산동 기지촌도 황혼을 맞은 지 오래다. 1980년대부터는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도에 오르면서, 기지촌 달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력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 보산동 기지촌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캠프 케이시는 여전히 반환이 미뤄지고 있으나 껍데기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 여성이 미군을 상대하던 골목은 러시아나 동남아에서 온 여성이 한국인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상대하는 클럽으로 바뀌었다. 200개가 넘는 각종 상점 가운데 약 3분의 1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일곱집매’에 가봐야 한다

경기 남부의 기지촌으로는 평택 송탄의 신장동과 평성의 안정리가 있다. 신장동 미군기지는 미군 비행중대가 1951년 비행장을 지으면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에는 660만㎡로 넓어졌다. 무려 13차례나 기지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K-55기지는 오산공군기지로도 불린다. 미군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평택 대신 오산을 가져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 매향리의 ‘고은리’가 ‘쿠니’로 변했듯이 말이다.

숫고개 신장동 기지촌은 황해도 피란민의 판잣집 마을이 발전하여 커졌는데, 전국 각지에 몰려든 양공주가 한창 때 3,000명까지 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송탄 주민 가운데 80%는 미군 관련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송탄은 K-55 미군뿐만 아니라 멀리 오기



동두천 보산지구 (2009년 3월)



장파리 재건중학교. 미군의 도움으로 지어졌다는 팻말이 아직 남아 있다.

나와, 꾀, 하와이에서도 비행기 타고 주말을 즐기러 오는 미군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평성 안정리의 캠프 험프리스(K-6)는 미군 해병대 항공대의 주둔으로 시작된 기지다. 원래 그 자리는 1940년대 초 일본 해군 시설대 302부대가 비행장을 만들던 곳이다. 일본군이 물러난 후 미군이 들어온 역사가 용산과 닮았다. 1964년 미8군사령부로부터 독립한 지원사령부가 되어, 유사시 작전 지원 본부가 되었고, 1996년에는 미 육군 제3지역지원사령부로 편제됐다. 이후 2004년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용산 기지를 비롯해 한강 이북 미군 병력을 이전 배치하는 중심기지가 되어, 미국의 세계 최대 미군기지(14.677 km²)로 커졌다. 그 과정에서 기지로 편입되는 대추리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했다.

안정리 옆 남산리 산적골은 1950년대 초가집 몇 채만 있던 한적한 시골이었으나 미군 기지가 들어오고, 1960년대에 인천 부평의 보급부대 미군들까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기지촌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1970년대에는 캠프 험프리스에 카투사 훈련소가 설치되고, 1976년부터는 팀스피리트 훈련 전진기지가 되면서, 산적골에 미군 클럽이 준비하게 들어섰다. 그러나 안정리 성매매업

소들은 한국정부와 미군의 강력한 단속으로 점차 시들해지다가 1980년대에 평택역 앞 사창가인 '삼리(쌍리)'로 흡수되고 말았다.

최근 안정리에 세계 최초 기지촌 여성평화박물관인 '일곱집매'가 개관했다.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가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평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고 한다. 소식만 듣고 아직 가보지 못한 '일곱집매'에 조만간 들러볼 예정이다. 기지촌 여성들의 삶의 편린들이 담은 공간과 아카이브를 접하면, 파주 용주골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글 양훈도

경인일보에 24년 간 재직했다. 기자 생활 그만두고 늦깎이로 북한학을 전공했으나, 기자 시절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지역 르포를 쓴 경험 덕분에 경기도 생활사에 관심이 많다. 근대문화 흔적들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고문서

박성호

수리산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린 군포시 속달동에는 동래정씨 동래군파의 선영과 종가가 조선 전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신에 오른 동래군 정난종의 불천위를 모신 동래군파 종가에는 오랜 세월 종가를 지켜온 사람들의 역사가 담긴 고문서 600여 점이 전래되었다. 어느덧 5백여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큰 종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속달동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가

속달동(速達洞)은 경기도 남서쪽에 큰 산세를 이룬 수리산 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부에 속했으나,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안산군, 수원군, 화성군의 관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군포시에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수리산 남쪽으로 흘러내린 속달동 산줄기에는 조선초 문신이자 공신(功臣)에 녹훈된 동래군(東萊君)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의 묘를 비롯하여 5백여 년 넘게 이어진 동래정씨 동래군파의 선영이 있고, 산 아래에는 동래군파 종가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속달동 동래정씨는 조선왕조의 공신으로 동래군에 봉해진 정난종의 후예다. 정난종은 진주목사를 지낸 정사(鄭賜)의 아들로 태어나 생원시, 진사시, 문과 등 연이은 과거시험 합격을 통해 출사한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였다. 1467년(세조 13)에 함길도에서 이시애의 난이 발생했을 때 병조참판 및 황해도관찰사로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성종이 즉위한 후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래군 정난종의 자손은 대대로 공신의 자손으로서 나라의 예우를 받았다.

정난종 — 광보 — 한룡 — 순우 ... 사급 — 언복 — 훈 — 한동 — 학목 — 규석
— 광필 — 규선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가 계보도

동래군 정난종과 같이 나라의 공신에 오른 인물은 사망한 후에도 불천위(不遷位)로 지정하여 그 위패를 사당에 영구히 모시도록 하였다. 속달동 동래정씨 종가는 바로 동래군 정난종의 불천위 신주를 모신 종가다. 이 종가는 조선 전기부터 속달동 묘소 아래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가에 전래된 고문서 가운데 조선 전기에 작성된 것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687년(숙종 13) 광주부에서 발급한 준호구(호구 상황을 기록하여 고을 관아에서 발급한 공문서)에서 “북방면(北方面) 제일리(第一里) 속달동(速達洞)”이라는 거주지 기록이 처음 확인된다. 이후에 발급된 조선 후기 광주부 준호구와 대한제국기 광주부 호적표 수십여 장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속달동 또는 속달리에 종가가 지속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687년 광주부 준호구(좌)-정지익, 1897년 광주부 호적표(우)-정학묵

교지첩에 담은 조상의 이력

조선시대 사람들은 ‘교지(敎旨)’를 왕의 말씀, 왕이 내려준 관직 임명문서로 이해했다. 다만, 문서에 국한하면, ‘교지’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고 통상 옥새라고 부르는 왕의 어보(御寶)가 찍힌 것을 가리킨다. 제도적으로는 4품 이상의 고위 관원 임명장(고신), 과거시험 합격증(홍패 및 백패), 왕명으로 노비 또는 토지를 하사한 증서(사패)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교지가 존재했지만, 민간에서는 대체로 교지라는 말을 왕이 내린 관직 임명장과 동일한 뜻으로 인식했다. 조선시대 관원의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처럼 일상 업무로 교지를 발급한 관청에서는 흔한 문서였을지 모르지만, 민간에서는 제대로 된 교지 한 장 발급받은 집안을 찾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가에는 종가의 선조들이 받은 교지를 차곡차곡 모아 세 권의 ‘교지첩(敎旨帖)’을 만들어 보존하였다. 첫 번째 교지첩에는 정순우(1509~1556)로부터 정사급(1717~1755)대에 받은 교지를, 두 번째 교지첩에는 정사급으로부터 정한동대에 받은 교지를, 세 번째 교지첩에는 승지를 지낸 정학묵이 받은 교지를 모아 두었다. 여기에는 정순우, 정상철, 정진원, 정지익, 정행인, 정필세, 정사급, 정언복, 정훈, 정한동, 정학묵에 이르는 역대 종손들의 성명이 기재된 관직 임명장이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온 동래군파 종가의 자긍심과 종가 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가 교지첩(정순우~정학묵)

종가의 대잇기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아들 계통으로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만 아들 계통으로 종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이르러 주자학적 종법 이해와 부계 위주의 동성 종중 의식이 강화되면서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파조(派祖), 입향조(入鄕祖) 등 의미를 부여할 만한 조상을 기점으로 동성 종족별로 크고 작은 종가가 형성되었고, 종가를 비롯한 개별 가계에서는 아들을 통한 대잇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봐도 혼인한 모든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들을 두지 못하는 경우 동성 종족 내에서 항렬에 맞게 양자를 들이는 풍속이 생겼고, 나라에서는 이를 법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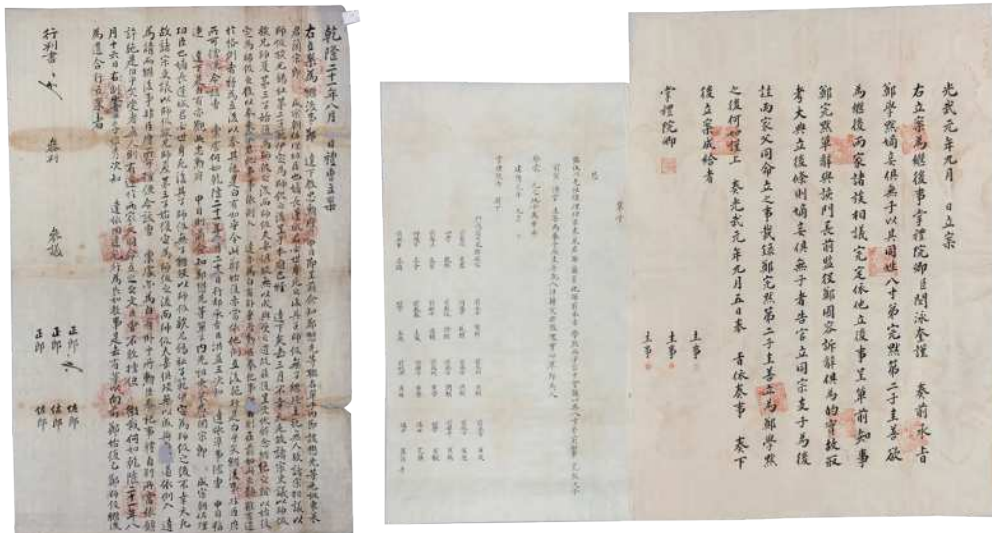
동래군과 종가에서도 정난종 이후 종통(宗統)을 잇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정난종 사후 종가에서는 다행히도 한동안 자손이 끊이지 않고 대가 이어졌으나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이르러 정사급 부부가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면서 종가의 제사가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종중에서는 정사급의 족형 정석지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들이기로 결정했으나 그가 요절하는 바람에 정사하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들여 종통을 잇도록 결정하여 나라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예조(禮曹)에서 발급한 양자 승인문서가 바로 아래의 <1756년(영조 32) 예조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정사급의 계후자로 정언복이 종통을 승계한 이후 안정적으로 종가가 유지되다가 승지 정학묵 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양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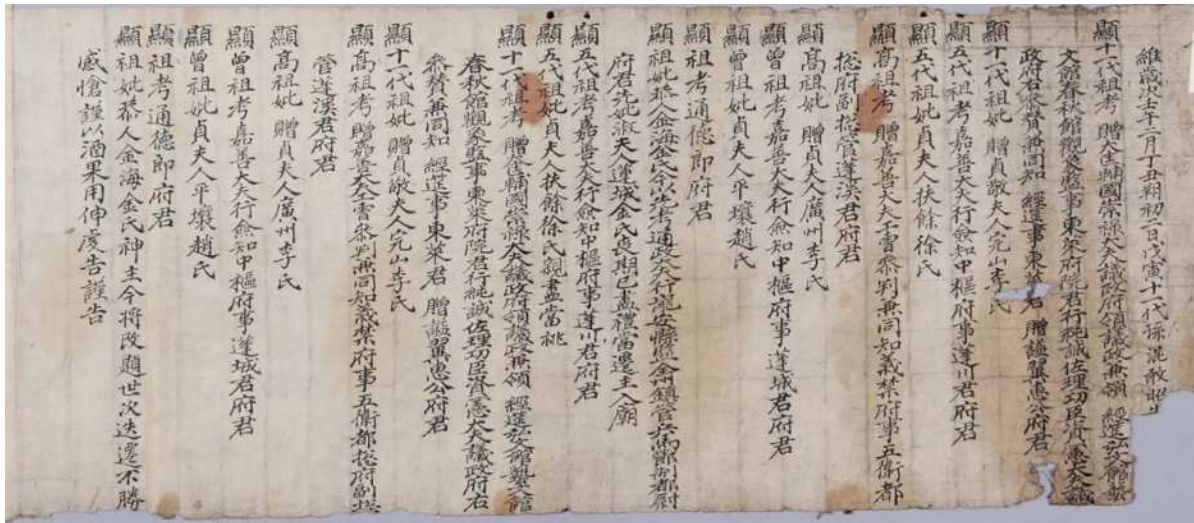
들여야 했다. 정학묵의 독자 정규석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종중에서는 중의를 모아 정학묵과 팔촌 관계인 정완묵의 둘째 아들 정규선을 계후자로 결정하였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 나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인문서가 아래의 1897년 대한제국 장예원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때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종중 내에 다소 간의 이견이 있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종중에서는 <종중 입의(宗中立議)> 문서를 별도로 작성했고, 지금까지 종가에 전해지고 있다.

동래군과 종가와 같이 불천위를 모신 명망 있는 종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특히 각종 유교 의례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했다. 관례와 혼례는 물론이거니와 상례와 제례를 중시했다. 여느 양반가와 달리 사당에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위한 위패 외에 영구히 모시는 불천위 위패를 모셨으니 연중 올려야 하는 제사 횟수도 더 많았고,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추가되었다.

마침 이러한 불천위 종가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축문이 남아 있다. 1822년(순조 22)에 정혼(鄭混, 1759-1835)이 아버지의 삼년상을 모두 마치고, 유교식 의례에 따라 거행한 길제(吉祭) 때의 축문(가로 3.6m 규모)이 그것이다. 길제는 유교의 상례 기일을 모두 마치고, 비로소 5대조의 위패를 사당 밖으로 내보내 땅에 영구히 묻고, 부모의 위패를 새롭게 사당에 자리 잡게 함과 동시에 새 종손과 종부가 조상들께 공식적으로 고유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옆의 문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어 새로운 종손이 된 정혼은 11대조 동래군 정난종의 신위를 비롯하여 이제 곧 사당에서 물러날 5대조 내외와 기타 고조, 증조, 조고 내외에 이르는 신위에 일일이 길제를 올리게 된



1756년 예조 계후입안(좌, 정사급-정언복), 1897년 대한제국 장예원 계후입안(우, 정학묵-정규선)



1822년 증가 길제 때 사용한 축문(앞부분 일부)

연유를 고하였다. 이제 이러한 길제의 풍속은 전국적으로도 일부 증가에서만 겨우 명맥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승지공 정학묵

정학묵(鄭學默, 1829~1903)은 동래군과 증가의 종손으로 태어나 1861년(철종 12)에 문과에 급제한 뒤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동래군과 증가의 종손들은 조선초 공신에 봉해진 정난종의 적장손(嫡長孫) 자격으로 대대로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물론 정학묵도 공신의 적장손으로서 음직을 통해 출사할 수 있었지만, 과거시험을 통해 자력으로 관직에 나아갔고, 문과 급제자로서 사헌부, 이조, 봉상시, 홍문관, 통례원, 돈녕부, 승정원 등 중앙 관서의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지방직으로는 덕원부사를 지냈다. 이런 정학묵의 관직 이력 가운데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명을 받들었던 승정원의 승지 이력을 들어 집안에서는 정학묵을 승지공(承旨公)이라 지칭하고 있다.

증가에는 이렇듯 조선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고위 관직에 오른 정학묵과 관계된 고문서가 많이 전해졌다. 1860년(철종 11)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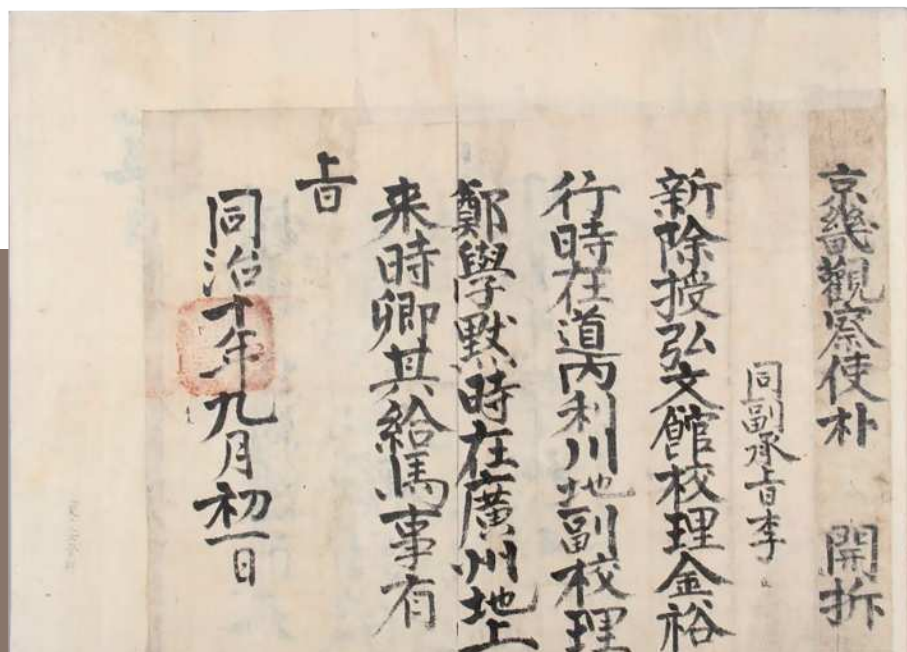


1860년 승정원의 직부전시첩(좌), 1861년 문과 급제 흥패(우)

유생들을 대상으로 왕이 춘당대에서 마련한 추도기(秋到記)라는 시험에서 강(講)으로 1등을 차지하여 곧바로 문과 시험의 최종시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직부전시첩(直赴殿試帖), 이를 근거로 이듬해 문과 전시에 나아가 제출한 답안지와 문과 급제 홍패, 관직생활 동안 받은 각종 임명문서, 광주부에서 받은 호구문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래정씨 동래군과 종가는 현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속달동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도시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 종가와 주변 부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였다. 이때 종가와 종중에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진 터전을 지키기 위해 종가를 비롯한 주변 토지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무상 기증

함으로써 개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에게 종가 유산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오백년 종가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871년 승정원에서 경기도관찰사에게 보낸 문서
(부교리에 임명된 정학묵을 광주 속달동에서 상경시키라는 내용)

글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고문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문서의 양식,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고, 최근에는 문서에 담긴 여러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의 인식과 관습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손돌을 보다

장장식

역사란 무엇인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다름 아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를 배경으로 한 손돌전설을 말하고자 함이다. 손돌은 음력 10월 20일에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이고 그의 넋을 위무하기 위해 매년 10월 20일마다 ‘주사 손돌공 진혼제(舟師孫公鎭魂祭)’를 지낸다. 전설의 영역에서 전승되어 온 사건이 경계를 벗어나 역사의 영역으로 편입된 사례이다. 마치 전설의 ‘傳(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 오는 통시간적(通時間的)인 존재로서 가치를 구현하며, 두루 공유하고 소통된 결과이다. 이처럼 손돌전설은 역사와 전설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있다.



덕포와 덕진 사이의 손돌목과 손돌묘(○).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구설(舊說)의 이름으로 오래도록 전하다

“고려 공민왕이 몽골 군대에 쫓겨서 섬으로 피난가게 되었다. 공민왕이 배를 탔을 때 손돌이 배를 몰았다. 갑진에서 출발하여 광성진에 이르렀는데, 바닷물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좌우가 모두 막혔으며 갈수록 날이 어두워져 마치 나아갈 길이 없는 것만 같았다. 왕이 화가 나서 ‘손돌이 나를 속여 위험한 곳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말하며, 목을 베어 죽이라고 명령했다. 뱃사람들이 강변에 그의 시체를 묻어 주고 그곳을 손돌목이라 했다.”

『여지도서』 「강화부지(江華府誌)」에 수록된 손돌목 유래담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고려 희종 또는 고종 때의 일이라 한다. 본문에서는 손돌의 고사를 ‘舊說(구설)’이라 했다. 구설(舊說)은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뜻하니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광성진 건너편 통진 근처의 강기슭에 ‘손돌총(孫玆塚)’이 있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공들이 반드시 제를 올리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손돌 이야기가 사실 같은 이야기에서 이미 사실의 이야기로 정착되었고,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이곳을 지나던 사공들이 무사항해를 위해 손돌에게 제사했다는 사실이다.

손돌바람과 손돌추위로 기억되고, 영험함으로 존재하다

『열양세시기』와 『동국세시기』는 손돌전설에 얽힌 민간의 세시풍속을 다른 시각에서 증언하고 있다. 『열양세시기』는 ‘세전(世傳)’이라는 표현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손돌로 인하여 바람이 많고 매섭게 춥다고 했다. 이른바 ‘그 때, 거기에서’ 벌어진 손돌의 죽음과 관련된 손돌풍을 기록함으로써 손돌을 기억하고 있다. 『동국세시기』 역시 시월 20일에 부는 춥고 큰 바람을 손돌풍이라 했고, 손돌의 원한에 찬 기운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했

다. 게다가 두 기록 모두는 ‘손돌항(孫石項)’이라는 공간과 시월 20일이라는 시간을 특정함으로써 시공간을 기반으로 한 동일 사건의 주지적 전승임을 분명히 했다.

손돌바람과 손돌추위가 오는 때는 절기상 소설(小雪) 즈음인데, 양력으로 11월 23~24일경이다. 옛 표현대로 “홀바지가 솜바지로 바뀌는 때”이니, 겨울준비를 마쳐야 할 때다. 동력이 발달하기 이전, 풍력과 사람의 힘만을 빌어 배를 몰았던 뱃사람들은 이때에 배 타기를 꺼렸다. 이것은 그 때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호사적인 관심이 아니다. 실제의 삶을 좌우하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대응방식이다. 『열양세시기』에서 “뱃사람들은 조심하고 삼가며 집에 있는 사람도 털옷을 준비하고 근신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돌의 무덤을 ‘손석총(孫石塚)’이라 명기한 첫 문헌은 『심도부지』(1783년, 김노진 찬)인데, 후대의 여러 문헌에 영향을 끼쳤다. 같은 뜻으로 ‘손돌총(孫堊塚)’이라 적은 것은 『여지도서』 「강화부지(江華府誌)」이다. 『강화지도』와 같은 몇몇 고지도에서도 ‘손돌총’을 뚜렷하게 표기했다. 모두가 손돌이 뱃사공 이름이라 했는데, 이는 실재 인물임을 가리키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사항해를 위해 간단하나마 술을 부었다[漉酒].¹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 양헌수(1816~1888) 장군의 『병인일기』이다.

1866년 9월 28일(음력), 프랑스 로즈 제독과 일전을 준비하던 순무천총 양헌수는 ‘손석총(孫石塚)’을 찾았다. 우리 군사는 통진부에 거점을 두고 적의 동태를 관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거한 채 조선군을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야말로 돌파구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전황인데, 양헌수는 덕포진 점검차 손석총을 찾은 것이다.

양헌수는 손석총에서 “손(孫)께서 과연 영험하다면² 충분(忠憤)이 만고에 뻗칠 터이니 이곳을 지나가는 적선을 전복시키기를 마치 문수산성에서 안개를 피워 군사를 보호한 것처럼 하소서.”라고 빌었다. 그리고 “혹 왕령(王靈)에 의지하여 이 몸을 강화 땅 한구석에 바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기도와 맹세를 마친 그는 손석총 옆에 앉아서 갑곶강 너머 강화를 응시했고, 멀리서나마 처음으로 본 정족산성의 지세가 험조(險阻)하다는 말을 듣고 도하(渡河)하여 정족산성으로 들어갈 작전을 결정했으며, 결행 결과 음력 10월 3일에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여 이겼다. 서구 열강의 침략에 처한 근대사에서 ‘손석총’이 이처럼 등장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극적인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인 듯하다.³

이후에 등장하는 기록은 오형묵의 『지도군총쇄록』이다. 1895년 5월 9일, 오형묵은 손돌목을 지날 때 듣고본 ‘손돌묘(孫堊墓)’와 제사 관례’를 기록으로 남겼다. 주목하는 것은 손돌묘 뒤편에 신당(神堂)이 있다는 점과 ‘손돌신당의 당지기[堂直]’가 상행하는 배에 올라 전량(錢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일종의 통행세인데, 안전 운항을 보장해주는 손돌에 대한 폐백인 듯하다. 또 “백미 한 그릇과 술과 안주 및 백반 3상을 차리고 배 위에 상자대기(上字大旗)를 꽂고 뱃사공이 목욕을 한 후 북을 쳐서 받는다.”는 고례(古例)를 적었다. 상자기(上字旗)는 본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보장해주는 배서낭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그런데 이런 의례용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는 관행은 일종의 ‘북고사’이



주사 손돌공 진혼제(舟師孫公鎮魂祭) 제사 장면, 2003년 11월 13일 ©최호식



상자기(上字旗)를 게양한 배(김포), 2017 ©강성복

1 『기전영지(畿甸營誌)』 3권 「강화부지」(1895)는 ‘손석총’을 기록하고 지나가는 뱃사공이 술을 부는 관행을 적었다. 또 고재형의 『심도기행』(1906)에서도 “뱃사람 그곳을 가리키며 술 따르고 지나가네(舟人指点酌而過).”라고 읊었다.

2 양헌수가 쓴 또 다른 기록 『전투일기』(出戰日記)에서는 “과연 신께서 영험하다면(神果有靈)”으로 표현되었고, 이견창은 양헌수를 위한 묘지명에서 “그대가 영험하다면(爾果有靈)”으로 썼다.

3 양헌수의 손석총 참배는 김영수의 「양공시장(梁公諡狀)」과 후손 양주현의 「가장(家狀)」 및 이견창의 「묘지명」에 거듭 인용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도 하며,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수군진에게 알리는 행위이기도 했다.

오형목은 마포에서 지도(智島)까지 여행하는 도중 수군첨사진의 관할 해역에 들어설 때마다 치성을 드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때마다 적었다. 갑곶강의 손돌목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차례(아산만 인근의 풍도, 태안의 관장항, 서천의 마량진, 칠산바다의 비안도·지화도 해역, 무장 앞바다의 죽도, 청산도 앞바다의 칠산도)이다. 공적으로는 황당선(荒唐船, 외국 배)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선의 선박임을 수군에게 보고하고, 신앙적으로는 해당 해역의 신에게 봉헌 발원하는 것일 게다. 해역마다 반복되어 행했다는 것은 분명 연안항로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인(船人)의 행동 수칙임이 분명하다.

전설의 경계에서 탈경계화하다

일찍이 전 김포문화원장 김기송은 조선 말엽까지 지속되었던 손돌제사가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으며, 손돌총 앞에 사당으로 추정되는 두 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일리가 있는 이 주장은 문헌과 고지도의 기록에 기반하고, 현재의 공동 기억과 공유의 근거가 된다. 이를 시작으로 1970년 1월 21일 신안2리 마을총회에서 묘소 복원을 결의하고, 그해 4월 나흘 동안을 거쳐 복원공사를 마쳤다. 그리고 김포의 여러 기관과 단체 및 학생 등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의례를 봉행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김포문화원이 주관하는 ‘주사손돌공진혼제’로 정착되었다. 흔히 말하는 소통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와 공감에 있어야 하며, 특히 세대 간의 공감대가 지속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손돌제의 재활성화는 노력 이상의 가치를 얻은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과연 손돌은 인명(人名)인가, 지명(地名)인가 하는 점이다. 새삼스러운 논쟁은 아니니 간단히 짚어 본다.

흔히 말하는 손돌목은 ‘孫丕項(손석항)’(『여지도서』), ‘孫石項(손석항)’(『열양세시기』와 『임하필기』)으로 표기되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1861)에서 ‘丕(돌)’이나 ‘石(석)’ 대신에 ‘梁(량)’자를 넣은 ‘孫梁項(손량항)’으로 적었다. 『고려사절요』와 『용비어천가』 등에서는 ‘窄梁(작량)’이라 했다. 드물기는 하지만 『임하필기』에서는 ‘巽石項(손석항)’이라 했고, 『여지도서』 『강도부지』에서는 ‘巽渡項(손도항)’이라 했다. 손석항(巽石項)과 손도항(巽渡項)은 손돌목이 강화부의 남동쪽인 손방(巽方)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이는 풍수가의 현학적 해석이 더해진 결과이다.

손돌목의 표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손돌항(孫丕項)’, ‘손석항(孫石項)’, ‘손량항(孫梁項)’ 및 ‘작량(窄梁)’이다. ‘항(項)’이 ‘산수가

협하고 좁은 곳’을 가리키는 ‘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손돌항은 손돌의 목이고 손석항은 손석의 목이다. 손량항 역시 손돌을 뜻하는 손량과 결합시킨 손돌목의 표기이다. 이것이 인명이라 가정할 때 손돌목은 손돌의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이다. 이와는 달리 작량은 ‘손돌’의 의미를 담은 명칭[窄은 손이고



‘손돌총(孫丕塚)’ 표기 <강화지도>(75.0×122.0cm, 19c 후반, 국립중앙도서관)



‘손량항(孫梁項)’ 표기 <대동여지도>(1861년, 30.6×20.0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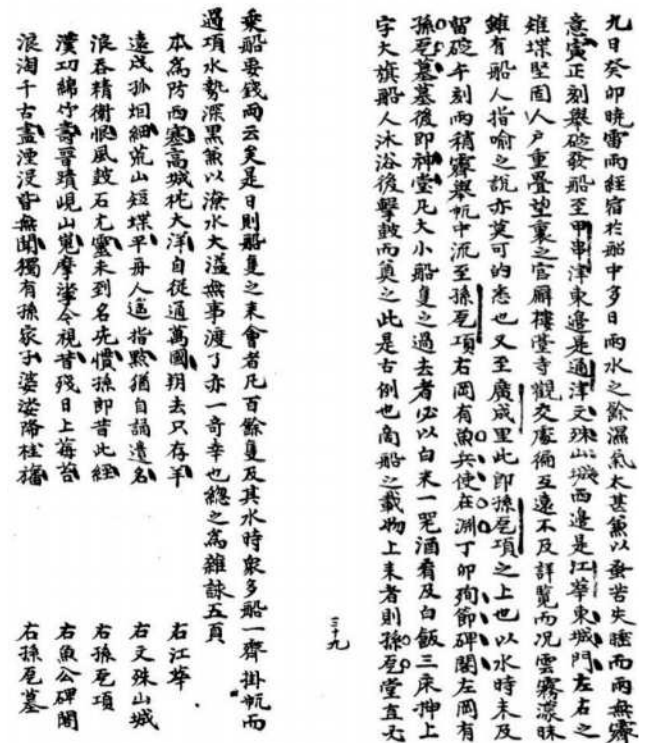
‘손돌총(孫丕塚)’ 표기 <강화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梁은 돌이다]이요 장소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지명이다. 명량이 ‘울+돌’인 것처럼 착량이 ‘손+돌’이고, ‘목’을 뜻하는 한자 ‘項’을 붙인 표기가 ‘손돌항(孫突項)’과 ‘손석항(孫石項)’ 및 ‘손량항(孫梁項)’이다.

이런 표현 방식을 군도목[軍都目]이라 하니,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음과 새김을 취하여 적는 방법이다.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 많이 쓰였다.

일찍이 김노진은 『심도부지』에서 손석항에 대해 “소용돌이치는 것이 빨라 물결이 부딪쳐 흘러 천혜의 험한 곳이다. 삼남의 선박이 이곳을 경유한다.”고 했다. 이처럼 손돌목은 세곡을 운반하는 삼남해로 가운데 난파 위험성이 큰 뱃길이었고, 실제로도 자주 난파했다.

이와 같은 해협이었기에 손돌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손돌이 비록 지명일지라도 상관없고 사공이라도 관계없다. 어쩌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혼을 상징하는 보통명사로 작동한 것일 게다. 그러므로 김포시와 김포문화원이 봉행하는 주사손돌공진혼제는 통시적으로 손돌목에서 조난당한 인물에 대한 위무이자 의례적 기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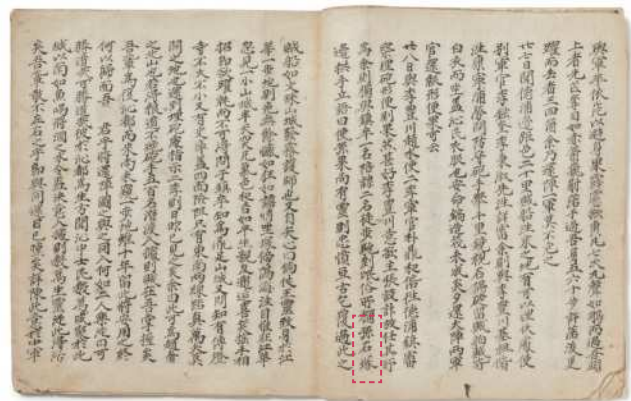


선인(船人)들의 손돌모 치성 목격담
(오형목, 『지도군총책목』 1896년 5월 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택된 사실은 역사가 된다

일찍이 에드워드 카(E. Carr)는 “수많은 사실 중에서 극소수의 선택된 사실만이 살아남아 역사의 사실(the facts of history)이 된다.”고 했다. 군왕의 파천과 뱃사공의 억울한 죽음을 다룬 사건이 비록 역사적 인물과 연대기에 어긋난다 해도 공통점으로 사공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역사적인 난파 사건과 선인(船人)의 죽음을 오버랩 시킨다면, ‘손돌’의 지명 여부를 시비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다. 오로지 진실이라고 믿고 실재했다는 이해가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선택된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강화해협은 뱃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조운을 위한 항해가 필요 없고, 선인의 치성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손돌제는 해마다 봉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손돌제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유와 소통의 상징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지역축제의 하나로 공인되어 재전통화되고 민속화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는 손돌제가 축적한 민속적 의미이자 현대적 전승 근거인 동시에 세대를 두고 이어질 지속의 순환구조이다.



손석총(孫石塚) 참배 기록(양현수, 『병인일기』 1866년 9월 28일, 전쟁기념관)

글 장장식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풍수설화의 연구>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문대학 객원교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을 역임하면서 고려대·경희대·단국대·동국대 대학원 등에서 민속학을 강의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및 한국과 몽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여 여러 편의 논문과 공편저를 출간하였다. 현재 김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학예연구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파주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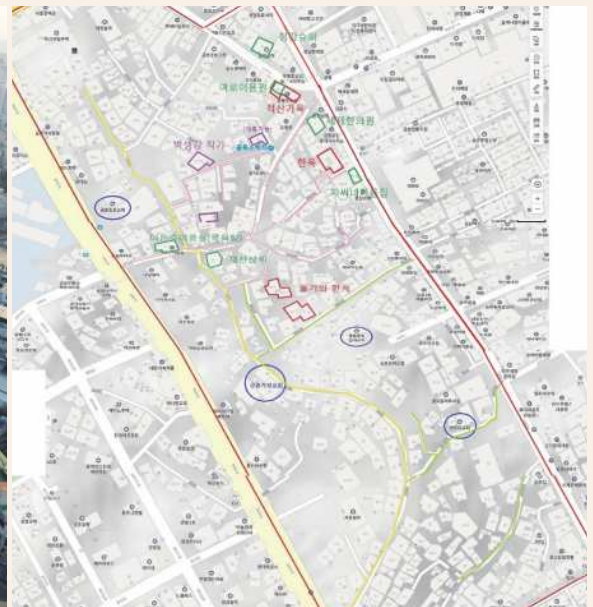
신민경

1. 금촌, 금촌 재개발지역

파주 금촌은 한국현대사의 질곡과 함께 부침을 거듭한 지역이다. 조그만 촌락에 불과하던 이 지역은 1906년 금촌역이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한국전쟁 이후 파주군청, 경찰서, 학교 등 주요 시설물이 금촌으로 이전하면서 파주의 행정 중심이 되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금촌에 정착하면서 피난민 정착촌이 형성되고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근대 도심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금촌에는 아직까지 1950~1970년대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울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이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몰려든 피난민들과 1960~70년대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통해 가장 먼저 형성된 도심 지역으로 금촌 달동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피난민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금촌 울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사업은 파주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수백 년을 이어져 온 길과 집을 전면 철거한 뒤 새로 짓는 방식으로, 기존 도시조직이 파괴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심의 기존모습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파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금촌 지역에는 울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새말지구 등 세 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촌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금촌 재개발지역 드론 촬영과 직접 만든 지도

2.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의 시작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지역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 지역은 약 20년 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던 곳으로 2000년대 초반 건설사에서 재개발을 시행한다고 하였다가 었어지고 다시 다른 건설사가 들어왔다가 무산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면서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처음부터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2019년 7월 중앙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이 조직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방호벽이나 배수펌프장, 다리 등 파주의 오랜 상징이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금촌 재개발지역도 그 중 하나였다.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사라지기 전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관련된 공공기록을 수집해서 남기는 정도였다.

금촌 재개발지역 현황파악을 위해 2019년 7월 처음 금촌 재개발지역 현장을 돌아보며 관련 자료를 훑어보던 중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을 중앙도서관 구술채록 자원봉사단체인 시민채록단과 함께 사진 촬영과 구술채록으로 진행해 보면 어떻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금촌 재개발지역은 중앙도서관과 인접한 지역이라 접근성이 좋았고, 총면적 약 100,000㎡(330여동 720가구)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지역이어서 구술채록집을 출간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채록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기록화사업을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15년차 학예연구사였던 나는 연구조사사업을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며 관리업무를 하던 것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여기에 지역의 기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기록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다. 전문가, 지역활동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민관협치 방식으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성장과정을 통해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이뤄보고 싶었다.

우선 금촌 재개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주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고,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조합장을 만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7년 발간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와 금촌마을 기록화사업 보고서, 파주군지, 파주시지 등을 통해 금촌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금촌의 토박이 어르신들 만나 금촌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을 파악한 후 기록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금촌 기록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기록

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시민과 함께 금촌 재개발지역의 기록을 담다

중앙도서관의 시민채록단은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양성된 구술채록자원봉사 동아리로 오랫동안 파주 토박이의 삶을 기록해왔고, 2019년 구술채록집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를 발간했다.지역에서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전문가 그룹이 아니었기에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을 위해서는 금촌 지역의 역사 개관을 비롯해서 마을조사 및 생활사 구술채록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집과 골목길의 사진 및 영상 촬영 또한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여 기록화 대상을 선정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채록단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학예연구사가 총괄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20년 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인지 각종 조사보고서(금촌마을 기록화사업, 경기도 건축자산 연구보고서 등)에는 금촌 달동네 또는 피난민마을로 간단하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일부 달동네가 있기도 하고 피난민 마을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를 단순히 그렇게 불러서는 안되는 곳이었다. 금정15, 17길의 (구)금촌세무서 뒤쪽의 옛 피난민 마을에는 미군원조를 받아 1950~60년대에 지어진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금촌 장로교회 주변으로는 소위 달동네라 불리는 좁은 오르막길에 오래된 옛집과 단단한 벽돌집이 함께 섞여 있기도 했지만 금정21길 안쪽 마을은 오래된 돌기와집이 남아있는 고풍스러운 정취의 마을로 이 길에 면해있는 집들은 꽤 규모가 있었다. 특히 1944년에 지어진 개성식 돌기와집은 도서관으로 오기 전 문화재업무를 13년을 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던 곳으로 처음 돌기와집을 봤을 때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세제한의원으로 올라가는 금정23길은 비교적 넓어 미용실, 문방구, 상회 등 상권이 발달되어 있었다. 금촌 재개발지역 내부는 지형에 순응하여 등고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길게 난 율목길과 경사지형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난 금정15, 17, 21, 23길로 구분되었고 바깥으로는 평화로, 새꽃로, 명동로, 금정로, 금정13길이 둘러싸고 있었다.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은 “시민채록단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 방식”을 모토로 삼고 학예연구사가 기록화 대상 선정과 방식을 총괄하고 시민채록단이 골목길 및 주요 살림집의 내외부 사진 촬영과 구술채록을 맡기로 했다. 시민채록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전문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드론과 영상촬영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했다. 모든 활동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화 과정을 담은 사진기록집 발간과 전시회 개

최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여러 번의 현장답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기록화대상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 지역에 형성된 살림집을 근대 도심 건축의 유형별로 하나씩 선정하고자 했다. 우선 1944년에 지어진 개성식 돌기와 한옥집과 금촌 최초의 이층집인 일본식 점포가옥을 각각 울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의 대표적인 살림집으로 일찌감치 선정했다. 6,70년대 살림집으로 근대 한옥집과 피난민마을에 정착한 집을, 8,90년대 살림집으로 초가지붕에서 함석지붕으로 바뀐 집과 박공지붕의 경관주택을 선정했다. 오래된 가게로 금촌 최초의 이발관 여로이용원과 백장미미용실, 70년된 지씨네 기름집과 쌀과 담배, 연탄을 팔며 지역의 상권을 장악했던 재선상회, 여성전용한증막을 겸했던 이은주미용실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과 구술채록뿐 아

니라 영상(드론) 촬영과 어반스케치를 시도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지도와 나무지도를 직접 만들었다. 금촌의 대표적인 근대 살림집인 돌기와집과 일본식 점포가옥은 실측 도면과 복원 도면을 작성해서 집을 지은 당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담았고, 돌기와집은 향후 복원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3D 스캔과 복원 영상 작업을 했다. 곧 사라지게 될 금촌 재개발지역과 돌기와집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개인 SNS에 금촌 재개발지역 골목길 투어를 제안하여 약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다녔다. 지역 주민 중 작가와 건축가를 섭외하여 기록화사업에 동참시키고, 파주에 소재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사라질 뻔한 금촌 돌기와집의 보존이라는 기적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지역주민이 하나 둘 모이면서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의 확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금촌 재개발지역 답사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채록단 회의



(1) 금촌 재개발지역 사람들 기록

금촌 재개발지역의 구술채록자는 다음과 같다.

- 개성에서 가져온 돌기와로 만든 집에서 78년을 살아온 유해균, 윤희순 부부
- 금촌 최초의 이층집이자 부모님이 운영하던 삼신상회의 추억이 깃든 일본식 점포가옥의 주인 이상억, 주분자 부부
- 초가지붕에서 함석지붕으로 집을 넓히고 키운 이순섭 씨
- 세제한의원을 지나 금촌교회를 오르는 골목길에 있는 경관주택의 송영옥 씨
- 한국전쟁 당시 장단에서 금촌으로 피난 나와 시작한 시부모님의 지씨네 가게를 이어받은 안정임 씨
- 여성전용한증막을 운영하며 1층 한옥집에서 3층 벽돌건물을 올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김채운 씨
- 4대째 중식당을 운영하며 금촌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사진을 제공해준 이덕강 씨
- 장단피난민으로 금촌에서 고된 피난민 시기를 겪어낸곽연섭 씨



구술채록

(2) 금촌 재개발지역의 집과 골목길 기록

금촌 재개발지역의 집과 골목길 기록은 지형에 순응한 골목길(울목길, 금정15, 17, 21, 23길)과 외곽으로 둘러싼 길(명동길, 금정로, 평화로, 새꽃로, 금정13길),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살림집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주요 살림집인 돌기와 집, 일본식 점포가옥, 근대한옥, 경관주택, 함석지붕집은 내외부 촬영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금촌 최초의 이발관(여로이용원), 울목지구 삼거리 상회(재선상회), 70년된 기름집(지씨네 기름집), 여성전용한증막(김은주 미용실) 등 주요 가게도 내외부 촬영을 마쳤다.





집과 골목길 촬영

(3) 금촌 재개발지역의 나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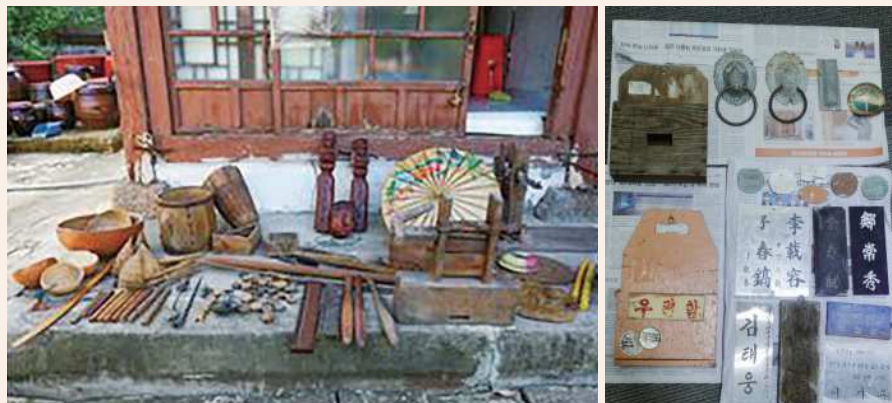
지난해 여름 시작한 금촌 재개발지역의 기록화사업이 가을과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지면서 사계절의 모습을 담았다. 꽃나무가 만발한 봄의 재개발지역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나무지도도 만들었다.



나무조사와 나무지도 작성

(4) 금촌 재개발지역의 살림살이·간판·명패 수집

금촌 재개발지역은 대다수 퇴거가 결정된 지역으로 오래된 살림살이와 명패 및 간판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금촌 돌기와집의 100년된 살림살이와 고서적 약 200여점을 비롯해서 마을주민으로부터 기록물 약 300여점을 기증받았다.



살림살이 기증자료와 명패수집자료

(5) 시민 대상 골목길 투어

사라지는 금촌 재개발지역이 아쉬워 직접 만든 금촌 재개발지역 지도를 가지고 골목길 투어를 진행하여 약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금촌 재개발지역을 답사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돌기와집을 보게 되었고 돌기와집의 희소성과 공간 구성 등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돌기와집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골목길 투어

(6) 기록의 확장_금촌 돌기와집의 보존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돌기와집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해체가 예정되어 있던 돌기와집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돌기와집의 복원도면과 3D 스캔 데이터를 작성했고, 직접 3월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금촌 재개발지역 골목길 투어를 시작해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한명이라도 더 돌기와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돌기와집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알려지게 되었고 파주시에 소재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돌기와집의 부재 이관을 검토 요청을 하면서 돌기와집의 보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지정문화재임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돌기와집을 보존하는데 뜻을 함께 한 재단은 금촌 돌기와집 부재를 수집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 파주시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돌기와집을 해체 이관하여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부재를 보관하고 향후 이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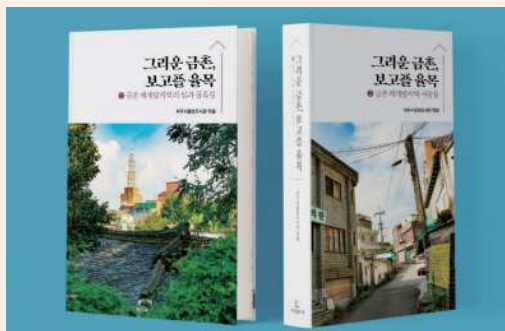


협약식

4.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의 성과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은 2020년 7월 시작하여 서른 번 이상 현장을 다니며 사계절의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고, 주민 10명의 구술채록을 담았다. 4번의 전문가 세미나와 5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골목길 투어를 비롯해 드론, 3D 스캔, 어반스케치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기록화과정의 경험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록화사업을 외주 용역이 아닌 관이 직접 기획 총괄하여 시민채록단, 마을주민, 전문가와 함께 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금촌 재개발지역의 사진과 주민의 구술 인터뷰로 시작한 기록화사업은 화보와 에세이로 구성된 『그리운 금촌, 보고픈 울목』 책자 발간과 『금촌 울목마을을 기억하다』 전시로 결실을 맺었다. 책과 전시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수십 번의 마을 답사를 통해 마을을 기록했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제는 사라질 금촌 울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의 집과 골목길의 사계절 모습과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 곳곳에 숨어있던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을 뒤로 하며 함께 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함께 한 사람들

중앙도서관(기획총괄) 신민경

시민채록단 강미경, 권영희, 김선희, 김숙례, 박근우, 정병규, 정숙희, 허경숙, 홍창섭

마을주민 윤희진, 박생강

구술자 유해균, 윤희순, 이상억, 주분자, 이순섭, 송영옥, 안정입, 김채운, 이덕강, 곽연섭

전문가세미나 남창근, 우지성, 윤희진, 최재원

영상촬영 김병수, 3D스캔 박현철, 실측도면작성 양영철, 양재형 복원도면과 영상제작 우지성

어반스케치 신영, 편집 천승희, 디자인 여현미

골목길투어 파주시민 50여명

글 신민경

예술학과 문화재학을 전공하고 파주시 학예연구사로 2006년부터 근무중이다. 문화예술과에서 13년간 해음원지, 덕진산성, 임진나루 등 문화재 조사연구 업무를 했고 중앙도서관에서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아카이브와 생활사 연구를 연구원 연구를 통한 지역학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磨崖鍾)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석각

이지원

1. 들어가며

살다보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피로함을 덜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면 좋을 듯한 곳이 안양 예술공원이다. 도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유산과 현대 조형물이 나즈막한 산책로를 따라 늘어져 있어, 자연 속의 문화와 동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내친김에 등반이라도 해야겠다는 각오가 선다면 그림처럼 펼쳐진 관악산과 삼성산 줄기를 따라 잘 닦인 등산로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하루 코스가 되겠다. 이 글은 삼성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수많은 이야기거리 중 석수동 마애종(磨崖鍾)과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석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마애종(磨崖鍾)이란?

안양시 석수동 예술공원 초입에는 고려시대 창건된 안양사지(安養寺址)와 근경에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석수동 마애종(磨崖鍾)이 저부조로 석각되어 있다. 마애종은 거북 형상을 하고있는 거대한 자연바위 아래에 암벽을 고르게 다듬은 후 두 개의 기둥과 이를 가로지른 종가(鐘架)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범종 옆에는 당목을 잡고있는 승려상을 저부조로 조각하여 마치 한 장의 스펀 사진을 묘사한 듯 보인다. 마애(磨崖)란 갈마(磨)자에 낭떠러지(崖)자를 써서 가파른 바위면을 갈아 만든 조형물을 지칭한다.

석수동 마애종의 가치...

일반적으로 불교미술품 가운데 바위면을 이용하여 조형을 새긴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불. 보살상을 새긴 경우는 삼국시대 600년경 조성된 태안(泰安)과 서산(瑞山) 마애삼존상이 유존하며,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불. 보살상 이외에 마애석각과 승려 또는 재가신자의 유골을 봉안한 마애묘(磨崖墓)가 조성되는 등 다양한 시각자료가 남아있다. 그러나 바위면에 범종을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 고려초기, ©이지원

새긴 경우는 안양시 석수동 안양박물관(安養寺址 일원) 근경에 위치한 마애종이 유일한 작례가 된다고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가치가 있다.

석수동 마애종의 조성시기는...

안타깝게도 마애종의 편년을 알 수 있는 명문이나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다. 다만 고려 태조 왕건이 한강 이남 지역을 평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10세기 초반에 안양사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마애종 역시 안양사가 운영되던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범종에 당좌가 4개 출현하는 시기는 11~12세기 경에 분포한다. 그 작례는 청령4년명 범종(1058년), 안수사 정사명 범종(1197년), 수원 용주사 범종(11세기), 일본 아키스키성지(秋月城址) 출토 범종, 키타큐슈시(九州市) 안료우 범종, 히로시마시(廣島市) 후토인(不動院)소장 범종, 미에현(三重縣) 츠시(津市)젠스이지(專修寺) 범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석수동 마애종에 새겨진 당좌 수도 4개 이기 때문에 편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공되어왔다.¹

석수동 마애종의 조영을 살펴보면...

범종은 사각형 종가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상대에는 음통(音筒)과 용두(龍頭)가 표현되어 있으며 중대에는 당좌(撞座)가 시문되어 있다. 당좌는 정면에 1개, 측면에는 반만 표현된 2개의 당좌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뒷면의 보이지 않는 당좌를 포함한 모두 4개의 당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범종을 걸고 있는 쇠사슬 위에는 화염형의 보아지 장식을 표현해 놓았다. 마치 야외에 설치된 종각의 모습을 한 폭의 조각으로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

쇠사슬로 연결된 범종과 향좌측에는 당좌를 쥐고 지긋하게 눈을 감고있는 승려의 온화한 모습을 새겨 놓았다. 당좌를 쥐고 있는 손의 부자연스러움과 발의 기형적인 표현은 다소 어색함을 주지만 범종과 들보와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 당시 조, 석 공양 예불을 위하여 28, 33천 도리천에 광명의 소리를 우렁차게 전달했을 법한 묘한 신비로움을 주는 부조상이다. 마애조각상의 현재 실측치를 개관해보면 용뉴를 포함한 종의 전체 높이는 126cm이며, 종신은 101cm, 승려상은 102cm이다. 비록 전체적인 조형으로 보아 왕실이나 귀족 계급에 의한 발원 불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이 상을 조각한 장인의 기교와 감각적인 예술성, 심미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석수동 마애종 탁본, 안양문화예술재단 소장

토속 신앙처로서의 마애종

마애종 위에 있는 거북 모양의 상서로운 바위는 우물과 함께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토속신앙 중 거북송배 사상과 불교적 요소인 마애종과의 관련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유. 불. 도교가 통합되는 문화적 혼재와 종교적 습합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불교의 토속화인지, 아니면 토속신앙이 불교에 흡수된 것인지 그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민중들의 마음속에 이곳은 성역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이른 새벽 깨끗한 물 한 그릇 떠서 마애종 앞에 놓고 가랑잎 같은 마른 손을 부비며 저마다의 소원들을 빌고 또 빌었을 우리네 부모님들의 소원처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마애종이 조성된 바위 앞에 서보면 안양 시내가 내려다보이며 햇살이 유독 많이 드는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다. 필자는 비록 마애종이 조성된 시기가 고려시대라고 할지라도 가장 세간의 관심과 신앙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었던 시기는 종교적 습합이 이루어졌던 조선시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마애종을 조성한 장인의 마음과 동화되어...

현대를 사는 우리도 ‘믿음’과 ‘소망’이라는 간절함의 단어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 비록 그 대상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영험함이 있는 신앙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석수동 마애종은 현재를 통하여 과거를 보는 기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그 가치와 장소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을 논한다.

석수동 마애종은 불교 범종처럼 소리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귀기울여 본다면 소리없는 강한 울림이 느껴질 것이다. 그 옛날 장인은 온누리에 범음이 울려 퍼지기를 바

¹ 이 내용은 『안양시사』(안양시청, 2002); 박동해, 『범종: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한길아트,2006); 최웅천, 『안양 석수동 마애종상의 조형과 편년』(미술사학회,2008)을 참조.

라는 간절한 마음을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 바위에 의도된 조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석수동 마애중은 장인의 기발한 창의력의 산물인 동시에 미술품을 감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는 독특한 조각상이다. 만약 온몸을 감싸는 기이한 평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겨울이 지나 새봄이 오는 2, 3월에 찾아오기를 추천한다. 석수동 마애중 앞에서 지상 최고의 평안함을 느껴보기 바란다.

삼성산 삼막사(三幕寺)에서 지운영이 새긴 삼귀자(三龜字)를 만나다.

삼막사에는 어떤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조선후기의 다양한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대중적인 면에서 우위(優位)의 입지를 다지고 신앙활동을 이어 왔다. 그 내면에는 불교문화가 더욱 강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무교와 도교가 조력자(助力者)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관악산(冠岳山) 아래 삼성산 삼막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자료(視覺資料)와 삼교(三敎: 무, 불, 도) 통합의 현상이 사역(寺域) 내에 분포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아온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날 사찰 내에 자리한 도교의 신이나 토속신을 섬기는 신앙행위 자체가 불교문화 속에서 하나로 어울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신앙 결속체가 되었다고 본다. 삼막사에 유존한 유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이 되었던 <남녀근석> 바위와 조선후기 칠성신앙과 관련이 있는 칠보전(七寶殿)에 모셔진 <마애삼존상>, <삼귀자> 석각, <산신각> 등을 통하여 삼교(三敎) 통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지운영과 백련암지

지운영(池雲英: 1852~1935)은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 화가이며 서울 낙원동(現 낙원상가 근처)에서 태어나 1935년 84세를 일기로 가회동 자택에서 사망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의 본관은 충주이며, 호는 설봉(雪峰), 백련(白蓮)이다.³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순탄한 초년을 보내다가 개화기 시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뜻하지 않게 마주한 시련은 그의 심신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다.

만년에 정치계를 떠나 시서화 예술 활동을 재개하면서 불교와 도교적 성향을 들어내는 활동이나 이러한 사상을 미술로 표현한 작품이 다수 전해온다. 그는 유.불.선에 능통하였으며

시.서.화 삼절로 불리어질 정도로 근대기 미술계를 대표하는 화가로 거론되었다.

지운영의 불교 관련 활동이 두각을 드러내는 시점은 지운영이 60세가 되던 해 (1911년) 관악산 밑 삼성산에 백련암을 짓고 시서화 활동을 이어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삼막사에 지운영과 관련된 흔적은 지운영이 직접 썼다고 전해지는 <명왕전> 현판과 삼막사 주불전에서 벗어나 오른편에 자리한 <백련암지>와 자연바위를 장방형으로 자른 후 각기 다른 형태의 거북을 표현한 <삼귀자> 석각을 통하여 그의 행적을 읽을 수 있다.

삼귀자(三龜字) 석각

지운영이 꿈에 관음보살을 친견 후 백련암(白蓮庵) 근처 바위에 수복과 장수, 길상의 의미를 담은 '거북 귀' 문자를 상형화하여 새긴 것으로 세간에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왜 지운영은 관음보살을 꿈속에서 친견 후 하필 거북을 연상했고 그 형상 역시 추상화된 문자로 표현을 했을까? 또한 '거북'과 '장수'의 관계 형성은 이루어 지지만 '관음'과 '장수'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귀자> 도상은 거북신앙으로 해석되는 민속신앙 외에 도교와 불교적 요소를 가미하여 완성된 수준 높은 예술성이 접목된 작품이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거북의 등, 배, 거북의 옆모습으로 이들 조형에는 도교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거북신앙과 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백련암지와 연못, ©이지원



삼귀자 전경, 전체크기 211x107cm ©이지원

2 본 글에서는 무교巫敎를 민속신앙民俗信仰, 토속신앙土俗信仰, 전통신앙傳統信仰, 민족신앙民族信仰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았으며 문장 흐름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지운영의 큰형은 학영(學永), 둘째형은 무영(無永), 동생은 의사이며 국어학자로 알려져 있는 석영(錫永)이다.

4 이 자료는 필자의 연구노트에 수록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다소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들어날 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며 많은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

<삼귀자> 석각의 조형분석과 삼교(무.불.도) 통합적 요소

<삼귀자> 석각의 조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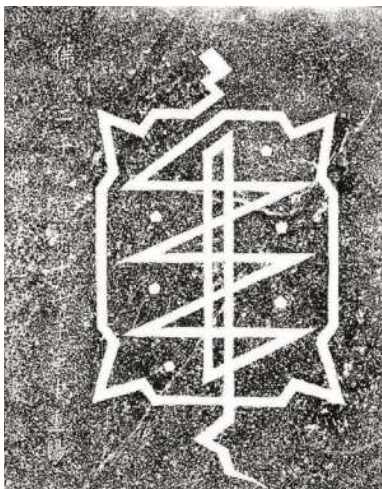
백련암지 오른쪽에 있는 나즈막한 바위에는 장방형(가로 211cm, 세로107cm)으로 정교한 치석을 한 후 왼쪽에는 거북의 등(갑의: 甲衣)과 가운데는 거북의 배(복부), 오른쪽에는 거북이 서 있는 옆모습을 격조 있게 새겨 놓았다. 왼쪽과 가운데의 조형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지만 오른쪽의 조형은 약간 작게 묘사하였다. 세 가지 도상 모두 상부에서 시작된 선을 따라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마지막 거북의 꼬리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⁵

좀 더 세부적인 조형을 살펴보면, 향 왼쪽 거북 도상은 거북의 등(背:딱딱한 갑의)으로 머리와 네 개의 발, 꼬리를 일획의 선으로 막힘없이 이어 새겼다. 윤곽선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꼬리에서 마무리된다. 또한 등에는 6개의 점을 찍어 상서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 점의 의미는 불교와 도교적 관점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가운데의 도상은 거북의 배를 표현한 것으로 먼저 거북의 배를 둥글게 그리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획의 선으로 내려 그었다. 다시 꼬리 부분에서 시작하여 둥근 선으로 율동감 있게 네 개의 발을 표현하였다. 딱딱한 거북의 등은 날렵한 선 처리로 표현한 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배는 둥근 곡선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절묘하게 극대화한 표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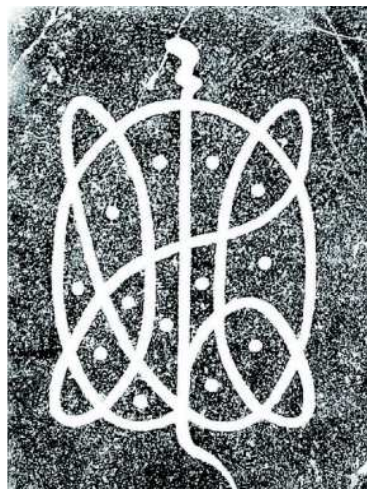
법이다. 역시 안쪽 배에도 13개의 상징화된 점이 찍혀져 있다. 거북의 배를 단순화한 이 도상은 마치 거북과 뱀이 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이나 『설문해자說文解字』의 기록에서도 뱀과 거북을 동기(同氣)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과 귀두(龜頭)와 사두(蛇頭)를 같은 맥락에서 풀이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뱀과 거북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운영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조형물을 새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 도상은 거북의 옆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서 시작하여 거북 허리를 따라 이어진 선은 등을 돌아 쪽 뺨은 네 개의 다리를 그린 후 꼬리에서 마무리된다. 거북 껍질 측면에 새겨진 점은 4개로 반대편의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면 모두 8개의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귀자>가 조각된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관음몽수장수영자觀音夢授長壽靈字’, ‘불기이천구백사십칠년경신중양 불제자 지운영경서佛記二千九百四十七年庚申重陽 佛弟子池雲英敬書’이라는 명문이 있다.⁶ 해석해 보면 ‘관음보살이 꿈에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신령한 글자를 주어 1920년 9월 9일 공경히 쓰다’로 풀이된다. 또한 <삼귀자> 석각 향우측 바위에는 정방형(가로 70cm×세로77cm)의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다.⁷



삼귀자 좌측 탁본 42×80cm



삼귀자 중앙 탁본 42×80cm



삼귀자 우측 탁본 42×80cm

5 <삼귀자> 석각은 도안된 종이를 대고 조각 도구를 이용하여 묘사하는 방식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본다.

6 필자가 현지조사를 갔을 때는 마모가 심하여 글자의 윤곽만 남아있는 상태로 육안 판독이 어려웠다. 그래서 1998년에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자료를 참조한다. 『안양 삼성산 불교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안양시.안양문화원,1998), p28.

7 「三龜字 石刻 施主」

光明眼 李貞淑 丙辰生朴氏 光明相 大覺心 金東淑 戊辰生李氏 光明功 이들 4명의 시주자는 모두 광명안, 광명상, 대각심, 광명조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는 재가신자들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교(무.불.도) 통합적 요소

무교적 요소

우리나라 거북신앙의 기원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와 반구대 암각화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이 또한 논증의 한계가 있어 고대국가에서의 거북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거북 자체를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토tem적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고대국가에서 인식한 거북신앙은 신성한 존재에서 영물적인 대상으로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점차 생활문화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북을 신성시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자.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수록된 내용,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태종춘추公太宗春秋公」편에 수록된 내용,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8, 「백제본기百濟本紀」의 내용에는 모두 거북이라는 매개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이나 인간이 기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숭배의 대상으로 신성시 여겨지고 있다.

고대국가 시기부터 이어진 거북신앙은 문화의 기틀이 다져지고 국가 체계가 정립되어서도 여전히 민중들의 관습 속에 장수와 기복의 대상이 되어 영물스러운 대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성성’과 ‘영험함’의 상징이었던 거북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고려시대 뿐만이 아니라 유교적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 사회 전역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간신앙에 흡수되어 나타날 때에는 장수와 다산, 기복을 바라는 사용처에 주로 상징화되어 도안화되거나 기물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어진 토속신앙은 근대기에 조성된 <삼귀자> 석각에서 그 일면을 읽어볼 수 있다. 지운영은 1911년 관악산에 입산하여 백련암을 짓고 불교와 관련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데 <삼귀자> 석각은 시주기의 기록을 통하여 1920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운영이 거북을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을 주는 매개체가 불교의 관음신앙을 통하여 민속신앙(거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지운영은 관음보살이 준 ‘장수長壽’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무의식 속에 잠재된 거북을 연상하였고 그 형상을 절묘한 기법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해 본다.

불교적 요소

지운영이 시서화 활동에 전념한 시기는 1920년을 기점으로 전개해 볼 수 있다. 지운영은 1870년대 후반 청계천 광고 부근에서 살았던 역관이나 의관, 기술직 중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육교시사의 동인으로 활약한다. 1880년대 초반에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주사직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갑신정변 후에는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면서 강제 압송되어 유배를 가기도 했다. 이후 1895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정치적 재기의 활로를 찾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그의 중년기의 정치적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사업적으로도 실패의 고배(苦杯)를 마셔야 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의 행보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심정으로 관악산으로 향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여러 정황상 속세를 떠나 은둔 자적하고 싶은 마음에서 찾은 곳이 부처의 도량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는 있다. 또한 관악산은 예부터 많은 문사들이 비경을 찾아 유량을 오고 싶어 하는 명산이었으며 관악산을 소재로 절경을 노래한 여러 편의 시가(詩歌)와 산문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운영 역시 관악산이 한양과 가깝고 시서화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만년은 1911년 관악산 아래 그의 호를 붙여 백련암을 짓고 다양한 장르의 시서화를 섭렵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오늘날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모방模倣, 전통傳統, 창조創造’라는 세 단어와 함께 지운영에 대한 평가는 근대미술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주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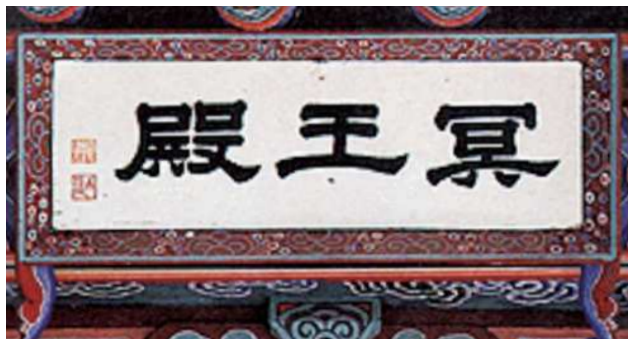
남아있는 다수의 작품 중 지운영이 공식적인 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상을 한 경력은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산인탁족도山人濯足圖>를 출품하여 입선한다.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들의 국적 차별문제에 격분하여 참가하지 않는 등 이후 공식적인 전람회에 따른 행보는 1927년 평양 평남 상품진열관에서 열린(1927.10/2~10/7) 전람회를 끝으로 전하는 바가 없다.⁸ 대부분 개인 소장으로 전해오는 작품 수를 헤아려 보면 도가적인 성향을 보이는 산수와 인물을 모사하여 지운영 본인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현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유작으로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회화작품은 부

8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미술 작품 공모전으로 약칭 ‘선전鮮展’이라 부르지만 ‘총독부전람회’로 속칭되어 불리었다. 『동아일보』1923.4.15일 기사에는 조선인 당선자와 일본인 당선자 상장에 심사위원 서명 차별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치를 떠나 예술 분야에까지 차별의 잣대를 적용한 것에 분노하여 차별 사건에 항의하는 미술가들의 모임이라는 타이틀로 『동아일보』1923.4.20. 기사에 실렸다. 그 중 수묵색화 부문에서 지운영, 조봉진, 김윤보, 고희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 1921년>와 직지사 화장암 소장 「달마상達磨像, 20세기초, 금성출판재단「서래진의西來眞儀, 1920년경」, 불교적 성향이 강한 소동파를 소재로 그린 「동파선생입국도東坡先生笠屐圖, 1922」 등이 있다. 섬세하고 고운 필치로 여성적 풍모를 자아내는 「관음보살도」는 현재 서울 중앙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에 2점이 남아있다. 화면 향우측 제발을 통하여 70세 노숙 백련 지운영이 심상현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 법 공양물로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⁹ 여기에서 지운영이 그림 소재로 선택한 관음보살은 그가 이 무렵 관음신앙에 심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한다. 이외 불교 관련 활동으로 사찰의 편액을 남겼는데 서울 경국사의 「보화루寶華樓」, 안양 삼막사의 「명왕전冥王殿」, 서울 봉은사의 「영산전靈山殿」에 글씨가 남아있다.

서울 경국사 관음전에 걸려있는 「보화루」 편액에는 ‘칠십팔옹 백련 지운영七十八翁 白蓮 池雲英’이라는 관지가 있어서 1929년(지운영 나이 78세)에 쓴 것을 알 수 있다. 안양 삼막사 「명왕전」 편액에도 좌측에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이라는 방인의 도서 2개가 찍혀있다. 편액을 쓴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삼막사에 들어와 활동한 시기를 감안할 때 적어도 70세 이후 썼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울 봉은사 「영산전」 편액에서는 그가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필법과 그의 독특한 서체로 재창조된 예술미를 느낄 수 있다.



안양 삼막사 명왕전 편액

지운영이 유명 사찰의 편액을 쓸 수 있게 된 인연은 일찍이 불교 잡지에 글을 게재하여 인지도를 넓혀 왔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과의 교유 관계가 두터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즉 지운영의 불교적 성향은 그의 나이 70세를 기점으로 두드러진 활동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승려의 비문과 고승의 진영에 찬을 남기

는 등의 폭넓은 활동에서도 그의 두터워진 불교적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외 지운영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은 1880년대 일본 東大寺(도다이지)의 비로자나 대불을 보고 남긴 시와 윤치호(尹致昊, 1865~1945)가 쓴 일기를 통해서도 방증된다. 일기 내용을 보면 동생 지석영이 지운영을 서산대사의 환생으로 믿고 있었다는 내용 및 윤치호가 1920년 백련암을 갔을 때 지운영이 관음보살도



觀音菩薩圖, 1921
천에 담채, 39.5×88.5cm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를 그려 놓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렸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지운영은 그가 여러 작품에서 스스로를 불제자로 칭하고 있어 불교에 심취한 재가신자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달마도」나 「관음보살도」, 「삼귀자 석각」과 같은 불교적 요소가 드러나는 작품 활동을 펼쳐간 것으로 보인다.

도교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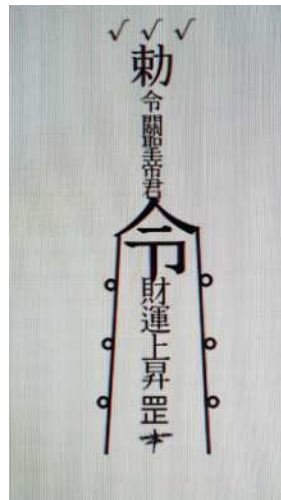
삼귀자 석각에는 향 왼쪽부터 일정한 크기의 둥근 점이 사선 방향으로 6개 찍혀있으며 가운데 도상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7개와 6개의 점이 찍혀있다. 점은 모두 13개로 안쪽 구획에 한 개씩 새겨 놓았다. 향 오른쪽에는 4개의 점이 보이지만 뒤쪽의 안 보이는 점까지 더 하면 모두 8개의 점이 되는 것이다. 점들을 모두 합하면 27개의 점이 된다. 지운영은 왜 각기 다른 거북의 형상과 일정한 크기의 점을 도상마다 다르게 표현했을까? 단지 간결하고 밋밋한 빈공간에 점을 찍어 완성도를 높인 미적 발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투영된 이면의 세계는 없었는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국복북두연명도액도장문國卜北斗延命度厄道場文」에서도 북두칠성을 부처의 화신으로 여겨, 북두칠성을 정성을 다해 믿으면 건강과 수명연장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미 고려시대부터 도교의 성수신앙을 통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9 관음보살도 위의 제발을 살펴보면 「月面吉祥觀世音 大慈功德大悲心 有人能法楊枝手 甘露滋成福海深 辛酉榴夏 臨吳道子古本于三聖山觀音殿 爲沈相現賢姪大雅法供養 七十老叔 白蓮池雲英 월면의 길상 관세음보살은 대자 공덕 대비심이니, 어떤 사람이 버들가지 쥔 손을 본받아 감로를 내려 복의 바다 깊이를 더했네. 신유년 초여름에 삼성산 관음전에서 오도자의 고분을 베껴 그려, 심상현 현질 대아를 위해 법공양 하다 70세 노숙 백련 지운영.



부적(符籙)의 구성,
아카식, 『비전 도교부적작법』



화륜(火輪)이 들어간 부적(符籙),
아카식 『비전 도교부적작법』



제진언집, 16~17세기 강원도유형문화재 151호

다. 또한 이러한 성수의 표현은 도교의 부적(符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의 구성을 이루는 부주칠법府籌七法은 부수符首, 부자符字, 부도符圖, 부신符神, 부서符誓, 부담符膽, 부각符脚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 중 부도에는 태극, 팔괘와 함께 복두칠성의 그림과 흡사한 화륜火輪(●,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륜은 천주天柱와 지주地柱가 소원을 보호하는 기둥 역할을 할 때 화륜을 덧붙임으로써 좀 더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주술 작법이다.

또한 화륜이 표현된 부적은 대부분 연수부적(延壽符籙)의 종류로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소원 주문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삼귀자에 적혀있는 점의 의미 역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도교 부적에서 파생된 방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여지는 지운영이 남긴 여러 서적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운영은 꿈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거나 달마를 만나는 등의 기이한 영험담과 그가 소장하고 있었던 문건 중 점술, 점성과 관련된 서적이 있었다는 것, 이외 꿈과 관련된 『몽사기夢事記』, 『몽사해夢事解』, 『신이기몽神異記夢』 등이 있었으며 낱장 형태의 『불가사의不可思議』와 같은 책을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삼귀자> 석각에 표현된 방점은 도교에서 파생된 성수의 의미가 도교 부적에 표현되어 화륜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구현한 예술품이라고 판단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도 안양 예술공원 초입에서 삼성산을 지나 관악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찰과 사지가 남아있어 과거 이곳이 얼마나 완숙한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바위를 이용한 마애석각은 시기를 달리하며 다양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 글에서 소개한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은 독특한 소재를 석각했다는 것에서 그 희귀성의 가치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산 삼막사 근경에 새겨놓은 <삼귀자> 석각은 독특한 조형미와 포괄적인 종교적 사상을 함축한 석조 미술이다.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에는 오늘 소개한 글 이외에도 마애삼존상, 마애묘, 남녀근석 등 바위를 대상으로 예술성과 종교성, 시대적 불교사상을 읽을 수 있는 조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목되는 장소로 평가된다.

글 이지원

용인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문화나눔보존회 운영, 경기도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입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및 불교미술사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0 부적(符首)은 가장 상단에 위치하여 태상노군太上老君, 원시천존元始天尊, 통천교주通天教主를 의미하는 도교의 삼청三清을 배치한다. 부자符字는 부적의 상단에 적는 문자로 봉칙奉勅, 기원祈願, 결구結句, 칙령勅令 등을 적는다. 부도符圖는 팔괘, 일원, 태극, 복두칠성, 십이지 등과 같은 도교 관련 그림이 들어간다. 부신符神은 문자 혹은 도형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도교의 옥황상제, 구천현녀, 관성제군의 명호가 들어가고 불교의 부처나 보살의 이름을 넣어 기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서符誓는 소원을 적는 부분이며 부담符膽은 육갑, 육정, 십이지, 오행 등의 기호가 들어간다.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¹

김성태

여는 글

이 글에서는 행정지명 중에서도 마을지명을 다루고자 한다. 전통시대 마을은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이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 수취를 위한 가장 기본행정단위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다.

이런 까닭에 자연지명과는 달리 마을지명에는 통치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마을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통치자는 그들의 입장에서 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입각하여 개별 마을에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식별하였다.

이처럼 마을지명에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고, 治者(치자)의 입장이 짙게 녹아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鐵場(철장), 磁器所(자기소), 陶器所(도기소), 樓亭(누정), 山城(산성), 驛(역), 烽火(봉화), 大堤(대제), 寺院(사원), 人物(인물), 津渡(진도), 王陵(왕능), 廟祠(묘사), 越境處(월경처) 등으로 편목을 나눈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서 除役村으로 읍내(邑內), 계방촌(契房村), 점촌(店村), 학궁촌(學宮村) 역촌(驛村), 원촌(院村), 사촌(寺村), 창촌(倉村), 외창(外倉), 궁전촌(宮田村), 둔전촌(屯田村), 포촌(浦村) 도촌(島村), 영촌(嶺村)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필자의 시각을 더욱 옹호해 준다.

이처럼 마을지명에는 역사성이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통마을에 대한 지명은 국어학자에 의한 음운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는 마을 주민의 제보를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주장이 그대로 정설로 굳어져 각종 지역학 관련 책자에 인용, 재인용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소홀했던 역사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마을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 역사성을 내포한 지명을 선

별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 책에는 일제에 의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마을지명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또 행정지명만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뽑은 지명들을 3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 정리하였는데, 이를 본문에서는 ‘1912년 관련 행정지명’이란 소절로 정리했다. 그런 다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기도박물관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간한 『경기문화유적지도』Ⅰ~Ⅲ에서 마을지명과 일치되는 유적을 소개하였다. 이를 본문에서는 ‘2000년 지명 일치 유적’이란 소절로 정리했다.

관아(官衙)

지명 : 아곡, 관동, 관+방위, 방위+문, 고읍, 읍내 등

전통시대 군현지도를 보면 읍치는 진산을 배후에 두고 왕권을 상징하는 客舍(객사), 守令(수령)의 집무·생활공간인 衙舍(동헌)와 內衙(내동), 고을 향민을 대표하는 鄉廳(향청), 지방통치의 종교적·이념적 역할을 하는 향교 안의 文廟(문묘), 공립중등교육기관인 鄉校(향교), 곡물저장을 위한 창고인 司倉(사창) 등이 중심을 이룬다. 또 주변으로는 토지의 신인 社(사)와 곡물의 신인 ‘稷(직)’을 제사지내는 社稷壇(사직단),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을 제사하는 城隍壇(성황당),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던 제단인 厲壇(여단) 등의 제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읍치소의 범위를 설정하고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邑城(읍성)을 두거나 진산에 군현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읍치소의 중심 건물이나 거리에는 선정을 베푼 수령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인 선정비군이 자리한다. 이에 ‘官衙(관아)’를 연상하는 ‘官(관)’, ‘衙(아)’, ‘館(관)’, 읍성의 존재를 보여주는 ‘門(문)’, 읍치소 자체를 나타내는 ‘읍’, ‘군’, ‘고읍’ 등이 포함된 지명의 경우는 읍치소가 자리했던 마을로 보아

¹ 이 글은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열린사회연구소 발행, 비천당, 2020)에 동일 논문명으로 수록한 것을 다시 실었다.

도 무방하다.

한편, 경기도에는 읍성유적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아래의 동문리, 홍문동, 남문리, 서문리, 관문리 등의 지명은 邑城(읍성)의 존재를 암시하기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참고로 용인 모현면에는 官廳里(관청리, 현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가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이곳에 살았던 西坡(서파) 柳僖(류희, 1773~1837)의 호가 ‘觀靑農夫(관청농부)’이다. 문헌기록 어디에도 모현면에 읍치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바, 상기 官廳里(관청리)는 觀靑里(관청리)의 미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미칭은 자기가 사는 마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민의 소박한 마음이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른지명세우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왜곡, 굴절된 지명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용인 현내면 衙谷(아곡), 이천 읍면 관후리, 양평 읍내리 官門(관문)리, 양평 군내면 官上(관상)리, 양평 남중면 동문리, 여주 주내면 弘門(홍문)동, 안성 거곡면 동문리, 진위 군내면 남문리·서문리, 수원 장주면 官村, 수원 남면 官洞(관동), 통진 군내면 古邑(고읍)리, 교하 아동면 아동리, 장단 동도면 古邑(고읍)리, 적성 동면 읍내리, 적성 동면 館洞(관동)리, 연천 군내면 읍내리, 마전 군내면 邑部(읍부)리, 과천 군내면 관문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과천 관아지, 富林軒址(부림현지), 穩穩舍(온온사), 선정비군(과천 관문동), 상적동관아지(성남 상적동 옛골), 처인성(용인 아곡리)

객사(客舍)

지명 : 객사동, 객산동

고려, 조선시대 관아를 구성하는 중심 건물은 동헌과 객사였다. 동헌은 관찰사·수령의 政廳(정청)으로서 지방의 일반행정 업무와 재판 등을 보는 곳이었다. 客館(객관)으로도 불리던 客舍(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殿牌(전패)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던 곳으로,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관찰사나 수령이 일을 보는 동헌보다 격이 높았으며, 관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教誨(교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객사는 읍치소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이고 일반적으로 동헌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객사가 있었던 마을은 군현에서 가장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평택 팽성읍 객사리에는 ‘팽성 객사’가 남아 있으며, 하남 客山(객산)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廣州客舍(광주객사)로 추정되는 하

남교산동건물지가 발굴되었다. 마을 지명으로는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객사마을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객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조선시대 ‘대로 중의대로’라 할 수 있는 의주대로의 길목에 있었던 碧蹄館(벽제관)이다. 중국 사신이 유숙하던 객사였는데,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정비된 상태이다. 이 벽제관은 아쉽게도 아직 건물은 복원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여 남한산성 내의 고 광주부 읍치에 자리했던 人和館(인화관)은 현재 복원된 상태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가평 군내면 客舍村(객사촌), 광주 동부면 客山洞(객산동), 적성 동면 객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하남 교산동 건물지, 彭城邑(팽성읍) 客舍(객사, 평택 객사리)

향교(鄕校)

지명 : 교촌, 교동, 구교동, 향교말, 향교리, 구교동

조선은 유교이념을 국시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등 교육기관인 향교를 세워 유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이들 향교는 한 고을마다 하나씩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인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었다. 향교는 반드시 관아와 객사가 있는 읍치소에 설치되었다. 지금 시군 단위 공립 중고등학교가 면소재지 혹은 군청소재지에 자리하는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현재 향교가 남아 있거나 향교에서 유래된 지명이 남아 있는 곳, 즉 교촌, 교동, 구교동, 향교말, 향교리, 구교동 등과 같이 ‘校(교)’가 들어간 지명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 군현의 치소였다고 보면 틀림없다. 한편, 읍내 혹은 구읍 같은 지명이 있는 곳에는 부근에 향교가 자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가평 군내면 향교리, 광주 동부면 校村(교촌), 광주 왕륜면 교동, 양지 읍내면 교동, 양평 군내면 교촌리, 양평 고읍면 교촌리, 여주 주내면 교동, 죽산 부일면 구교동, 죽산 부일면 교동, 안성 동리면 교동, 양성 군내면 교동, 진위 군내면 교촌, 과천 군내면 校洞(교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수원향교(수원 교동), 마전향교지(연천 마전리 향교말), 양근향교(양평 옥천리 교촌), 여주향교(여주 교리 향교말), 적성향교(파주 읍내),

구읍리 선정비군(파주 구읍리), 지평향교(양평 지평리 관교)

서원(書院)

지명 : 서원말, 서원마을, 서원촌

서원은 향교와 같은 중등교육기관이지만, 설립자가 국가가 아니라 특정 학파나 지방의 유림 또는 문중이었다. 그런 까닭에 향교와는 달리 읍치소에 자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신을 수련하고 조용히 공부하기에 적합한 곳, 즉 경관이 빼어난 장소에 주로 자리하였다.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서원에서 유래된 지명은 향교에 비하여 드문 편이다. 다만 서원의 이름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된 경우는 있는데, 석실서원에서 유래한 석실마을이 대표적이다. 한편, 드물게는 서원리를 줄여서 ‘院里’(원리)라고도 했다. 이는 ‘명고서원(明臯書院, 포저 조익과 아들 조복양, 손자 조지겸의 위패를 봉안)이 자리했던 현재 화성 매송면 원리(일제강점기 수원 매곡리 서원촌)가 대표적이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수원 매곡면 서원촌, 포천 가산면 서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석실서원지(남양주 덕소2리 석실마을), 深谷書院(심곡서원, 용인 상현리 서원말), 雲溪書院(운계서원, 양평 덕촌리 서원말), 행주서원지(고양 행주의동 서원촌)

창고(倉庫)

지명 : 社倉(사창)리, 司倉里(사창리), 貢稅(공세)리, 창촌, 창말, 창동리, 동창리, 현창리 등등

왕조국가가 성립된 삼국시대 이래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양곡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했다. 또 흉년을 대비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곡물창고도 필요했다.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운 상평창, 의창 등이 그런 제도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반드시 요청지에 자리했을 것이다.

역사상 창고는 크게 나누어 漕倉(조창, 또는 공세창), 司倉(사창), 社倉(사창)으로 나눌 수 있다. 조창은 전국 각 지방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납부한 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기 위해, 연해나 하천의 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국영 창고를 총칭한다. 司倉(사창)은 관아건물의 일부분으로, 군현에 필요한 곡식 등을 보관하는 관영 창고이다. 그리고 사창은 빈민 구휼을 목적

으로 지방의 촌락에 설치했던 곡물대여기관으로 민가 주도로 운영되었다.

촌락 단위에 설치된 것은 사창인데,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군현의 치소를 벗어난 곳의 창고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社倉(사창)일 가능성이 높고, 마을지명에서 흔히 확인되는 창말, 창촌, 창동 등은 社倉(사창) 또는 유사한 기능을 지닌 곡물창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명의 한자명이 司倉(사창)이거나 군현의 치소였던 곳에 위치한 마을의 지명에 ‘倉(창)’이 들어가면 일단 社倉(사창)이 아니라 司倉(사창)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社倉(사창)은 조선시대 鄉里(향리)에 설치된 빈민구휼을 위한 곡물 대여 공간을 말한다. 동일한 목적을 지닌 義倉(의창)이 나라에서 설치한 관설창고로서 관 주도적인 데에 비하여, 사창은 민간자치적 구호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창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866년(고종 3) 社倉節目(사창절목)을 마련하고 社還制(사환제)를 경기, 삼남, 해서 등 5도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사창 절목에 따르면, “사창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흙으로 지은 곳집(倉庫(창고))으로 각 면의 큰 동리 중 인가가 가장 밀집한 곳에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 『機長縣圖(기장현도)』에는 “海倉(해창) 및 司倉(사창)은 와가(瓦家)로 되어 있는 반면, 면 단위로 설치된 社倉(사창)은 모두 초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기장현도』에는 해창과 사창(司倉), 그리고 사창(社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사창(社倉)은 현청 내에 있었던 司倉(사창)과 달리 상북면, 하북면, 상서면, 동면, 읍내면, 남면 등 6개 면에 각각 편제되어 있다.“고 기록했다. (출처 : 『디지털부산문화대전』 ‘기장현 사창’). 이런 기장현의 사창을 참고할 때, 경기도의 군현에도 面(면) 단위로 司倉(사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선시대 사창 건물이 남아 있거나 그 터가 보존된 곳은 없고, 아래와 같이 4개 시군에 각 한 곳의 지명이 확인될 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漕倉(조창)〕 용인 기곡면 공세동, 여주 개군산면 공세리, 수원 貢鄉面(공향면) 창촌, 양지 주동면 공세동

〔司倉(사창)〕광주 동부면 上司倉洞(상사창동) 下司倉洞(하사창동), 양주 접동면 縣倉里(현창리), 용인 현내면 창동, 양주 구지면 東倉里(동창리)

〔社倉(사창)〕 양평 남면 사창리, 안성 입장면 社倉(사창)리, 수원 상흥면 社倉(사창), 파주 광탄면 社倉(사창)리

〔社倉(사창) 추정〕 양주 이담면 창동리, 양주 해동면 창동리, 광주 오폐면 창평리, 광주 왕륜면 창촌, 광주 서부면 창동, 양지

주동면 都倉(도창)리, 양지 고서면 창리, 양평 동종면 창대리, 양평 상동면 창촌리, 양평 상동면 舊倉(구창)리, 양평 남중면 창촌리, 양평 북하도면 창리, 여주 주내면 창동, 죽산 원삼면 창동, 죽산 근삼면 內倉(내창), 안성 구룡동면 창리, 수원 용북면 庫舍村(고사촌), 수원 정림면 창촌, 수원 양간면 舊倉(구창), 수원 서신리면 舊沒倉(구몰창), 수원 안외면 창촌, 수원 언북면 倉內(창내), 파주 칠정면 倉內(창내)

역원(驛院)

지명 : 역촌, 역말, 역동, 원터, 원기, 관곡, 신원, ○○원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곳을 역이라 하고,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을 원이라 했다. 역과 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흔히 驛院(역원)이라 일컬었다.

이런 역원에는 인간과 물자가 경유하기에 자연히 취락이 발달하였는데, 이런 취락을 역취락과 원취락이라 한다. 이렇게 국영(國營)으로 운영되던 원은 도처의 요지에 민간 여행자를 위한 점막(店幕)이 생기면서 피폐해진다. 그리하여 원취락은 16~17세기경 대부분 소멸되고, 18세기에는 사설 주막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역원취락은 각 가로를 따라 가촌 또는 노변 취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본래 역과 원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별개의 장소에 입지하였다.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형성된 역원취락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교통 취락으로 발전한 곳도 있으나, 근대에 들어서자 정치·사회 제도의 변혁 및 교통 혁명 때문에 대부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역원취락의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은 인덕원, 퇴계원, 장호원, 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과거 경기도 권역에서 원터 유적은 2012년 한백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서울 원지동 원터’가 유일한데, ‘원터’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서 조선시대 院(원)이 발굴된 대표적 사례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退溪院里(계원리), 양주 해동어면 上樓院(상누원)리, 광주 군내면 廣池院(광지원)리, 광주 경안면 역촌, 광주 언주면 역촌, 용인 서변면 寶樹院(보수원), 용인 구흥면 驛(역촌), 용인 수여면 역동, 용인 박곡면 신원리, 용인 모현면 院村(원촌), 용인 상동면 원촌, 양지 고북면 柳驛里(유역리), 죽산 남면 東注院(동주원)리, 안성 가사면 역촌, 안성 덕산면 원촌, 수원 매곡면 院坪(원평), 수원 장주면 역촌, 수원 晴湖(청호)면 역촌, 수원 포내면 海

湖院(해호원), 수원 언북면 安頭院(안두원), 과천 동면 院基洞(원기동), 통진 하은면 水站(수참)리, 고양 신현면 舊擺攤(구파발)리, 파주 천현외면 院基里(원기리), 파주 광탄면 汾水院(분수원), 장단 동도면 石柱院(석주원)리, 용인 구흥면 上館谷(상관곡) 下館谷(하관곡, 구흥역), 양평 서시면 新院(신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대광리 건물지(연천 대광리 원뒤편), 東陽院址(동양원지, 의왕 청계동 원터), 新津驛址(신진역지, 여주 신진리 신진역말), 雙鹿院 터(쌍늑원 터, 안산 장하동 원뒤편)

참고 1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지역의 역명

迎曙道(영서도) : 迎曙(영서, 양주) 碧蹄(벽제, 고양) 馬山(마산, 파주) 東坡(동파, 장단), 靑郊(청교, 개성), 狻猊(산예, 개성), 中連(중란, 풍덕) 良才道(양재도) : 良才(양재, 과천), 樂生(낙생, 廣州) 駒興(구흥, 용인), 金嶺(금령, 용인), 佐贊(좌찬, 竹山), 分行(분행, 죽산), 無極(무극, 음죽), 康福(강복, 안성), 加川(가천, 양성), 海門(해문, 남양), 菁好(청호, 수원) 長足(장족, 수원), 同化(동화, 수원)

平丘道(평구도) : 平丘(평구, 양주), 綠楊(녹양, 양주), 安奇(안기, 포천), 梁文(양문, 영평), 奉安(봉안, 양주), 娛賓(오빈, 楊根), 雙樹(쌍수, 양주), 白冬(백동, 砥平), 田谷(전곡, 지평), 仇谷(구곡, 양주), 甘泉(감천, 가평), 連洞(연동, 가평)

重林道(중림도) : 重林(중림, 인천), 慶信(경신, 인천), 盤乳(반유, 금천), 石谷(석곡, 안산), 金倫(금륜, 양천), 終生(종생, 통진), 南山(남산, 양천)

慶安道(경안도) : 慶安(경안, 광주), 德豐(덕풍, 광주), 楊花(양화, 여주), 新津(신진, 여주), 安平(안평, 여주) 阿川(아천, 이천), 吾川(오천, 이천), 留春(유춘, 음죽), 桃源(도원, 장단), 仇和(구화, 장단), 白嶺(백령, 장단), 玉溪(옥계, 연천)

참고 2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지역의 원명

廣州(광주) : 沙平(사평), 板橋(판교), 東陽(동양), 末乙川(말을천), 黃橋(황교), 雙嶺(쌍령), 金尺(금척), 利夫(이부), 鳳獻(봉헌), 苞入(둔입), 大也(대야), 渡迷(도미), 仁德(인덕), 沙斤乃(사근네), 鄭金(정금), 廣津(광진)

驪州(여주) : 草溪(초계), 加老介(가노개), 破場(파장), 新院(신원), 福川(복천), 寶通(보통), 子川(자천), 普濟(보제)

利川(이천) : 仍邑(영읍), 貫川(관천)

楊根(양근) : 月溪(월계), 多樂(다락), 末院(말원), 草院(초원)

砥平(지평) : 之德(지덕)

陰竹(음죽) : 富民(부민), 貫寺(관사), 長海(장해)

陽智(양지) : 承寶(승보)

竹山(죽산) : 大平(대평), 普賢(보현), 通梨(통이), 獐項(장항), 梨院(이원)

果川(과천) : 露梁(노량), 仁德(인덕), 彌勒(미륵), 吾金(오금), 要光(요광)

水原(수원) : 烏山(오산), 大梯(대제), 蛇院(사원)

富平(부평) : 球瑟(구슬), 大也(대야)

南陽(남양) : 鎭水(진수)

仁川(인천) : 彌羅(미라), 濟物(제물)

安山(안산) : 雙鹿(쌍력)

安城(안성) : 光寶(광보), 大悲(대비)

振威(진위) : 長好(장호), 李方(이방), 白峴(백현), 葛院(갈원)

龍仁(용인) : 普施(보시), 弘化(홍화), 金嶺(금령)

金浦(김포) : 廣因(광인)

衿川(금천) : 觀音(관음), 楊花渡(양화도)

陽城(양성) : 禪院(선원), 所草(소초)

通津(통진) : 祖江(조강), 甲申(갑곶), 溫山(온산)

楊州(양주) : 廣濟(광제), 廣仁(광인), 相知(상지), 陶孔(도공), 德海(덕해), 道濟(도제)

坡州(파주) : 焚修(분수), 廣灘(광탄), 惠陰(혜음), 檜院(회원), 梨川(이천), 兜率(도솔)

高陽(고양) : 德水(덕수), 仁厚(인후), 利泰(이태), 重房(중방), 興福(흥복)

抱川(포천) : 碧呑石(벽탄석), 功德(공덕)

交河(교하) : 冷井(냉정), 洛河(낙하)

加平(가평) : 狄栗(적률), 林草(임초)

長湍(장단) : 通濟(통제), 冷井(냉정), 吾目(오목), 藥師(약사), 蓮花(연화), 石柱(석주), 淑川(숙천), 禪具(선구), 天壽(천수)

江華(강화) : 甲申津(갑곶진), 寅石津(인석진), 昇天府津(승천부진)

豐德(풍덕) : 昇天浦(승천포), 冷井(냉정), 光大(광대), 臨海(임해)

麻田(마전) : 東指(동지)

漣川(연천) : 松折(송절)

喬桐(교동) : 東津(동진)

주막(酒幕)

지명 : 점막, 주막

주막은 길손을 대상으로 술과 밥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이다. 임진왜란 이후 院(원)이 쇠퇴하면서 私商(사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막이 길거리, 나루터, 광산촌, 장터, 역말 등에 들어서기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번창하였다.

『조선지리지』 경기도 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910년 무렵

서울과 양주를 제외하고 전역에 걸쳐 600여 곳의 주막이 있었다. 이들 주막은 인가들과 떨어진 곳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 내에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주막이 행정지명으로 『조선지리지』에 기록된 곳은 이천군鉢面(발면)店幕(점막)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이에 주막이 마을의 이름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600여 곳의 지명이 확인되므로, 소지명으로는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진위 군내면 주막리

『조선지리지』관련 행정 지명

광주 경안면 주막리, 양평 읍내면 주막리, 이천 발면 점막

오리정(五里亭)

지명 : 김포 갈산 2리 오리정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전통시대에는 지방 고을 청사에서 5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亭子(정자)를 지어 議政(의정)이나 관찰사 등을 맞이하는 용도, 문과에 새로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식장,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곳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조선시대 도로에는 5리마다 정자를 세워 五里亭(오리정)이라 하고, 30리마다 榆柳(유류)를 심어 여행자가 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중기 문신인 김세렴의 『동명집』에 수록된 ‘수재 장선충을 전송하다’라는 칠언고시에는 ‘십리정과 오리정엔 꽃이 활짝 피어 있고(花開十里五里亭)’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미루어 오리정은 주유지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적지 않게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오리정은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도령이 이별의 정을 나누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7번지 소재 오리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6호)이다. 경기도에는 통진현에 속했던 오리정이 있던 김포시 월곶면 갈산 2리 오리정 마을이 대표적이다. 또 경기도에는 옛 남양도호부에 속했던 오리정이 현재 ‘오리정순두부’란 맛집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분당선 오리역은 梧里(오리)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치로 보아 용인현의 오리정이 있던 곳일 가능성도 있다.

관방(關防)

지명 : 산성, 성곡, 성동, 성남, 남성, 성내, 성외, 성산, 성하, 성저

경기도에는 왜구의 침입이 하삼도 지역에 비하여 극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지에 읍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았고 유적으로 제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고려시대 토성인 용인 처인성을 제외하고는 없다. 따라서 지명에서의 城(성)이 들어가면 일단 산성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경기도의 산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요충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그곳의 진산에 군현성을 쌓으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시대 군현의 진산에는 신라산성이 대부분 지금도 남아 있다. 그에 비하여 통일신라, 고려시대가 되면 국경선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올라가면서 경기지역에는 산성의 축조가 활발하지 않게 되고 신라 때에 축성된 군현성은 폐성이 되거나 피난성으로 전락한다.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방어와 왕실보호를 위하여 경기지역에 대규모 산성을 축조하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문수산성, 화성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경기도 전역의 군사적 요충지와 정치행정의 중심에 산성이 축조되었기에 그와 관련한 지명이 많고, 또 지역도 31개 시군에 걸쳐 골고루 산재해 있다.

한편, 『용비어천가』에서는 城山(성산)을 ‘갓뫼’로, ‘金城(금성)’을 ‘쇠갓’으로 한자 표기했다. 이에 城(성)의 우리말은 ‘갓’이었음을 알 수 있고, 마을과 고개 이름에서 자주 등장하는 栢(백, 또는 柏)은 잣나무를 뜻하기 보다는 성곽을 훈차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용인 東栢洞(동백동)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東幕洞(동막동)과 栢峴洞(백현동)을 합친 지명인데, 여기서의 백현동은 배후에 石城山(석성산)에서 유래된 우리말 ‘갓골’을 훈차한 한자 지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지명에 栢(백)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 유래를 무조건 잣나무에서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산성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성남시, 양주 백석면 산성리, 양주 하도면 산성리, 포천 군내면 하산성리, 포천 청송면 哨城(초성)리, 영평 서면 姑蘇城里(고소성리), 영평 군내면 성동리, 가평 남면 高城里(고성리), 광주 군내면 南城(남성)리, 광주 구천면 城內洞(성내동), 용인 수여면 東陣里(동진리)·古陣里(고진리), 용인 박곡면 城底里(성저리), 양지 목악면 城里(성리), 양평 동종면 성산리, 양평 북상도면 城谷(성곡)리, 안성 덕산면 城下(성하)리, 수원 태춘면 馬城(마성)리, 수원 남면 吉城里(길성리), 수원 포내면 城外(성외)리, 통진 보구곶면 산성리, 고양 구이면 城洞(성동), 교하 신오리면 城洞(성동)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길성리토성(화성 길성리), 寶蓋山城(보개산성, 용인 마성리 성밑), 성곡동 성지(안산 성곡동 해봉산), 신상리 성지(가평 현리 성고개), 제요리 토성지(이천 제요리 반월성), 오두산성(파주 성동리), 성동리산성(포천 성동리), 임진산성(용인 풍덕천동 임진산)

봉수(烽燧)

지명 : 봉현, 봉수, 봉화

烽燧(봉수)는 烽(봉, 횃불)과 燧(수,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증보문헌비고』의 봉수조에 의하면 전국 5로의 주요선로를 直烽(직봉)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의 목멱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직봉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경기도 요해처에는 봉수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모두 54여 곳의 봉수가 보고되어 있다.

이런 봉수 관련 지명은 일반적으로 ‘烽(봉)’자가 널리 쓰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望臺(망대)가 있었다하여 ‘望(망)’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망우리면 烽峴里(봉현리), 가평 상면 烽燧里(봉수리), 김포 김단면 봉화촌, 파주 백석면 烽峴(봉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대산봉수(파주 烽峴里 봉우재), 장암동 봉수지(의정부 장암동 봉화재)

참고 1 : 기존 알려진 조선시대 경기지역 봉수(54곳)

할미산, 혜재곡, 적골산, 미로곡, 독산, 잉읍점, 대이산, 가구산, 남산(경봉수), 무악서봉, 무악동봉, 천립산, 석성산, 건지산, 망이산, 화성봉돈, 건달산. 서봉산, 독산성, 괴태길곡, 홍천산, 염불산, 해운산, 형도, 무응고리, 오질애, 정왕산, 선산(문학산), 축곳, 백선산, 약산, 대모성, 진강산, 망산, 수정산, 진망산, 성산(화개산), 별립산, 하음성산, 송악(남산), 주산(남산), 주산(냉정산), 개화산, 장봉도, 말도, 불음도, 검단산, 형제봉, 성산, 봉현, 도라산, 성산, 대산, 소달산(독산)

출처 : 김주홍, 「조선시대의 봉수제」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1.

참고 2 : 최근 발견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망대(29곳)

서울 봉산, 서울 봉제산 망대, 서울 불암산망대, 서울 개웅산망

대, 광주 망덕산, 안성 망월산망대, 안성 진재봉망대, 고양 망월산망대, 안산 풍도 후망산망대, 화성 제부도 당산망대, 화성 해망산, 양평 고동산망대, 여주봉우재망대, 여주 연대산, 연천 놀목리망대, 연천 두루봉망대, 연천 간파리망대, 연천 아미리망대, 연천 고성리망대, 연천 차탄리망대, 연천 국사봉망대, 연천 금굴산망대, 연천 장탄리망대, 연천 마차산망대, 연천 봉화재망대, 인천 대이작도 부아산망대, 인천 자월도 국사봉망대, 인천 덕적도 덕적진봉수1, 인천 덕적도 덕적진봉수2, 인천 덕적도망재

마장(馬場)

지명 : 마장, 목장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지역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軍營(군영)에 필요한 말을 키우는 목장이 설치·운영되었다. 중앙 정부와 왕실의 긴급한 수요를 바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장은 말의 도망을 막기 위한 목책 설치가 필요 없는 섬이 대부분이나, 내륙의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좁고 길쭉하게 돌출한 串(곶)을 이용하였다.

조선시대 각 자료에 나타나는 경기도의 목장의 수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26곳,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28곳, 『목장지도』(1678) 30곳, 『여지도서』(1765) 8곳, 『대동여지도』(1861) 21곳, 『증보문헌비고』(1908) 24곳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현 의정부의 녹양목장이고, 장단의 호곶목장도 유명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백석면 마장리, 가평 군내면 하마장리, 수원 포내리 牧場(목장)리, 파주 광탄면 마장리

참고 1 : 『증보문헌비고』의 경기도 유폐목장 현황

유목장 : 大阜島(대부도), 靈興島(영흥도), 仙甘島(선감도), 召忽島(소홀도), 伊作島(이작도), 小牛島(소우도), 伊側島(이측도), 佛島(불도), 楓島(풍도), 立破島(립파도) [이상 남양], 陽也串(양야곶). 洪原串(홍원곶) [이상 수원], 槐台串(괴태곶) [양성]

폐목장 : 德積島(덕적도), 昇黃島(승황도), 禿甲島(독갑도) [이상 남양], 壺串(호곶) [장단], 沙牧島(사목도) [파주]

소재불명 : 項浦(향포), 吾朶庄(오타장), 振威屯(진위둔)

궁평(宮坪)

지명 : 궁평, 궁촌, 궁뜰, 궁안, 궁내, 궁리

우리나라 지명 중에는 궁촌, 궁말, 궁평, 궁내 등 宮(궁)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적지 않다. 이들 지명에 대한 시군 지명유래집을 보면 대부분 공주와 공주가 살던 宮家(궁가)나 그들의 무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궁말이 자리하는 곳이 군현의 치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농촌인 사실, 그리고 궁말에 공주묘가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 없는 사실 등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조선시대의 공주나 공주들이 왕실의 재정적 지원으로 사치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던 점에서 궁촌을 궁가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럼 궁촌의 유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실마리는 궁장토에서 찾으면 될 듯하다. 宮房田(궁방전)이라고도 하는 宮庄土(궁장토)는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收租權(수조권)을 가진 토지로,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이런 궁방전은 후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하여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전국에 걸쳐 궁방전이 왕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궁방전을 염두에 둘 때, 宮坪(궁평)은 궁방전이 있는 벌판을 뜻하며, 궁촌은 이런 궁방전을 경작하는 마을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평택 고덕면 궁리의 지명유래를 “조선 후기 마을에 궁방전이 많아 ‘궁말’, ‘궁안’으로 불렸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유래됐다.”는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또 충남 보령시 궁촌동의 궁촌에 대하여 宮中(궁중)에서 땅을 거느린 마을이라 궁말 또는 궁촌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궁촌리, 양주 접동면 宮洞里(궁동리), 양주 상도면 궁촌리, 양주 하도면 궁촌리, 포천 가산면 궁촌리, 포천 청송면 궁평리, 광주 도척면 궁평리, 광주 왕륜면 궁촌, 광주 서부면 궁촌, 광주 낙생면 궁내촌, 양평 상서면 궁촌리, 여주 금사면 宮里(궁리), 안성 영통면 궁리, 진위 오타면 궁리, 남양 신리면 궁평동

둔전(屯田)

지명 : 둔전, 둔, 도감, 호조

屯田(둔전)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하여 군량에 충당한 토지로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전자는 국둔전(國屯田), 후자는 관둔전(官屯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둔전은 삼국통일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기록은 고려 시대에 와서 나타났다. 관둔전은 고려 숙종 4년(1099)에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 전기의 둔전제는 고려 말 권문세족에게 겸병된 둔전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조선 전기의 둔전은 주로 부역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점차 並作經營(병작경영)에 의한 운영으로 바뀌어 갔다. 임란 이후에는 영아문둔전(營衙門屯田)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중앙관청에 의해 설치된 관둔전 성격이 강한 둔전이였다. 유사어로는 官屯田(관둔전), 軍屯田(군둔전), 營門屯田(영문둔전), 衙門屯田(아문둔전) 등이 있다.(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둔전’ 항목)

일반적인 둔전인 관둔전과 군둔전을 제외하고 아문둔전으로는 시흥의 호조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지리지』에는 파주 都內面(도내면) 都監坪(도감평)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都監里(도감리), 광주 군내면 둔전리, 광주 오폐면 둔리, 광주 대왕면 둔전리, 용인 박곡리 둔전, 수원 북부면 둔동, 파주 천현외면 屯防(둔방)리, 진위 五朶(오타)면 防禦廳里(방어청리), 진위 오타면 守禦廳里(수어청리), 수원 삼봉면 水營洞(수영동), 연천 서면 軍營(군영)리

도촌(島村)

지명 : 島村(도촌), 島里(도리), 섬말, 섬말, 섬말

『조선지리지』와 『(경기도) 지명유래집』의 가평, 고양, 양평, 광주 등에서 섬마을 즉 島村(도촌)이란 지명을 찾아보면 한 시군에 하나 정도는 확인된다. 만약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섬말이란 이름을 지닌 마을이 더 나올 듯하다. 그런데 상기 섬말 지명이 확인되는 곳은 모두 내륙지방이다. 그런데 왜 ‘섬’이 마을 지명에 들어갔을까? 지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현재 행정지명으로 도촌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이다. 이 도촌동의 유래에 대하여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촌동은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고, 마을 앞 중앙에 뒤 산맥이 끊어졌다 약간 솟아 있는 것이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 즉 도촌(島村)이라 칭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마을 대부분에는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뒤로는 굴곡진 구릉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섬말[島村]이란 지명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궁색한 감이 든다.

그럼 島村(도촌)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실마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구할 수 있는데, 결론은 鎭堡(진보)가 있는 마을로서 요역이 면제된 곳을 島村(도촌)이라 했던 것이다.

이는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서 확인되는데, 지명의 유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에 전부를 소개한다. “제역촌(除役村, 요역이 면제된 마을)은 첫째 읍내(邑內), 둘째 계방촌(契房村, 아전들이 사사로 보유하는 마을), 셋째 점촌(店村, 鎭店·鐵店·瓷器店·瓦器店), 넷째 학궁촌(學宮村, 향교가 있는 마을), 다섯째 역촌(驛村), 여섯째 원촌(院村, 곧 野站), 일곱째 사촌(寺村, 절 입구에 있는 마을), 여덟째 창촌(倉村, 外倉이 있는 곳), 아홉째 궁전촌(宮田村, 宮結이 있는 곳), 열째 둔전촌(屯田村, 京司·京營의 소용이 나오는 곳), 열한째 포촌(浦村, 감영에 浦保錢을 내는 곳), 열둘째 도촌(島村, 鎭堡에 속한 곳), 이 열셋째, 영촌(嶺村, 가마를 메는 곳)이다.

『조선지리지』 관련 지명

광주 돌마면 도촌리, 양평 남종면에 섬말(도촌리), 고양시 원당면 원당리 섬말(도촌) 가평 설악면 창의리 섬말(도리)

월경지(越境地)

지명 : 月境(월경)

월경지는 해당 군현의 관할 범위 밖의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갑) 군현의 행정 관할 범위 내에 토지가 있지 않고, (을) 군현의 행정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갑) 군현의 관할 하에 있는 특수 구역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월경지가 있었던 이유는 세금과 같은 물자 조달과 관계가 있다. 특히 내륙에 위치한 주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물·소금 등 해산물의 공급처로 해안가에 월경지를 두어 주읍의 부족분을 채웠다. 어쨌든 1912년 행정지명에서는 ‘越境(월경)’를 ‘月境(월경)’으로 간단한 글자를 택해 표기했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진위 마산면 月境里(월경리), 진위 일북면 月境里(월경리)

제언(堤堰)

지명 : 언북, 방축(방죽), 보촌, 보동, 보평, 축동

조선 후기 이앙법의 발달로 水田(수전)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 용수의 확보는 농업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수리시설을 축조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堤堰(제언), 湫(보), 防禦(방축), 垆(동)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산골의 높고 건조한 곳과 넓은 들녘의 척박한 지역까지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제언보다

는 규모가 작은 보와 방축이 많이 만들어졌다. 한편 경기도 서해안 지역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內灣(내만)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만입부 초입을 막아 농경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19세기 『萬機要覽(만기요람)』 財用編(재용편) 5 堤堰(제언) 各道堰湫條(각도언보조)에는 경기도에 314개의 제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포천 가사면 방축리, 광주 낙생면 湫坪(보평)리, 용인 수여면 방축동, 용인 현내면 방축동, 양평 하북면 보평리, 안성 가사면 방축동, 안성 덕곡면 방축동, 안성 우곡면 湫(보)리, 안성 소촌면 湫頭里(보두리), 안성 송로면 방축동, 안성 구천리면 방축리, 안성 영통면 中湫里(중보리), 수원 북부면 보동, 수원 삼봉면 방축동, 수원 용북면 中湫(중보)평, 수원 공향면 방축동, 수원 장주면 보촌, 수원 현암면 堰城里(언성리), 수원 현암면 방축동, 수원 堰北(언배)면, 파주 광탄면 방축리, 파주 백석면 방축리

사찰(寺刹)

지명 : 寺村(사촌), 寺洞(사동), 절골, 大寺(대사), 불당, 불곡, 古寺(고사), (절이름)洞(동) · 리(리) · 村(촌)

불교는 삼국시대 중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왕실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교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국가적으로는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지만 왕실은 원찰의 형태로 죽은 선왕·비빈·공주의 명복을 빌었고, 민간에서도 불교는 부녀자들의 기복의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근세까지도 군현 단위에 명찰이 한두 곳은 있었고 읍면 단위에 중소 사찰이 한둘 씩은 자리했다.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에 읍치에 사찰이 들어서는 것은 금지되었기에, 사찰은 읍치소와는 멀리 떨어진 경관이 빼어난 곳에 입지했다. 그리고 불교건축은 불국토를 장엄해야하기에 전각들이 모두 기와집이고, 단청으로 장식되어 화려했다. 그리고 이런 불교사찰은 주변의 자연마을에서 볼 때 그야말로 ‘랜드마크’였고, 식별 기능이 탁월했다. 즉 인접 마을의 지명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한편 사찰 관련 지명의 마을에는 사찰 소유의 전답을 얻어 살아가는 소작 농민들이 주로 살았다. 즉 이른바 사하촌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절의 이름을 딴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된다.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 따르면, 이런 寺村(사촌)에는 요역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사찰명을 따른 지명] 양주 고주내면 내회암리, 양주 해동어면 영국리, 광주 군내면 법화동, 고양 신현면 津寬內(진관내)리, 광주 의곡면 상청계동·하청계동, 광주 구천면 암사동, 용인 수진면 서봉동, 양평 북하도면 용문천리, 수원 문시면 培養寺(배양사), 광주 군내면 불당동, 광주 세촌면 상대원리 하대원리, 여주 부일면 대평원,,

[사하촌으로 추정되는 지명] 광주 경안면 寺洞(사동), 광주 실촌면 寺洞(사동). 양평 서중면 寺村(사촌)리, 진위 이서면 寺洞(사동),

[사찰 주변 마을] 용인 서초면 寺後(사후), 양평 동종면 竹寺(죽사)리, 영평 읍내리 大寺(대사)리, 여주 개군산면 불곡리, 안성 가동면 北寺(배사)리, 죽산 남이면 대사리, 안성 공제면 불당리, 통진 반이촌면 불당동, 삭녕 군내면 古寺里(고사리), 양평 남면 대사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회암사지(양주 고주내면 내회암리), 고달사지(여주 상교리 고달), 舍那寺(사나사, 양평 용천리 절골), 영국사지(양주 해동어면 영국리, 현 서울시 도봉구), 법화사지(광주 군내면 법화동, 현 하남시 상사창동), 진관사(고양 신현면 津寬內里(리), 현 서울시 은평구), 청룡사(안성 청룡리), 칠장사(안성 칠장리), 청계산(광주 의곡면 상청계동·하청계동, 현 의왕시 청계동), 암사지(광주 구천면 암사동, 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서봉사(용인 수진면 棲鳳洞), 용문사(양평 북하도면 용문천리), 대원사(광주 세촌면 상대원리 하대원리, 현 성남 중원구), 홍국사(고양 지축동 절골), 老湍寺洞(노온사동) 사지(수원 노온사동), 龍珠寺址(용주사지, 양평 석곡2리 용주골), 文殊寺(문수사, 김포 성동리 문수골), 培岩寺址(배암사지, 김포 홍신1리 불당마을), 舊谷寺(구곡사) 미륵불(여주 가업리 구절골), 금곡리 사지(파주 금곡리 불당재), 노동리 사지(연천 노동리 절터골), 불곡골리 미륵불(양평 불곡리), 성사동 사지(고양 성사3동 사근절이), 연라리 사지(여주 연라리 절골), 要腰寺址(요요사지, 김포 장기동 절터골), 원당리 사지(연천 원당리 불당골, 절터골), 자작리 사지(연천 자작리 승절골), 장암동 사지(의정부 장암동 절터골), 長興寺址(장흥사지, 여주 장흥리 절골), 절골 사지(평택 지산동 절골), 향소리 사지(양평 향소리 절골), 불당골 사지(용인 두창4리 불당골), 노온사지(과천 남면 老湍寺里)

佛像(불상)

지명 : 미륵, 부처, 석불

고려시대 불교사찰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사찰은 최소한 읍면 단위에 한둘씩은 건립되었을 듯하다. 지금 교회에 비교될 정

도로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되었던 고려시대의 사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원찰과 거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사의 위기를 맞았다. 절이 폐사되면 금속으로 만든 불상과 종탁 등 이동 가능한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무기류 등을 만드는 데에 재활용되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탑과 석불은 현지에 남겨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석불과 탑은 里程標(이정표)가 되어 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불교지식에 부족한 현지인들은 폐사지에 남겨진 석불을 포괄적으로 돌부처로 부르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미륵으로 불렀다. 이에 자연마을의 이름에는 미륵이 들어가는 곳이 적지 않고, 이런 마을에는 석불이 남아 있는 폐사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행정지명으로 미륵동은 아주 드문 데에 비하여 법정지명(즉 자연마을)으로는 미륵이나 석불이 들어간 지명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수원 일용면 미륵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상구리 사지(여주 상구리 미륵굴), 강내리 사지(연천 강내리 부처굴), 계신리 마애여래입상(여주 계신리 석불암), 도곡리 탑재(여주 도곡리 미륵굴), 북삼리 마애석불입상(연천 북삼리 미륵밭), 삼거리 사지(연천 삼거리 부처굴), 어석리 석불입상(이천 어석2리 미륵당), 이평리 미륵불상(이천 이평리 미륵굴), 청안리 미륵불(여주 청안리 미륵굴), 彌坪里(미평리) 약사여래입상(용인 미평리 미륵뜰)

석탑(石塔)

지명 : 탑골, 탑동, 탑석, 탑현

바로 앞의 미륵 관련 지명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수많은 절들이 폐사되자, 석불과 탑만이 폐사지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들 석탑 역시 지명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래서 탑 관련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탑동이라 지명을 가진 곳 중에서 불교유적이 발견된 곳은 동두천 탑동에 소재한 회암사 암자지와 그곳에 있는 불상이다. 현재 탑동의 지명 유래인 석탑은 없지만, 일제 때 반출되었다는 조사 기록으로 미루어, 아래 탑동마을에 있었던 석탑들도 그런 운명을 겪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수원시 탑동 485번지에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탑 부재가 있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양주 둔야면 搭石里(탑석리), 포천 서면 탑동리, 광주 돌마면 하탑동·상탑동, 양평 동종리 搭谷(탑곡)리, 양평 서시면 탑곡리, 수원 형석면 탑동, 수원 초평면 탑동, 수원 오정면 탑현, 수원 연북면 탑현, 여주 강천면 탑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탑동석불(동두천 탑동), 회암사 암자지(동두천 탑동)

태실(胎室)

지명 : 태봉리, 태봉산, 태전리, 태산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봉안하는 곳을 胎室(태실) 또는 胎封(태봉)이라 한다. 그중에서도 나중에 왕위에 오른 왕자의 태실을 태봉(胎峰)이라 한다. 지명과 관련하여 현재 창경궁 양화당 뒤편 언덕에 자리한 성종대왕의 태실은 광주시 경안면 태전리에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태전리도 태실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영창대군 태실(가평 태봉리 태봉), 태봉리 사지(가평 태봉리 절골), 효자동 태묘, 태묘비(고양 효자동 태봉)

능묘(陵墓)

지명 : 능곡, 능말, 능산, 능촌, 능리, 능동, 마분, 말무덤, 능+방위

전통시대 무덤은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크게 陵(능), 園(원), 墓(묘)로 구분된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무덤을 말하는데 왕을 생산한 후궁의 무덤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묘는 능과 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무덤을 말한다.

현재 능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능원이 소재한 동리는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 전국의 지명에 陵谷(능곡) 또는 능골이란 지명이 허다하다. 그리고 이런 陵(능)이 들어가는 지명에 대한 유래를 보면 풍수지리 상 왕릉이 들어설 자리였다는 등 그럴싸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능묘 유적과 능곡이라는 지명을 연결해 검토해 보면 능곡이란 결국 왕실 가족에 속하지만 능원에 묻힐 수 없는 大君(대군), 君(군), 公主(공주)와 翁主(옹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등의 무덤이 있거나 석물로 단장된 일반 사대부의 무덤과 지

명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에서의 陵(능)은 大墓(대묘)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능곡은 그런 대묘가 있는 마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정몽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 용인 능원리 능골, 유자신의 무덤이 있는 곳이 시흥 능곡인 점으로 쉽게 방증된다.

그런 한편으로 김포 능동의 경우 김포 장릉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장릉과 무관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옛 양주 망우리면·능후면·능내면과, 여주 능서면 등과 같이 실제 왕릉이 자리한 곳과 인접 마을의 이름에 능+방위가 들어가면 이는 왕릉과 관련된 지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능묘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 둘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명에서 흔히 접하는 말무덤(馬墳)이 들어간 지명이다. 지명유래집을 보면 말무덤을 ‘말이 묻힌 무덤’이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의 전형이다. 우리말에서 말[馬]는 크다는 뜻이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확인되는 바로 말개미는 큰 개미, 말벌은 큰 벌을 의미한다. 지명에서 마한은 큰 나라, 馬峙(마치)는 큰 고개를 뜻한다. 따라서 소지명에 보이는 마총, 마분, 말무덤은 高塚(고총)으로 보면 되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영근면 능동리, 양주 백석면 古陵(고능)리, 양주 초부면 능내리, 광주 오폐면 능곡리, 광주 왕륜면 묘동, 양평 동종면 능산리, 양평 서종면 능곡리, 여주 근동면 능촌, 여주 원삼면 능촌, 안성 조령면 능리, 안성 금곡면 능리, 수원 남부면 능동, 수원 문시면 능곡, 수원 태촌면 능동, 수원 동북면 능동, 수원 안외동 陵隅(능우), 안산 인화면 능곡리, 통진 군내면 능동, 통진 대파면 능동, 교하 아동면 금릉리, 파주 천현외면 五陵里(오능리), 파주 백석면 능동리, 파주 오리면 능동리, 부평 서면 馬墳(마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경안공주 묘(여주 덕평리 능안골), 전 고려 고양왕릉(고양 원당동 왕능골), 광해군 묘(남양주 松陵里, 成陵), 구래리 고분군(김포 구래리 능골), 金樞(금군) 묘 신도비(광주 능평리), 金自知(금자지) 선생묘(양평 왕창리 능골), 김협 묘(동두천 결산동 능말), 柳自新(류자신) 묘(시흥 능곡동), 李畬(이여) 묘(양평 계정리 산소골), 李從茂(이종무)장군 묘(용인 고기리 능뒤골), 臨瀛大君(임영대군) 사당 및 묘(의왕 내손동 능안), 목기선 묘(동두천 생연동 능안), 민유중 묘 신도비(여주 능현리 뒷골), 선인군 이흥 묘(파주 운천2리 능말), 송질 묘와 신도비(양주 선암리 능골), 심우승 묘 신도비(광주 도수리 능안골), 元萬里(원만리) 묘(여주 상구리 능말), 월산대군 사당·묘·신도비(고양 신원동 능골), 이필행 묘 신도비(가평 선촌리 능안), 정몽주·이석형 묘(용인 陵院里 능곡), 정약용 묘(남양주 능내리), 趙公瑾(조공근)

선생 묘 신도비(양평 도곡리 능말), 沈龜齡(심구령) 묘 신도비(광주 검천리 능골), 한양조씨 묘역(파주 능산리), 합수리 고분군(연천 합수리 능골)

사당(祠堂)

지명 : 사당, 제청, 재청, 묘동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조 이하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을 사당,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을 齋室(재실), 묘제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가까이에 지은 목조건축물을 祭閣(제각)·祭廳(제청)·祭舍(제사)라 한다. 이런 건물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인 位田(위전)을 두었다.

이런 재실은 무덤 가까이에 있기에 묘주의 후손들이 사는 세거 마을과 떨어져 있고, 사당과 재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집과 위토가 가까이 있기에 별도의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경우 사당, 묘동, 재실 등으로 불렸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廟洞里(묘동리), 양주 노원면 廟洞里(묘동리), 영평 일동면 社堂里(사당리), 양평 남종면 祭廳里(제청리), 수원 초평면 關里社(গুল리사), 과천 상북면 舍堂里(사당리), 여주 개군산면 祭田里(제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金錫胄(김석주) 묘와 신도비(광주 귀여리 재청말), 박장휘 묘(동두천 지행동 사당골)

비석(碑石)

지명 : 비석골, 비석거리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비석이 세워졌다. 치적이나 선행을 돌에 새기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석 중에서 마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비석은 신도비와 선정비이다. 신도비는 정2품 이상의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의 무덤 아래에 자리하기에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그리고 선정비는 수령이나 관리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기 때문에 주로 관아나 향교 근처에 위치한다. 이런 비석들은 고을 전체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특정 마을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여, 관련 지명이 간혹 확인된다. 한편, 선정비군이 있는 지역은 과거 읍치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柴北洞(시배동) 碑隅里(비우리), 양주 접동면 碑閣里(비각리), 진위 서파면 碑前里(비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廣石洞(광석동) 선정비군(시흥 물왕동 비석골), 朴瀾(박미) · 朴東亮(박동량) 묘 및 신도비(시흥 군자동 비앞골), 어룡리 선정비(포천 어룡리 비석거리)

정려(旌閭)

지명 : 정문, 효자

조선시대는 충·효·열을 기본윤리로 삼아, 충신·효자·열녀를 찾아내 그 행적을 기록하고 표창하였는데, 표창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旌閭(정려)를 내리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정려가 내려지면 해당 가문에서는 정려각(정문)을 세우고 旌板(정판)이라 불리는 명정현판을 걸어두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양반들은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그런 까닭에 자기 문중에서 정려를 받는 인물이 나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정려각은 특정마을을 지칭하는 標識物(표식물)이 되어 행정지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지 주서면 旌門里(정문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柳複立(유복립) 정려각(용인 송문리 정문), 박태성 정려비(고양 효자동), 초계정씨 정려(이천 산성1리 정문말), 한명윤 · 박행장 충렬각(화성 정문리)

와촌(瓦村)

지명 : 와촌, 와가, 와동

『화성성역의궤』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용된 집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해 두었는데, 크게 집의 종류를 瓦家(와가), 草家(초가), 土室(토실)로 대별하여, 기와집은 1칸당 25냥, 초가는 1칸당 5냥, 토실은 1칸당 1~1.5냥 정도로 보상해 주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부호들의 마을인 와촌, 일반상민의 마을인 초가마을, 그리고 하층민이 사는 움막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접동면 瓦村里(와촌리), 가평 상면 瓦家洞(와가동), 수원 광덕면 와촌, 안산 인화면 瓦上里(와상리), 고양 중면 와동, 교하 와동면 와동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芝谷里(지곡리) 古家(고가)(용인 지곡리 개와집말)

동막(東幕)

지명 : 동막, 수막, 토막, 초막, 막곡, 막골,

지명을 분석해 보면 ‘幕(막)’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자주 확인되고, 그중에서 동막이 가장 흔하다. 이 동막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기도 하다.

이 동막이란 지명에 대한 지명유래는 독을 굶는 마을인 ‘독막’이 음운변화하여 된 것, 동쪽이 막힌 마을이기 때문, 군막이 있는 데에서 유래, 굴막이 있었기 때문 등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막골 중에서 옹기를 구웠다는 곳은 마포 동막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점, 서막 · 남막 · 북막이 없기에 동막의 東(동)이 동쪽을 가르키지 않는 점, 1718년 柳光宅(류광도) 書簡(서간)에서 남동막이란 지명이 확인되는 점, 幕(막)을 ‘막혔다’로 해석하는 것은 그 설명이 궁색한 점 등이다.

필자는 이런 동막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幕(막, 또는 莫)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동막골은 기본적으로 유계념으로 막골[幕谷(막곡)]이다. 막골은 글자 그대로 움막집으로 이루어진 마을 즉 전술한 『화성성역의궤』의 토실마을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고유적으로 발굴되는 수혈주거지가 이런 움막의 실물흔적이며, 문헌 속의 草屋土室(초옥토실)이 이런 움막집의 일반적 명칭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움막의 지붕은 초본류이기에 草幕(초막), 흙을 파고 지었기에 土幕(토막), 널빤지 나뭇가지를 엮어서 벽체와 지붕을 만들었기에 板幕(판막)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지금으로 보자면 비닐하우스 집, 컨테이너 집, 판자집 등이 이런 움막집의 범주에 속할 듯하다. 한편으로 그런 움막집들이 물가에 있다면 水幕(수막), 들판에 있다면 野幕(야막),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遠幕(원막), 포구에 있으면 浦莫(포막), 산지에 농막으로 지었다면 山幕(산막) 등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럼 동막동에서 東(동)은 어떤 의미로 막곡 앞에 붙였을까?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말 ‘동떨어진’의 ‘동’과 상통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판단이 인정된다면, 동막골은 ‘동떨어진 곳에 자리

한 움막촌'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층민으로 구성된 외진 마을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동막이란 지명이 읍내리 혹은 군내리와 같이 읍치와 함께 자리한 경우가 없는 점, 현재에도 동막이란 자연지명을 유지한 곳은 대부분 산지구릉지대인 점 등으로 일단 뒷받침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이담면 동막동, 양주 둔야면 동막동, 양주 주별면 水幕洞(수막동), 양주 구지면 土幕里(토막리), 광주 초월면 상동막리·중동막리, 하동막리, 광주 낙생면 동막동, 용인 동변면 동막, 용인 수진면 동막리, 용인 박곡면 동막, 용인 서촌면 동막, 양평 하서면 幕谷里(막곡리), 양평 고읍면 동막리, 양평 서중면 동막리, 양평 하북면 동막리, 여주 근남면 동막리, 죽산 북일면 草幕里(초막리), 안성 조령면 동막, 진위 여방면 莫谷里(막곡리), 진위 이서면 野幕里(야막리), 남양 화척지면 遠幕洞(원막동), 과천 남면 초막리, 통진 군내면 초막동, 통진 보구곶면 동막리, 마전 북면 동막리

당산(堂山)

지명 : 원당, 당골, 당곡, 신당, 당산, 당현

민간에서 신을 모시기 위해 사당 형태로 지은 종교건축물을 神堂(신당)이라 한다. 신당에는 할미당, 국사당, 산신당, 산제당, 서낭당, 당산 등 다양하고, 그런 지명들이 『조선지리지』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1912년 행정지명의 경우 종개념인 국사, 산신, 성황 등으로 지명을 삼지 않고 원당, 당산, 당골 등과 같은 유개념을 택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어쨌든 ‘堂(당)’이 들어가는 지명은 신당과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해동어면 원당리, 광주 초월면 원당리, 용인 박곡리 堂谷(당곡), 양평 남시면 新(신)당곡리, 양평 남시면 구당곡리, 양평 상북면 神堂(신당)리, 여주 등신면 당산동, 여주 등신면 堂隅(당우)동, 죽산 제촌면 唐村(당촌), 안성 죽촌면 堂里(당리), 안성 북리면 당리, 안성 원당면 내원당리, 수원 송동면 당산, 수원 태촌면 堂峴(당현), 수원 태촌면 당곡, 수원 현암면 堂峴(당현), 과천 남면 당리, 과천 상북면 당산리, 김포 고현내면 당곡리, 김포 노장면 원당리, 김포 노장면 당하리, 고양 원당면 원당리, 교하 와동면 당하리, 파주 칠정면 堂洞(당동)리, 장단 진현내면 원당리, 장단 고남면 원당리

장생(長牲)

지명 : 장승, 長牲(장생), 長承(장승), 長勝(장승), 長星(장성), 長勝(장승), 長升(장승), 長僧(장승), 長丞(장승), 장승

장승은 마을 또는 절 입구 또는 길가에 세워 지역 간의 경계표 구실, 이정표 구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 이런 까닭에 장승 이름이 들어간 지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10년대 지명을 보면 장승거리, 장승거리 주막, 장승박이, 장승박이고개, 장승박이내, 장승박이보, 장승들, 장승모루 등이 아주 많이 확인되지만, 행정지명은 아래와 같이 두 곳에서 확인될 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접동면 長牲里(장생리), 수원 매곡면 長牲峴(장생현)

요(窯) 일반

지명 : 釜谷(부곡), 가마골

우리나라 가마터는 땀값이 풍부하고, 물의 이용이 편리하며, 수로를 통하여 완성품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곳에 입지했다. 아울러 배후에 두터운 수요처가 있으면 금상첨화였다. 이런 도자 산업 발전에 적합한 곳이 경기도였고, 특히 경기도 광주는 한강을 통하여 완성품을 최대수요처인 한양으로 운반하거나, 도자 재료를 각지에서 수운으로 가져오기에 편리한 곳에 자리하여, 조선시대 우리나라 백자 생산의 중심지였다.

조선후기부터 농업생산력의 증대,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장시의 확대 등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인구의 집중화와 연동하여 식생활 용기의 생산도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경기지역에 자기, 도기, 옹기, 기와 등을 생산하는 장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특수촌락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품의 생산에는 燐造(번조)를 위한 목재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했고, 이런 까닭에 가마시설은 대부분 森林(삼림)이 풍부한 山間(산간)에 자리했다.

어쨌든 전통시대 가장 널리 사용된 물품은 목기를 제외하고는 도기·자기·옹기였다. 이 중에서 질이 아주 좋은 上品(상품)의 磁器(자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현이나 면리 단위를 수요처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하품자기, 도기, 옹기를 굽는 가마터가 널리 분포하였고, 가마터를 운영하던 장인들이 사는 산간마을에 두루 분포했다.

가마의 종류에는 자기가마, 도기가마, 기와가마, 숯가마 등 다양하지만 지명에는 이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가마골이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를 한자로 옮길 때에는 釜谷(부곡)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자 ‘釜(부)’는 우리가 흔히 가마

솔이라 부른 발이 없는 솔을 뜻한다. 번조한 용기를 만드는 생산시설인 가마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한자로, 우리말 이름을 한자지명으로 잘못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바른 한자 지명은 窯谷(요곡)이다.

지명 : 釜谷里(부곡리), 釜谷洞(부곡동), 釜洞(부동)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장흥면 부곡하리, 광주 실촌면 부곡동, 용인 박곡면 부곡, 여주 금사면 부곡리, 여주 개군산면 釜洞里(부동리), 안산 군내면 부곡리, 파주 주내면 부곡리, 파주 천현외면 부곡리

자기요(瓷器窯)

지명 : 사기막골, 사기막, 沙器洞(사기동), 陶匠(도장)골

우리는 흔히 유약을 바른 백자와 청자를 도자기라 부른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질그릇은 陶器(도기)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기그릇은 磁器(자기, 또는 瓷器)라 하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편목에서 磁器所(자기소)와 陶器所(도기소)로 구분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향리의 일반민들은 沙器(사기)라 불렀고, 그것이 지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자기를 생산하는 가마가 있는 곳을 사기막골이라 지칭했다. 여기서 자기는 생산물품, 幕(막)은 공방인 草幕(초막), 골은 자기 장인이 거주하는 마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지역 사기막골 중에서 국가의 사용원에서 운영하던 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民需用(민수용)의 하품의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민수품은 넓게는 군현 단위, 좁게는 동리 단위를 대상으로 유통되었고, 번조에 필요한 삼림을 찾아 최소 10년 단위로 옮겨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각 군현에는 지금 알려진 곳보다 훨씬 많은 사기막골이 존재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 대평리 분청사기요지(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9호)를 옛 가마골, 사기골과 함께 陶庄(도장)골이라 부렸던 사실로 미루어, 사기요가 있던 곳을 사기막골과 함께 ‘도장골’로도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또 용기를 팔던 곳을 ‘독점’이라 했던 사실을 참고할 때, 사기막에서 생산한 자기를 팔던 곳을 ‘沙器店(사기점)’ 또는 ‘沙店(사점)’으로 지명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군내면 沙器洞(사기동), 이천 둔면 사기막, 양평 남종면 사기막리, 양평 남종면 분원리, 양평 북하도면 沙店(사점)리, 안성 조령면 사기막

2000년 일치 관련유적

계정리 백자요지1-4(양평 계정3리 사기막골), 대대리 백자요지(용인 대대리 사기렘), 문원동 백자요지1, 2(과천 문원동 사기막골), 봉무리자기산포지 1, 2(용인 봉무리 도장골), 부곡리 요지1~3(양주 부곡리 윗가마골), 부곡리 요지1~3(연천 부곡리 점말, 사기막골), 분원리 도요지(광주 분원리), 삼회리 요지(가평 삼회리 사기막골), 서리 분청요지, 백자요지1~6, 중덕 고려백자요지(용인 서리 사기막골), 신복리 백자요지(양평 신복2리 사기막골), 신하리 요지(가평 신하리 사기점터), 원암리 요지(용인 원암리 사기막골), 탑동 요지(동두천 탑동 사기막골), 효자동 백자요지1-3(고양 효자동 사기막골)

옹기요(甕器窯)

지명 : 옹점, 독정, 독곡, 동이점, 분점리, 도곡, 점촌, 점말, 옹기점말, 독쟁이

전통시대 식탁용기는 주로 자기를 사용하였다.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시대 백자는 하층민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이었다. 이런 자기와는 달리 저장용기는 독[甕(옹)]을 사용하였다. 독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보다는 질그릇[陶器(도기)]에 유약을 바른 옹기로 제작되었다. 이런 독은 일반백성이 주로 사용하고, 대형용기는 자기가 아닌 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비하여 그 쓰임새가 훨씬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독뿐만 아니라 소래기, 화로, 밥통, 소줏고리, 젓독, 찻병, 술, 시루, 물동이, 주전자, 약탕관, 뚝배기, 술병, 심지어 악기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옹기로 만들어져 쓰였다. 그리고 그런 만큼 자기 가마에 비하여 옹기 가마가 훨씬 많았다.

옹기굽는 일은 ‘천민이 하는 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옹기제작에 종사하던 장인들은 그들의 마을이 ‘독점’, ‘동이점’ 등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했다. 천민마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그래서 신분사회가 와해되는 일제강점기가 되자, ‘陶谷(도곡)’, ‘道谷(도곡)’ 등과 같은 異稱(이칭) 혹은 美稱(미칭)을 원했다. 한편으로는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지만, 발음 ‘독점’을 변용한 ‘獨井(독정)’, ‘篤亭(독정)’, ‘獨亭(독정)’ 등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이에 원 뜻을 유지한 甕(옹)과 盆(분)이 들어간 지명은 물론 獨(독), 篤(독), 道(도), 陶(도) 등의 지명이 店(점)을 연상시키는 井(정), 亭(정) 등과 결합하거나, 마을을 뜻하는 谷(곡)과 결합하면 일단 옹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던 장인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옹기를 파는 곳인 옹기점이 있는 곳을 그냥 ‘店村(점촌)’으로 줄여서 지칭했다. 즉 지명에서 ‘점촌’이라 하면

상가가 늘어선 곳인 상점밀집지대를 말하기 보다는 옹기점이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백석면 甕場里(옹장리), 광주 돌마면 甕店里(옹점리), 용인 서변면 篤亭里(독정리), 양주 건천면 下獨井里(하독정리), 포천 내북면 獨谷里(독곡리), 광주 돌마면 盆店里(분점리), 양평 동종면 道谷里(도곡리), 양평 서시면 陶谷里(도곡리), 양평 서시면 盆店里(분점리), 양평 북하도면 道谷里(도곡리), 죽산 원삼면 篤村(독촌), 안성 원당면 獨亭里(독정리), 수원 갈담면 獨井里(독정리), 수원 태촌면 篤才洞(독재동), 수원 포내면 道谷(도곡), 과천 하북면 甕幕洞(옹막동), 과천 하북면 甕店里(옹점리), 김포 노장면 獨井里(독정리), 여주 근동면 店村里(점촌리), 수원 형석면 점촌, 수원 안녕면 店村(점촌), 수원 삼봉면 舊店里(구점리), 수원 숙성면 점촌, 과천 군내면 內店里(내점리), 통진 군내면 점촌, 파주 광탄면 신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도신리 요지(연천 도신리 점촌), 동안동 독터굴 요지(동두천 동안동 독터굴), 화산동 옹기요지(용인 화산리 요산동)

와요(瓦窯)

지명 : 瓦谷(와곡), 왜골, 梧野所(오야소)

전통시대 민수용 기와는 현지에서 전문장인이 생산한 것을 사용했다. 기와집 한 채를 짓는 데에 필요한 기와의 숫자가 방대하고, 기와의 무게도 자기와 옹기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기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와생산지는 광역의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없었고, 읍면 단위로 산발적으로 분포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17세기 이후 관영와요가 해체되면서 기와의 생산은 전문장인에 의한 사설와요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일종의 장소에 瓦窯(와요)를 설치하고 장기간 窯業(요업)을 했으리라 짐작되고, 그에 따라 기와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특수촌락이 형성되었을 것은 뻔하다.

이들 마을을 토착민들은 왜골로 불렀고, 한자로는 瓦谷(와곡)으로 주로 기록했다. 그런데 앞에서의 ‘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와 굽는 일은 ‘천민들이 하는 일’로 취급받았기에 왜골이란 말 대신에 원뜻과 전혀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 ‘梧野谷(오야곡)’이란 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성남 梧野洞(오야동)에서 확인되는데, 원래 이곳의 옛지명은 瓦室(와실), 왜실이였다. 참고로 오야동의 지명에 대하여 “이 지역에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야소

(梧野所)라 하고, 오동나무 열매가 잘 열렸으므로 오야실(梧野實)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돌마면 梧野所洞(오야소동), 안성 升良院面(승량원면) 瓦谷(와곡), 진위 마산면 瓦谷里(와곡리), 수원 남곡면 瓦谷(와곡)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향동 와요지(하남 향동 왜골)

탄요(炭窯)

지명 : 炭洞(탄동), 炭洞里(탄동리), 숯골

숯은 음식조리용의 연료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과 같은 금속을 연마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 능원묘에도 숯이 사용되어 특정 마을이나 사찰을 지정하여 공납토록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의 사치를 언급하면서 ‘숯으로 지은 밥을 먹었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땀감으로 사용되기도 했을 듯하다. 이처럼 숯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요처가 있었고 그것도 다양했기에, 숯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숯가마[炭窯(탄요)]가 경영되었고, 이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런 숯의 수요는 일제강점기부터 크게 늘어났다. 다다미를 선호했던 일본인들이 숯을 이용한 화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숯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製炭(제탄)이 장려되었다. 그러자 숯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종빈이 1910년대에 동지들과 함께 숯장사를 하여 경제적 기초를 세운 사실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숯이 자본주의경제의 도입과 함께 하나의 상품이 되자, 그에 맞추어 숯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이 생겨났고, 그 결과 경기도의 마을 이름에도 炭洞(탄동), 숯골과 같은 지명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경안면 炭洞(탄동), 광주 초월면 탄동, 연천 관인면 탄동리, 광주 세촌면 탄동

대장간

지명 : 冶洞(야동)

인터넷에서 특이한 마을이름으로 가끔씩 회자되는 야동리, 야동은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를 보면 金浦(김포) 古縣內面(고현내면) 新里(신리)에는 야막거리란 곳이 있었는데, ‘冶幕巨里(야막거리)’라 한자로 적고, 그것의 언문이 ‘대정간거리’라고 부기했다. 이에 冶洞(야동)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든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또 충북 충주시 소태면 冶洞里(야동리)는 ‘풀무골’이라고도 한다. 이에 야동리는 풀무간(대장간)이 있던 마을인 ‘풀무골’의 뜻을 옮긴 한자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포 풍무동에는 冶洞(야동)이란 지명이 남아 있고 豊舞洞(풍무동)은 풀무골에서 變異(변이)된 지명으로 미칭에 해당된다.

대장간은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시대 농촌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야동, 풀무골이라는 지명도 흔했으리라 본다. 한편 우리가 시골 장터에서 보는 대장간은 대부분 무던 농기구나 기타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 즉 단조작업을 하던 곳이다. 그러나 무쇠를 틀에 넣어 솥을 비롯한 탕비용 용기를 만드는 주조 작업을 수행하는 冶匠(야장)도 있었을 듯하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冶洞(야동)으로 지칭했는지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다만 전술한 충주 소태면 야동리의 지명 유래가 솥을 만들던 골짜기라는 ‘풀무골’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주조작업이 이루어지던 곳도 冶洞(야동) 또는 풀무골로 불렸을 가능성은 있다.

다음(daum) 지도에서 ‘풀무골’을 검색하면 안성 서운면 북산리, 화성 양감면 사창리, 안성 고삼면 쌍지리, 이천 장호읍 풍계리, 하남 위례광장로 9-9, 여주 능서면 양거리, 양평 양서면 신원리, 양주 광적면 석우리, 연천 미산면 유촌리, 평택 포승면 석정리, 용인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등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행정 지명

수원 포내면 冶洞(야동), 교하 아동면 冶洞里(야동리)

야철(冶鐵)

지명 : 금곡, 우곡, 쇠골

금곡리는 아주 흔한 마을 이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金谷(금곡)의 어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원한 설명을 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쇠가 많이 나왔거나, 철광맥이 있어서 금곡리로 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금곡리라는 마을 이름이 제한적으로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에만 해도 전 지역에 걸쳐서 금곡리라 지명이

확인된다. 따라서 금곡리의 마을 유래가 철광산에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의 지명유래에 대한 설명이 참고된다. “金谷(금곡)이라는 지명은 금정산(金井山)의 주봉(主峰)인 고당봉(姑堂峰)에서 낙동강변 쪽으로 뻗어내린 첫 골짜기(谷)로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정산의 서쪽 골짜기에 金(금)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金脈(금맥)을 찾아 뚫어 놓은 골이 많아 金(금)이 생산되는 골짜기라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금곡동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 위치한 불매등에서 옛날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 녹은 덩어리, 슬래그)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冶鐵址(야철지)라서 쇠 金(금)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광양의 ‘생쇠골’이란 곳이 일제 때 광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황벽학(1876~1927)선생이 일본군의 조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리산 백운사의 포수를 모아 대장간을 만들어 각종 무기를 제작했다고 해서 ‘생쇠골’이라 했고, 그때의 철광석을 녹이던 야철로가 현재의 고로와 비슷한 형태였다는 기록도 주목된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할 때, 쇠골이란 마을지명은 철광석을 녹여 鐵(철)을 추출해 내던 冶鐵爐(야철로)를 운영하던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전국 각지에서 야철로가 발굴되고 있는 점으로 방증된다. 또 『高麗史(고려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인철소(多仁鐵所)’로 비정될 만큼 야철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충북 제천의 이류면 일대에서 야철의 흔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그런 지역 중에 금곡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쇠골이 제철과 관련된 지명임을 뒷받침해 준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금곡리, 양주 棲伐面(주별면) 금곡리, 광주 낙생면 금곡동, 양지 주동면 금곡리, 이천 백면 牛谷(우곡), 양평 하서면 금곡리, 여주 근남면 금곡동, 진위 일탄면 우곡리, 수원 매곡면 금곡리, 수원 오정면 금곡, 김포 검단면 금곡리, 파주 천현내면 금곡리, 파주 파평면 금곡리, 장단 상도면 금곡리

고인돌

지명 : 지석, 광암, 구암, 귀암, 관돌

고인돌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 일반적으로 산언저리나 평원에 자리잡은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떼지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 마을 주변의 논이나 밭 가운데서 바둑판처럼 편평한 돌을 흔히 볼 수는 없다. 특히 받침돌을 橋脚(교각)처럼 세우고 그 위에 큰 바위를 올린 경우는

아주 드물게 확인되다. 어쨌든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바위가 있을 경우 이를 두고 廣巖(광암, 너른돌), 支石(지석, 권돌), 龜巖(구암, 거북바위) 등으로 지칭하고 그런 바위들이 있는 마을을 광암리, 지석리, 귀암리 등의 행정지명으로 기록했다. 한편, 양평 대석리에 지석묘군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역에 따라서는 고인돌을 大石(대석)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대개의 고인돌은 지상이나 지하의 무덤방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만드는데, 덮개돌의 형태에 따라 크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탁자식은 일반 탁자의 다리처럼 받침돌이 긴 형식이고, 바둑판식은 바둑판의 고임목처럼 받침돌이 덮개의 두께보다 짧은 형식이다. 그에 비해 ‘개석식’은 받침돌이 없이 땅 위에 바로 덮개돌이 놓인 형식이다. 추측컨대 마을주민들은 바둑판식과 개석식은 권돌 또는 고인돌로 지칭하고, 개석식은 너른돌, 거북바위 등으로 구분했을 듯하다. 이런 추측은 광암이란 지명이 지석보다 많은 사실을 경기지역에서 개석식이 탁자식보다 많이 확인되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가능하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고주내면 광암리, 양주 이담면 광암리, 광주 별비면 광암리, 양주 하도면 광암리, 광주 서부면 광암동, 용인 동변면 하지석·상지석, 이천 신면 지석, 죽산 남일면 광암리, 교하 지석면 상지석리·하지석리, 적성 남면 龜岩里(구암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광암동 지석묘(하남 광암동), 대석리 지석묘군(양평 大石里), 지석리 지석묘(이천 지석리 권돌마을)

입석(立石)

지명 : 선돌, 입석

우리말로 선돌로 불리는 입석은 마을 어귀에 홀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마을을 지칭하는 상징물로 적합했고, 마을 지명 중에 ‘立石(입석)’이라는 행정지명도 간혹 확인된다. 이런 선돌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선사시대 유적이다. 건립 목적은 근세까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으로 미루어, 정령 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입석리, 가평 외서면 상입석·하입석, 여주 지내면

입석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녹양동 선돌(의정부 녹양동 아랫선돌), 석우리 선돌(여주 석우리 선돌)

교량(橋梁)

지명 : 석교, 판교, 세교, 삼교

전통시대 마을 이름에는 다리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다리명 지명은 거의 절대다수가 석교, 판교, 주교, 灰板橋(회판교), 섯다리, 흙다리 등과 같이 재료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나라 지명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되는 잔다리 즉 細橋(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잔다리를 細橋(세교)로 혼동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잔다리는 ‘가는 다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細橋(세교)’는 ‘棧橋(잔교)’로 옮겨야 옳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棧橋(잔교)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중요한 점은 가설 재료로는 칩덩굴, 등나무 등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잔교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명 細橋(세교)의 원뜻인 ‘잔다리’는 칩이나 등나무들을 엮어서 만들 작은 다리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잘 다듬은 목판재 목재로 가공하지 않은 작은 다리,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재료로 간단히 만든 다리,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 설치한 다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정엔 문헌에서 細橋(세교)라는 다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선지리지』에서 인천 중구 운남동의 잔다리를 小橋(소교)로 혼동한 사실, 마을 지명에 판교와 석교보다 세교가 더 많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입증된다.

한편 ‘다리’를 교량으로 보지 않고, ‘떨(들)’의 어원인 ‘드르’. ‘드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자면 세교는 ‘좁은 들’, 판교는 ‘넓은 들’, 삼교는 ‘셋들’로 해석된다. (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문화사, 2003, 219쪽)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소개해 둔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양평 읍내면 석교리, 광주 낙생면 판교리, 수원 토진면 판교동, 수원 속성면 梁橋洞(동)(양교동), 죽산 남이면 판교리, 진위 성남

면 세교리, 수원 안녕면 세교리, 수원 문시면 下細橋(하세교), 진위 오타면 插橋里(삽교리), 수원 숙성면 舟橋洞(주교동), 고양 원당면 주교리, 안산 북방면 渡馬橋(도마교)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석산리 석교(이천 석산3리 석교)

달는 글

이상의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필자 나름대로 새롭게 밝혔거나, 기존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거나,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島村(도촌)이란 지명을 섬과 연결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을 보면 除役村(제역촌)으로 진보에 속한 마을을 島村(도촌)이라 했다. 鎭堡(진보)가 해안가와 섬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촌이라 했으리라 추측된다.

와촌은 기와를 굽던 곳이 있던 마을이 아니라, 기와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촌을 말한다. 『화성성역의궤』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용된 집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해 두었는데, 집의 종류를 크게 瓦家(와가), 草家(초가), 土室(토실)로 대별했다. 와촌은 부촌, 초옥은 초가삼간의 상민촌, 그리고 토실은 수혈의 움막집이 주류인 빈민촌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바로 위와 관련하여 전통시대 고을 마다 두세 개는 있었던 ‘동막’ 지명은 ‘독을 만드는 마을’, ‘동쪽 막힌 곳에 자리한 마을’이 아니라, 광의로는 움막촌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東(동)’은 동쪽이 아님이 확실한데, 일반 촌락과 동떨어져 있기에 ‘동’을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마을 지명 중에서 흔한 것 중 하나가 金谷(금곡)이다. 이런 금곡을 철광산이 있었다거나, 철광맥이 있었다거나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유래를 밝히고 있으나, 궁색한 느낌이 든다. 고고학 발굴성과를 참고할 때, 야철을 위하여 爐(노)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인이 있던 마을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할 듯합니다.

細橋(세교) 지명은 ‘가는 다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교의 우리말 지명은 ‘잔다리’이다. 이는 ‘棧橋(잔교)’를 우리말로 바꾼 경우이다. 원뜻에 충실하자면 칩덩굴, 등나무 등, 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작은 다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량 관련 지명이 石橋(석교), 板橋(판교), 灰板橋(회판교) 등과 같이 가설재료로 이름을 삼는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따라서 세교는 목재나 석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架構(가구)방식으로 튼실하게 만든 다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잔

가지, 칩덩굴, 등나무 등을 서로 엮어서 만든 소형의 하급 다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궁평, 궁내, 궁뜰 등 宮(궁)자가 들어간 지명은 宮家(궁가)가 있었거나 궁에 살 수 있는 왕실인물이 살았던 곳일 가능성보다는 왕실에 세금을 내는 궁장토가 있었던 마을을 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둔전 지명은 둔전토가 있던 곳을 말하는데, 단순히 ‘둔전말’이라는 일반명사화된 지명 이외에, 도감, 수어청, 방어청, 수영청, 도감, 호조 등 軍營(군영) 관련 지명이 들어간 지명도 둔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능곡, 능말 등의 지명은 王陵(왕릉)과는 무관한 지명이다. 지명에서의 陵(능)은 사대부의 묘 중에서 석물을 제대로 갖춘 大墓(대묘)를 지칭한다고 보면 좋겠다. 이는 사대부 묘의 분포지도와 지명을 연결해 보면 입증된다.

月境(월경)이란 지명은 달(moon)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 지명 속 ‘월경’은 해당 군현의 관할 범위 밖의 토지인 越境地(월경지)를 뜻한다. 참고로 토속어로 산을 ‘월’이라 했다. 이에 영암과 강진에 자리한 월출산은 달이 떠오른 산이 아니라 ‘평지에 솟아있는 산’이란 뜻이 더 적합할 듯하다.

釜谷(부곡)과 같이 ‘釜(부)’가 들어가는 지명은 ‘숯’과는 전혀 무관한 지명이다. 도기와 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던 마을을 뜻한다. 한자로는 窯谷(요곡)이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말을 잘못 변안한 대표적인 지명이다. 어쨌든 ‘사기’ 혹은 ‘도장’이 들어간 지명은 도자기 중에서 고급용기인 자기를 굽던 마을로 보면 된다.

사기막과는 달리 옹점, 독정, 독곡, 도곡, 동이점, 점말, 점촌, 독쟁이 등은 일상용기인 도기(후대에는 옹기)를 굽던 마을을 뜻한다. 전통시대 옹기쟁이는 천민으로 취급 받았기에 道谷(도곡)과 같은 지명으로 粉飾(분식)했다. 원래의 마을이름을 신분해방 시점과 함께 美稱(미칭)으로 의도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社倉(사창)은 빈민 구제를 구휼을 목적으로 지방의 촌락에 설치한 곡물대여기관으로, 관아건물의 일부분의 관청에 필요한 곡물을 보관하는 司倉(사창)과는 구분되며, 조세로 거두어 드린 미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수상교통의 중심지에 설치한 조창과도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사창’이 들어간 촌락은 社倉(사창)이 있었던 마을로 볼 수 있으며, 흔한 지명인 倉洞(창동)은 대부분 社倉(사창)이 있었던 곳으로 보면 되겠다.

원터, 원기, ○○원 등은 원님이 계시던 관아가 아니라 공공여관으로 숙식을 제공하던 院(원)취락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원취락은 조선후기가 되면 주막으로 대체된다.

城(성)이 들어가면 성곽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만 성을 土俗語(토속어)로는 ‘жат’이라 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栢(백, жат 백)이 들어가 지명 역시 산성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栢岷(백현)은 잣나무가 많은 고개가 아니라, 산성이 있는 산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일 수 있다.

烽(봉)이 들어가면 烽燧(봉수)와 관계한 지명임은 자명하다. 다만 ‘望(망)’자자 들어간 지명도 봉수와 관련한 望臺(망대)가 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사당, 묘, 재 등이 들어가는 지명은 문중의 사당이나 재실이 있는 마을을 지칭한다. 사당에는 선산이 있고, 위토가 주변에 있으며, 그것을 관리하는 묘지기·산지기들이 있기에 자연히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정문, 이문이 들어가 지명은 정려각이 있는 마을을 뜻한다. 효자동 역시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정관을 걸어둔 정려각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당산, 당골, 신당 등의 지명은 전통시대 마을마다 있던 당집과 관련한 지명이다. 1912년 행정지명의 경우 종개념인 국사, 산신, 성황 등으로 지명을 삼지 않고 원당, 당산, 당골 등과 같은 유개념을 택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와촌이 아니라 와곡, 왜골 지명이 들어가면, 이는 기와를 굽던 와요가 있던 마을을 지칭한다. 기와를 토속어를 따서 梧野(오야)로 바꾼 점은 흥미롭다. 성남 오야동이 대표적이다.

야동은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이런 야동을 ‘풀무골’이라고 하는 사실, 冶幕巨里(야막거리)를 ‘대장간거리’라 부른 사실 등으로 미루어 冶鐵(야철)과는 무관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야철과 관계한다면 冶爐(야로)라는 지명으로 적었을 듯하다. 오리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설치한 정자로, 관찰사 등을 맞이하는 용도, 문과(文科(문과))에 새로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식장,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곳 등으로 사용했다. 梧里(오리)라는 지명 중 일부는 원래 五里(오리)를 잘못 表記(표기)한 것일 수 있다.

이 글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조선지리지자료』, 『(경기도) 지명유래집』 등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논증의 근거가 견고하지 않다. 둘째로, 지명 관련 역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 예컨대 驛院(역원) 관련 지명을 분석할 때 역원에 대한 사전적 연구성과만을 참고하였다. 셋째로, 필자가 이 분야에 비

전공자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지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두세 달 정도 공부하여 이 글을 작성했던 그런 만큼 논증에 약점이 있으리라 본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역사적 관점, 고고학적 성과, 문화유적지도 작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지명을 살펴봐왔기에, 지명 연구에 새로운 시도였다고 자평해 본다.

글 김성태

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본 『경기학광장』의 기획, 편집을 맡고 있다. 1997년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으로 시작으로 경기도와 연을 맺어,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였고, 2016년부터 경기학센터에서 경기지역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학센터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에서 경기지역학을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활용, 교육,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학센터의 사업은 경기지역학 연구활성화, 경기학 도서 발간·보급, 문화 자원 기록·보존·관리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위사업으로 지역학 강좌·교육, 경기학 조사와 연구, 경기지역학 네트워킹, 경기역사문화총서 발간,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보급, 경기 대표인물 평전 발간, 본 『경기학광장』(계간지) 발간,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자료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고, 경기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학연구자모임 회원모집

2018년 경기학의 발전을 위한 '경기학연구자모임'이 결성되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경기학 관련 학술 정보의 제공은 물론,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경기학연구자모임 담당자 메일(kst9796@hanmail.net)로 가입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가입비는 없으며 문의는 031-231-8578(담당 : 김성태)로 하시면 됩니다.



경기학연구자모임 연구발표회 모습

『경기학 광장』 원고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경기학광장』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경기학광장』은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 마당’입니다.

전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집필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노트나 특별논고, 경기학 칼럼 코너도 있습니다.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의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 한 원고는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거칠더라도 직접 조사, 탐방, 취재한 내용을 원합니다.

글감

분야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테마 : 마을, 인물, 사건, 민속, 음식, 생태, 여행, 르포,
축제, 경기학 관련 책소개, 칼럼, 연구노트 등

주제 : 이 책의 목차 참조

자격

경기도민이나 경기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경기학 칼럼, 연구노트, 논고는 전문학자로 제한

분량

기 본 : 200자 원고지 30매

연구노트 : 200자 원고지 50매

논 고 : 200자 원고지 100매

원고료

원고지 1매당 10,000원

모집

연중 수시

심사

재단 내부 심사 후 게재 결정

절차

사전접수후 게재가 결정되면 정식으로
‘투고 신청서’와 ‘투고확약서’와 함께
완성본 제출

사전접수처

kst9796@hanmail.net

문의

경기학센터 담당자
(031-231-8578)

Village & Community

38선이 통과했던 포천 연곡리 제비울마을

People & life

공양주 보살 - 불국행 김숙자, 스님들은 나만 보면 그저 좋아라 했어요.

양재문씨에게 듣는 고양시 농업 이야기

정동만 용인 독성2리 이장, 마을주민 통째로 새로운 동지로 집단이주 추진

‘아이 제일주의’로 완성한 배혜경 교장의 교직 생활 40년

Trip & healing

청춘은 음악과 함께 여기에 남아, 음악도시 가평

한남정맥의 현주소, 수원 - 의왕구간

김포 김구원선생두부

Information & news

조선시대 온돌의 발견! - 평택 화양리 유적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 이름이 이름이 아니다.

책소개 : 경기지명총람 -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Research & study

기지촌 ; ‘더러운 그리움’의 공간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고문서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손돌을 보다

학예연구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파주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磨崖鍾)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三龜字) 석각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